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공동연구

#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2021. 2.



한양대학교

#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이정림(건국대학교)

공동연구자 : 방유리나(건국대학교)

차정민(중앙대학교)

강설화(중앙대학교)

김태형(한양대학교)

정혜리(한양대학교)



이 연구는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의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공동연구 과제로 수행한 것으로,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 연구결과 요약

---

## 요약

---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학생의 학교 활동 전반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어 지원자의 고교 3년간의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을 통해 학생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교 현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기재하고 있는지 기록 현황을 파악하여 다양한 유형과 형태를 분석하고,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변화와 그에 따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고교와 대학 입장에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와 관련하여 대입제도에서의 학생부 자료의 중요도, 세특 평가 방안의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차에 걸쳐 교사와 입학사정관 각각 2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변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 검증(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부 주관식 항목은 유목화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층면접(FGI)을 실시하였는데, 교사 및 장학사 20명과 입학사정관 20명 총 40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자문지를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에 의견을 살펴보았다. 세특 기재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은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기재를 위해서는 토론 및 발표, 강의 후 활동의 수업방식을 선호하였다. 세특 기재 시 어려운 점으로는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와 학생별 개별화 기록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세특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원인으로는 교육과정 및 환경의 차이, 관리자 및 소속 구성원의 관심도 차이, 교사들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와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대부분 세특의 영향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세특 평가 시 지원자 변별에 도움이 되는 유형으로 수업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과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이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이는 고교에서 기재 시 선호하는 유형과 일치하였다. 세특 기재 방향에 대해서는 세특은 교사가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설문응답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사는 긍정답변이, 입학사정관은 부정답변이 많았다. 입학사정관이 평가에 활용하는 세특 내용으로는 학생 제출 과제물 내용과 교과서 내용 기반의 응용 탐구 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자문에서 세특 기재 개선점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의무와 학생별 개별화된 기록에 대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과 수업 방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 및 교사 간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교 내 교사들 간의 협의와 내용 공유, 교육청 주관의 교사 연수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세특의 표준적인 평가기준 확립과 공개에 대해서는 오히려 표준화된 기준이 세특 내용의 획일화와 교사의 기재 자율권을 축소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세특은 성취도와 서로 상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셋째,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을 살펴보았다. 학생부 기재지침 변화와 관련하여 무조건 기재 금지사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재와 관련한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학생부의 기재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은 이루어져야 하나 가이드라인 혹은 표준화 지침, 우수사례 공개 등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언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등 전반적인 대입정책의 변화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의 변화 정책 등이 오히려 지원자의 교육 환경을 고려한 정성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대입전형 정책 추진 시 고교 및 대학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3
가. 문헌조사 .....	3
나. 분석연구 .....	4
II.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	8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의 변화 .....	8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의와 중요성 .....	8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변천 .....	9
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에 따른 학생부 기재요령의 변화 .....	12
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관련된 기재요령 변화 .....	15
2.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	20
가. 대입제도의 변화와 전형자료의 활용 .....	20
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과 평가 .....	23
III.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분석 .....	28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	28
가. 설문조사 개요 .....	28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3
다. 설문조사 요약 및 시사점 .....	60

<b>IV.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및 활용 방안</b>	<b>64</b>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현황 및 활용	64
가. 설문조사 개요	64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69
다. 설문조사 요약 및 시사점	94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및 평가 활용에 대한 FGI조사	99
가. 전문가 심층면접(FGI)조사 개요	99
나. 전문가 심층면접(FGI)조사 결과 분석	104
다. 전문가 심층면접(FGI)조사 요약 및 시사점	135
<b>V. 결론 및 제언</b>	<b>142</b>
1. 결론	142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142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및 활용	144
다.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147
2. 제언	148
<b>참고문헌</b>	<b>150</b>

## 표 목 차

〈표 I-1〉 교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 .....	4
〈표 I-2〉 입학사정관 대상 설문조사 내용 .....	5
〈표 I-3〉 전문가 심층면접 면담지 내용 .....	6
〈표 II-1〉 대입전형 공정화 방안 추진 로드맵 .....	18
〈표 II-2〉 연도별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	19
〈표 II-3〉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 및 평가자료 .....	21
〈표 II-4〉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출 가능 서류 비교 .....	22
〈표 II-5〉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구성 .....	23
〈표 II-6〉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 내용 .....	25
〈표 III-1〉 설문 응답 현황 .....	29
〈표 III-2〉 설문 문항 구성 .....	31
〈표 III-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선호 기술 유형 .....	33
〈표 III-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선호하는 수업방식 유목화 .....	34
〈표 III-5〉 기술 내용에 따른 예시 .....	35
〈표 III-6〉 기술 방법에 따른 예시 .....	36
〈표 III-7〉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유형 적합한 수업 및 평가 방식 .....	38
〈표 III-8〉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대학의 평가 반영 여부 고려 .....	38
〈표 III-9〉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중점을 두는 대학의 평가요소 .....	39
〈표 III-10〉 세특 기재 시 발생하는 어려움 유형 .....	41
〈표 III-11〉 세특 기재시 과목당 500자, 과목별 기록 의무화의 적절성 .....	42
〈표 III-12〉 세특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발생 여부 .....	42
〈표 III-13〉 세특 기재 시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 .....	43
〈표 III-14〉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별 상세 이유 유목화 .....	44
〈표 III-15〉 세특 기재 시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 중 유의성 항목: 대학입학 관 련 업무 경력별 .....	45



〈표 III-16〉 세특 기재 시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 중 유의성 항목: 교직경력별	45
〈표 III-17〉 세특 기재 시 학교 내 기재 격차 발생 원인	46
〈표 III-18〉 학교 내 기재 격차 발생 원인별 상세 이유 유목화	47
〈표 III-19〉 세특 기재 시 학교 내 기재 격차 발생 원인 중 유의성 항목: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별	48
〈표 III-20〉 세특 기재 시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 중 유의성 항목: 교직경력별	49
〈표 III-2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영향력	49
〈표 III-2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영향력에 대한 교직경력별 유의성 확인	50
〈표 III-23〉 대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	51
〈표 III-2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기술 유형	51
〈표 III-25〉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세특 반영에 대한 의견 별 동의 정도	53
〈표 III-26〉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세특 반영에 대한 의견 중 유의성 항목: 교직경력별	54
〈표 III-27〉 대입에서의 세특 활용 방안에 대한 자유 의견 유목화	54
〈표 III-28〉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요령 변화에 대한 항목별 동의 정도	56
〈표 III-29〉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요령 변화에 대한 항목별 의견 중 유의성 항목: 교직경력별	57
〈표 III-3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방식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57
〈표 III-31〉 세특 기재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공에 대한 자유 의견 유목화	58
〈표 IV-1〉 설문 응답 현황	65
〈표 IV-2〉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집단 재분류	66
〈표 IV-3〉 설문 문항 구성	67
〈표 IV-4〉 학교 및 교사 간 세특 기재 격차	70
〈표 IV-5〉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존재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 교사 vs 입학사정관	70
〈표 IV-6〉 교과 세특의 학교 간 차이의 원인	71
〈표 IV-7〉 교과 세특의 학교 간 차이의 원인 유의성 검정: 입학사정관 전공 계열	72
〈표 IV-8〉 교과 세특의 학교 간 차이의 원인 유의성 검정: 교사 vs 입학사정관	72

〈표 IV-9〉 교과 세특의 학교 내 차이의 원인 .....	73
〈표 IV-10〉 교과 세특의 학교 내 차이의 원인 유의성 검정: 교사 vs 입학사정관 .....	74
〈표 IV-11〉 교과 세특 기재의 학교 및 교사 간 차이 양상 .....	75
〈표 IV-12〉 교과 세특의 학교 및 교사 간 차이 양상 유의성 검정: 입학사정관 대학 소재별 .....	75
〈표 IV-13〉 학교생활기록부의 적절성 .....	77
〈표 IV-1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의 학생부 평가 영향 .....	77
〈표 IV-15〉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의 학생부 평가 영향 차이 유의성 검정: 입학사정관 대학 설립별 .....	78
〈표 IV-1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의 학생부 평가 영향 차이 유의성 검증: 교사 vs 입학사정관 .....	78
〈표 IV-17〉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 평가 반영 항목 .....	79
〈표 IV-18〉 세특 기재 기술 유형의 지원자 간 변별 평가 항목 .....	80
〈표 IV-19〉 세특 기재 기술 유형의 지원자 간 변별 유의성 검정: 입학사정관 대학 소재별 .....	80
〈표 IV-20〉 세특 기재 기술 유형의 지원자 간 변별의 유의성 검증: 교사 vs 입학사정관 .....	81
〈표 IV-21〉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의견 .....	83
〈표 IV-22〉 세특 기재 기술 유형의 지원자 간 변별에 대한 유의성 검정: 입학사정관 대학 소재별 .....	83
〈표 IV-23〉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의견 중 유의성 항목: 경력별 .....	84
〈표 IV-24〉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의견 중 유의성 항목: 교사 vs 입학사정관 .....	85
〈표 IV-25〉 세특 기재 내용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활용 항목 .....	87
〈표 IV-26〉 학생부 기재요령의 세특 지침 변화의 적절성 .....	88
〈표 IV-27〉 학생부 기재요령의 세특 지침 변화의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입학사 정관 대학 소재별 .....	89
〈표 IV-28〉 학생부 기재요령의 세특 지침 변화 적절성 중 유의성 항목: 교사 vs 입학 사정관 .....	90
〈표 IV-29〉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방향 제언 .....	91
〈표 IV-3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방향 제언 중 유의성 항목: 교사 vs 입학사정관 .....	92
〈표 IV-31〉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교사 및 장학사) .....	100

<표 IV-32>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입학사정관) .....	101
<표 IV-33> 면담지 문항 구성 .....	102

## 그 림 목 차

[그림 III-1] 교사 대상 설문조사 설계 .....	28
[그림 IV-1] 입학사정관 대상 설문조사 설계 .....	64
[그림 IV-2] 전문가 심층면접(FGI) 조사 설계 .....	99

## 부 록

1. 교사 대상 설문지 .....	152
2. 입학사정관 대상 설문지 .....	160
3. 교사 대상 전문가 심층면접(FGI) 면담지 .....	166
4. 입학사정관 대상 전문가 심층면접(FGI) 면담지 .....	17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습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전형 방법과는 달리,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교과, 비교과 구분 없이 학교생활의 전과정을 정성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대학에서는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업역량,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 인성 등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평가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고교 3년간 교과와 비교과활동 등 다양한 영역이 기재되어 학생의 학교생활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학생의 학교 활동 전반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다. 이 중 특히 교과 수업에서의 경험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고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영역으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 활동 참여도 등을 기술한다.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한다(교육부, 2020). 현재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교사가 과목별로 500자까지 작성할 수 있다. 교과별로 진행된 수업내용, 학생이 참여한 발표, 토론, 실험 실습 등 학생의 다양한 교과경험과 활동을 기록할 수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교과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보여준 학업의지와 태도, 탐구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는가에 대한 개별화된 기록으로서 결과만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한다. 교사는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학생의 재능, 열정, 역량 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그리고 대학은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각 모집단위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전형자료가 되면서 교사는 학생의 경험과 성장 과정이 자세하게 드러나도록 충실히 기록하려고 노력한다(한수경, 2016).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동일 학교 내에서도 교사에 따라 기재 내용이 달라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에 반영되다보니 학생의 단점보

다는 장점 위주의 기술, 학생부 기록의 획일화, 학교별·지역별 차이, 교사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등이 나타났다(장정현, 2020). 이에 학생의 객관적 활동과 성장 변화의 기록과 대학입시자료로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식, 관리, 활용에 있어서 공정성 및 신뢰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2018a)에서는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요소 항목 정비,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 기재 격차 완화 및 기재·관리의 책무성 제고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며, 정규 교육과정 외의 활동을 기록하거나 대입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이 삭제되거나 상급학교에 제공되는 내용에 제한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사의 기재 부담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완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분량도 감축되고 있다. 또한 2022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교사추천서를 폐지하고, 자기소개서의 문항 및 글자수도 축소될 예정이며,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의 폐지가 예고되어 있어서 대입 평가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원자의 개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을 통해 학생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과목별 태도, 지적호기심, 탐구활동 등의 수업 참여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항목들과 연계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충실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자료가 학생 평가에 중요한 자료이며, 입학사정관은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성장했는지를 검토하여 학생 선발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고교 현장에서도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입에 학교생활기록부가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안희진, 2018).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강화되며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소인수 과목의 개설이 증가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이 활성화되면서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의 수도 증가하고 있기에 석차등급보다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택형 교육과정의 확대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며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해 나갈 수 있기에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평가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대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과 분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입 평가 요소로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주목 받는 상황은 교사들의 수업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민주, 박해정, 권지원, 최혜미, 2020).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전형 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원의 평가 및 기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재방법을 교과별로 안내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표준안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교육부, 2019).

본 연구는 고교 현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기재하고 있는지 기록 현황을 파악하여 다양한 유형과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며,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변화와 그에 따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고교와 대학 입장에서 들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가. 문헌조사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 도서, 정부 발표자료 등의 문헌연구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의 변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방법과 내용,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55년부터 2020년까지 총 39회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각 시기별 변동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학생부 기재요령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년도별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항목 내 변경사항을 함께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와 관련하여 대입제도에서의 학생부 자료의 중요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과 학생부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교과 영역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할 설문조사의 내용 개발에 활용하였다.

## 나. 분석연구

###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1차 교사와 2차 입학사정관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의 대상은 지역, 경력, 담당과목 등의 제한 없이 현직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 수는 총 220명이었으나 유의미한 답변을 한 200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수집된 응답을 토대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객관식 문항의 경우 빈도분석을 활용하였고, 주관식 문항은 답변 내용을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일부 항목은 응답자의 특성(고교유형, 지역, 교직 경력, 교과목,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사 대상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교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현황	세특 작성 시 선호 기술 유형
	세특 기재 유형별 기재에 적합한 수업방식
	세특 기재 시 대학의 평가 반영 여부 고려
	세특 기재 시 중점을 두는 대학의 평가 요소
	선호하는 수업방식 및 세특 기재 방식 예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어려움 및 기재 격차	세특 기재 시 발생하는 어려움의 유형
	현행 학생부 기재요령 상 세특 기입분량의 적절성
	세특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발생 여부
	학교 간/내 기재 격차 발생 원인
	학교 간/내 기재 격차 발생 원인별 상세 이유

구분	세부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영향력에 대한 의견
	대학의 세특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
	세특 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기술 유형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세특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기술 유형 선택의 이유
	대입에서의 세특 활용 방안에 대한 자유 의견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변화에 대한 항목 별 의견
	세특 기재 관련 제안에 대한 의견
	세특 기재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공에 대한 자유 의견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2차 설문조사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7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뒤 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진은 최종적으로 대교협 연구에서 권장하는 표본 수에 맞춰 선착순 200명의 설문지를 수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항목은 응답자들의 대학이 속한 지역, 설립유형, 대학규모, 경력 등을 비롯한 개인 배경과 고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의 차이,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학교생활기록부의 변화와 향후의 방향까지 선택형 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2> 입학사정관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학교 간 기재 차이의 원인
	학교 내 기재 차이의 원인
	학교 및 교사 간 차이의 실재
	세특 기입 분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세특의 평가 영향
	세특 평가 항목
	세특 기술 유형의 지원자 변별



구분	세부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세특 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
	세특 평가 활용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세특 지침 변화
	세특에 대한 제언

## 2) 전문가 심층면접(FGI)

전문가 심층면접(FGI)조사는 1, 2차 설문조사(교사, 입학사정관)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현황 및 평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각 집단별로 20명씩 총 40명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별 이메일을 통한 면담지 발송 및 회신을 받아 진행하였다. 조사 항목은 크게 교사 및 장학사에게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에 대한 의견, 입학사정관에게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고, 두 집단 공통적으로 향후 정책 관련한 의견을 묻도록 설계하였다.

교사 및 장학사 대상 전문가 심층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명으로, 지역 교육청 장학사 2명, 12개 지역 고등학교 교사 18명으로 구성하였다. 입학사정관 대상 전문가 심층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명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전임입학사정관으로 구성하였다.

〈표 1-3〉 전문가 심층면접 면담지 내용

대상	구분	세부 내용
교사 및 장학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기재 유형별 선호도 및 이유
		기재 적합한 수업방식 및 진행시 어려움
		학교 및 교사간 격차 발생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
		블라인드 평가로 인한 세특 영향력

대상	구분	세부 내용
입학 사정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와 활용방안	기재 유형에 따른 학생 변별 활용도
		기재 내용에 따른 학생 변별 활용도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체감여부에 따른 평가 활용도
		블라인드 평가로 인한 세특 영향력
공통	정책제언	교사의 세특 기재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
		학교와 교사 간 차이로 인한 학생 불이익 방지 방안
		대학의 세특 평가 기준 공개에 대한 의견
		세특의 성취도 평가 보조적 역할 한정에 대한 의견
		학생부 기재요령 중 세특 지침 변화에 대한 의견
		세특 관련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기타 의견

## II.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의 변화

####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의와 중요성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여 준영구로 보존하는 문서로 1954년도 이전까지는 학적부라고 불리었으나, 그 이후에 학적부의 양식이 개정되고 그 이름도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고쳐 사용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작성된 결과는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2000년대 이후 교육환경 및 사회적 인재 평가 기준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의 교과와 점수를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 우수성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우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인 합의를 얻게 되었다. 이에 각 고교의 공교육과 그 과정 및 활동을 중심으로 정성 평가하는 종합평가가 주된 입시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종합평가는 주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 선발의 근간이 되는 중심 평가 자료는 학생부가 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2014년부터 운영된 대입선발제도로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의 한 갈래이다. 핵심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구분된 전형유형 가운데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 교과, 비교과 등이 주요 전형요소인 유형이다(교육부, 2013). 학생부가 주요 전형요소인 전형은 이전에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나, 전형명의 변경을 통해 전형자료로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대입제도에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2013년 교육부의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 이후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대입전형의 방향에 따라 학생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요소를 개선한다(교육부, 2013). 학생부에 학생의 역량을 충실히 기록하고, 이를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평가과정에서 학생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주요 전형요소이자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지원자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며, 교과학습발달상황, 비교과활동 사항 등 항목은 대학의 특성에 맞게 활용되고 이외의 서류는 학생부를 보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되어 쓰인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

그러나 평가자료로서 학생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학생부가 평가자료로 활용되면서 수업이 변화하고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가 권장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황현정 외, 2017). 반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에 대한 내용보다 고교 유형이나 학부모 배경과 같은 외부 환경이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교육부, 2019). 이와 같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자료인 학생부 신뢰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전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부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발표자료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을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수상경력·점진적 축소와 대입 미반영 등 앞으로 운영되는 대입전형에서는 학생부 주요항목 중 비교과영역의 전반적인 축소가 예정되어 있다. 반면 교과활동 영역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재금지 사항은 추가되었으나, 과목당 500자 작성은 유지되어 결과적으로는 학생부에서 가장 많은 기재분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활동을 통해 학생 개인의 능력, 성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교육부 정책 방향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자료인 학생부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과학습발달사항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형자료인 학생부에서는 해당 영역의 영향력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변천

교육 당국은 교육의 목표 달성과 효과적인 평가 및 기록을 위해 수차례 교육 정책을 변경해왔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역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달성 목적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제·개정을 통해 수많은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학교생활기록부는 1955년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의 서식 및 처리요령]에서부터 2020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까지 총 39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2017년까

지 학교생활기록부의 변천과정의 시기 구분은 김재춘, 박소영(2006)의 연구와 박균열(2014) 연구를 바탕으로 법령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 기준을 따라 시기를 구분해 보면, ‘생활기록부의 서식 및 처리요령’ 시기,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시기,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시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시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기로 요약된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각 시기별 변동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생활기록부의 서식 및 처리요령 시기(1~3차)

- 1949년 교육법 제정 및 1955년 제1차 교육과정 공포, 학적부에서 생활기록부로 변경
- 필수 교과, 선택 교과의 보통과정 등 구체적 교과명 기록
- 중학교 교과학습 발달사항 평가 기록란 신설 및 수우미양가 5단계 평정치 구분 기록

### 2)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시기(4~8차)

- 제2차 교육과정 개정(1963년) ~ 제5차 교육과정 개정(1987년) :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공포
- 학교 간 연계성과 교과 간 통합성이 강조, 지식 뿐 아니라 德·體 포함한 균형 교육 강조
- 인문계 / 실업계 생활기록부 분리 및 필수/선택 교과의 평가, 성취도, 단위수 기록
-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절대평가제 도입(수우미양가 평정)
- 행동발달사항의 절대평가화, 종합평가 결과의 학기말 기록 도입
- 본적 삭제, 주민번호 신설, 비교예 환산총점, 환산평균, 학급석차, 계열(학년) 석차 기록

### 3)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시기 (9~12차)

- 대통령 직속 교개위 설치, 제6차 교육과정(1995년) ~ 제7차 교육과정(1997년)
-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위주 교육 탈피 및 인·적성의 다양한 능력 신장 목표

- 상대평가 성취기준으로 전환, 교과별 성취수준/석차 기록, 백분율 기록 배제
- 석차산출 학년말 1회, 세특사항 증빙자료 강화, 총괄평가의 기능 강화(진단, 형성 평가)
- 수상경력 / 자격취득상황 / 학교재량시간 / 봉사활동상황 추가
- 중간·기말고사의 원점수에 의한 석차 기록
- 고교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반영되도록 제대 변경 및 국영수 위주 필답고사 폐지

#### 4)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시기 (3~18차)

- 컴퓨터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학생부 활용과 보관에 전산화가 적극적으로 도입
- 인적사항 기재사항 변경 및 출결사항에 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등 질병·사고 구분 기입
- 자격증취득사항 인증란 신설, 학적사항 졸업후상황 폐지, 심리검사사항 폐지 및 별도 보관
- 출결사항 기타 신설, 진로지도상황 특기·취미 통합, 봉사활동상황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 변경
- 교과학습발달상황 매 학기말 교과별 석차 산출 및 수행평가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
- 교과학습발달상황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및 특별활동역역 구별, 재량활동 신설
- 교과, 과목, 학기별 단위수·성취도·석차/재적수, 비교, 이수 단위합계 등 기재 포함
-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반영을 위한 교과학습발달사항 기재 내용 개선

#### 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기 (20~31차)

- 교육정보시스템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개선
- 독서활동상황 신설, 특별활동의 기재 영역 통합, 교외체험학습상황 기재 객관성 강화
-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 신설, 비교과영역 신뢰도 제고 활동 강화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예체능 기술 3단계 절대 평가로 기록 개정
- 수상경력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의 기록방식 일부 변경, 학기당 이수과목 예체능 제외

- 자격증 입력의 제한, 교외상 입력 금지, 사범학교의 기초 및 심화과정 성적 산출 방식 변경
- 진로지도 / 특별활동 / 교외체험학습상황의 삭제, 진로희망사항 / 창의적체험활동 상황 신설
- 학생부 자료 정정 절차 강화,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사항 포함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전문교과의 성취평가제 신설, 경조사별 출석처리 변경 사항 반영
- 방과 후 학교 수강내용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 입력
- 창의적체험활동에 청소년 단체 활동 동아리활동으로 인정, 기초영어 성적 이수 로 표시
- 학생부 영역 별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수 범위 제한, 수상경력에 교외 상 입력 금지
- 교내 대회 기재 시 참가인원 병기, 진로희망사항에 희망 사유 기재란 신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예체능활동 충실 기재 유도

## 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에 따른 학생부의 변화

학생부 기반의 정성평가가 기본이 된 대입전형이 수시 전형에서 주 전형으로 많이 보급되고, 이에 따른 학생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학생부의 한계와 학생부중심 전형의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변화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양식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재영역을 최소화하여 일부 제기된 과대 스펙 쌓기 등의 부작용을 없애려 노력하였다. 2014년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변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인적사항 및 학적사항의 통합

기존 인적사항을 비롯한 학생부 각종 기재 내용에서 학부모를 비롯한 친족의 직업 및 인적사항들이 기재되어 그에 따른 대입 평가에서 학생 자체의 역량과 능력이 아닌

가족과 배경 환경이 평가에 반영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부 인적사항 학부모 정보가 삭제되었고, 각 기재사항에서 부모의 직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부에서 부모 인적사항 폐기를 권고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된 사회적인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진로희망 및 희망사유 삭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진로희망사항은 항목을 삭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는 제공하지 않아서 학생부 등 대입 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 3) 수상경력 상급학교 제공 제한

수상경력에 학생의 특기와 역량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대입 평가 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외에도 학생의 지원 전공 관련 전문성과 적합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수상 경력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교육 유발과 학생 간 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이 일어났고, 학교 간 개최 대회수의 격차 등 구조적인 변수에 따른 수험생 간 유불리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상급학교(대학교)에 제공하는 수상 경력을 학기당 1개로 제한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대입자료로 미제공

학생의 자율적 활동을 통해 취득되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에서 평가 항목으로 일부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과도한 스펙 쌓기를 위한 자격증 취득 경쟁 및 사교육 유발 등을 고려하여 기입은 하되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소논문(R&E)명 미기재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 기재되는 소논문(R&E)은 모든 학생부 항목에 미기재하도록



했는데, 이는 고교 유형에 따른 논문 작성 유불리를 통한 대입 공정성 및 신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의 경우, 교과 세특에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기재하고 소논문명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6)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제한

자율동아리는 불필요한 과다 스펙 쌓기와 외부 환경에 따른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학년당 1개만 기재하도록 하고 그 설명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만 30자 이내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만, 정규교육과정 내 편성된 동아리는 동아리명, 활동시간, 활동 내용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 청소년단체활동 선택적 기재

청소년단체활동도 무분별하고 과다한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단체활동은 단체명 및 단체 활동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된 단체는 단체명만 기록되도록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단체는 단체명과 활동을 모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8)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재 간소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지식 외 체(體)와 덕(德)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나 과도하게 기재하여 그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간소화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정규교육 내 스포츠클럽은 개인 특성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재되도록 했으며, 정규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은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 9)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봉사활동 실적은 기존대로 기재되도록 하였으나,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 성격을 고려하여 교내·외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필요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0) 방과 후 학교 활동 수강내용 미기재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폭넓은 주제의 학습이 가능하고 전 공적합성 측면에서 심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방과 후 학교 미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 등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어 기존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하던 내용을 모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11)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글자 수 축소

고교 유형과 학교 간, 교사 간 학생부 기재 성향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다한 학생부 작성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글자 수를 자율/동아리/진로활동 상황을 합해 1,700자로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좀 더 간략하고 중요한 사실 중심의 특기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12)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연수 강화 및 관리지원센터 운영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습형 연수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있는 기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관련된 기재요령 변화

2010년대 후반에 들어 대입 전형의 중심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다양한 불신들이 쌓여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 공정성 방안에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 대한 공정성 개선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9).

## 1) 대입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

### 가)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폐지

-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22~23학년도)
-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24학년도부터)

### 나) 자기소개서 단계적 폐지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강화(21학년도부터)
- 문항 및 글자수 축소(22학년도~23학년도)
- 자기소개서 폐지(24학년도부터)

### 다) 교사 추천서 폐지

- 기재 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강화(21학년도부터)
- 교사 추천서 폐지(22학년도부터)

### 라) 교원의 평가·기록 역량 강화 및 비위 조치 강화

- 교원연수 모듈 개발 및 연수 확대, 교사-사정관 연계 프로그램 추진
- 교과세특 단계적 필수화 및 기재 표준안 현장 보급
- 학생부 허위기재 및 금지사항 위반 시 엄정한 징계기준 적용

### 마) 고교 및 교육청의 학생부 평가·기록에 대한 책무성 제고

- 학생부 기재금지 위반 및 프로파일에 부적절 정보 제공 고교·교원에 대한 조치 (교육청 사실 통보 및 경고 진행)
- 나이스에 기재 금지어 목록을 추가
- 평가과정 중 발견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및 교육청 조사 후 처벌 진행
- 시도 교육청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신고센터 운영

## 2)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 가)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 면접 뿐 아니라 서류평가 시에도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21학년도부터)
-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 나) 세부 평가기준 공개

- 평가 표준 공개양식 개발 및 일괄제공
- 모집요강에 평가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을 구체화하며,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

다) 선발과정의 공공성 강화

- 회피·배제의 재검증 및 사후검증을 의무화(21학년도부터)
- 종합감사 시 공정성 관련 점검목록 추가 및 조치 강화, 대학별 자체 점검 결과 대교협에 결과보고(21학년도부터)
- 전형 유형 별 고교유형/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별 수혜율 공시(21학년도부터)

라)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 개정 및 지원사업 연계(21학년도부터)

- 서류 평가시간 확보,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 최종전형위원회 외부인 참여 방안/점수차 조정 방안/기재금지 처리 방안 개정
-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마) 평가 전문성 및 시간 확보

- 평가 세부단계 다수평가 의무화 및 전임사정관 1명 이상 참여(권고)
-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및 평가시스템 접속기록 10년간 보존(21학년도부터)
- 전임사정관 수/ 정규직 비율/ 1인당 평가 건수 등 공시(21학년도부터)
- 사정관 교육과정 개발/ 위촉 이수시간 상향(40시간)(21학년도부터)

### 3) 대입전형 구조개편

가) 서울소재 16개 대학 수능전형 40% 이상 완성(23학년도부터)

-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위주 전형으로 유도하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나) 새로운 수능체계 마련

- 새로운 역량을 평가하고 고교학점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수능체계 개발(논/서술형 검토)

다) 논술고사 및 특기자 전형 폐지

-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 풀이식 전형 폐지 유도 및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유도

라) 사회통합전형 도입(22학년도부터)

-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목표
-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선발 의무화
- 지역균형 선발방식은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 권고(현 10% 이상 대학은 20% 이상 확대 권고)

<표 II - 1> 대입전형 공정화 방안 추진 로드맵

전형연도 과제	' 21학년도	' 22학년도	' 23학년도	' 24학년도
학생부비교과 영역축소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정규교과 외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
고교·교원 책무성 강화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 20.3월~) 교과 세특 기재표준안 보급 (' 20.3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기재금지사항 검증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자기소개서 개선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및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및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입, 경력 모두 40시간			
정시 수능위주 전형 확대	-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 ' 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사회통합전형 도입·의무화	·사회통합전형 법적근거마련 ·재정지원 연계로 확대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특기자 및 논술전형 폐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특히 교육부는 이 대입전형 공정화 방안을 통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생부 주요 기재 영역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은 대입 전형에서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항목을 전체적으로 축소하였다.

<표 II-2> 연도별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구분		' 20~21학년도	' 22~23학년도	' 24학년도
교과활동		· 과목당 500자	· 과목당 500자 · 방과 후 학교 활동 (수강) 내용 미기재	· 과목당 500자 · 방과 후 학교 활동 (수강) 내용 미기재 ·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종합의견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비 교 과 영 역	자율활동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	· 연간 500자 · 정 규 · 자 율 동 아 리, 청 소 년 단 체 활동, 스포 츠 클 럽 활동 기재 · 소논문 기재 가능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연간 1개 (30자)만 기재 · 청소년단체활동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 연간 500자 · 실적 및 특기사항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 연간 700자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 모든 교내수상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 (3년간 6건) 대입 반영	·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 (미기재) 학생부에서 삭제,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전송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평가 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 교원 및 학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해 수업-평가-기록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모듈 및 연수를 확대하고, 교사-사정관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사 자율에 맡기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를 단계별로 필수화하기로 했으며, 기재

표준안을 만들어 각 고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부 허위 기재 및 기재 금지사항 위반 등의 비위 발생 시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출신 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게 했다. 즉,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도록 하여 면접과 같은 대면 평가 뿐 아니라 서류평가에서도 출신 고교를 알 수 없도록 했으며, 기존 제공하던 고교 프로필도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학생부 기재 시 고교명, 지역 등 출신 고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제외하고 학생부를 기재하도록 했다(교육부, 2019).

## 2.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 가. 대입제도의 변화와 전형자료의 활용

#### 1) 대입제도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중요도 확대

한국 대입제도에서 학생부 전체가 전형자료로 활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0년 대까지 한국의 대입제도는 정량평가인 필기형 시험이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되었다. 운영 주체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학별 필답고사, 본고사, 대학별 예비고사, 대학입학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형태는 모두 필답형 시험이었다(이종재, 이승호, 2010). 이에 따라 한국 대입제도에서는 현재까지도 시험 점수 순위에 따른 입학이 가장 익숙하며, 공정한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학생부는 이전에도 내신제인 무시험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소수를 선발하는 국립대학에서 전형자료로 활용되거나, 필답형 시험을 보는 전형에서도 고교 성적으로 반영되었지만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1980년 이후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되고, 고교 내신이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되었지만, 과목 성적, 이수 단위 등에 따라 점수화된 내신이 반영되었다. 1995년부터 점수로 활용되던 내신제를 ‘종합생활기록부’로 대체하게 되었고 자료의 명칭은 다시 ‘학생생활기록부’로 변경된다. 이때부터 내신성적이 아닌 학생부의 다양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제도가 운영된다(이종재 외, 2010).

2008년 학생부를 주요 평가자료로 활용한 전형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다. 입학사

정관제는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화를 확대하는 것이 배경이었다(김병진, 김시라, 2013). 이에 따라 교과 성적이나 정량화된 지표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기존 대입제도와는 달리, 입학사정관제에서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자 했다.

**<표 II-3>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 및 평가자료**

평가영역	평가자료
교과 관련 활동	학생부
	수능성적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자기소개서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부
	자기소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적성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학습환경	자기소개서
	학교 프로필
	관련 자료

출처: 입학사정관제 공통 운영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입학사정관 전형의 도입이 대입 전형자료로써 학생부의 중요성이 강조된 변곡점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과는 차이가 있다. 201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학생부의 중요도는 다른 제출서류에 비해 월등히 강조되지는 않았다. 위의 <표 II-3>과 같이 평가영역에 따른 평가자료를 보면 학생부가 활용되지 않는 평가영역도 있으며, 학생부 외에도 다양한 평가자료로 해당 영역을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기재된 항



목 가운데 ‘수능성적, 학교 프로파일, 관련 자료’는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제출이 불가한 자료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학생부 외에도 다양한 자료로 학생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 2)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과 학교생활기록부 역할의 변화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의 명칭 변경은 2014년에 이루어졌다. 평가를 담당하는 직위가 전형명이었던 것에서 평가서류 중 하나였던 학생부가 전형명이 된 것은 전형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를 가장 중요한 평가서류로 활용하는 전형이며, 추가 제출서류가 점차 폐지됨에 따라 학생부만으로 학생의 역량을 읽어내는 전형의 성격이 명확해진다.

**<표 II-4>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 제출 가능 서류 비교**

구분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제출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2024학년도 폐지)
교사추천서	제출	제출(2022학년도 폐지)
추가서류 (학교생활기록부에 미기재된 교외활동서류, 포트폴리오 등)	제출	제출불가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위의 <표 II-4>와 같이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제출 가능 서류 비교를 통해 학생부 역할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외에도 각 학교의 학교 프로파일, 지역사회의 교육여건을 담은 관련 자료와 교외활동, 교외수상실적, 수능과 연계된 성적 등 다양한 자료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각 대학이 대입전형 운영의 지침으로 삼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학생부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이외의 제출 서류는 학생부 기재 내용을 보완·확인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등과 같은 자료로 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하고 있다. 또 2022학년도부터는 교사

추천서 폐지, 202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 폐지까지 예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 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과 평가

### 1) 학교생활기록부 세부영역의 평가 반영

<표 II-5>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구성

구분	
1. 인적사항	7. 진로희망사항
2. 학적사항	8.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자율활동
3. 출결상황	- 동아리활동
	- 진로활동
4. 수상경력	- 봉사활동
	- 봉사활동실적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9. 교과학습발달상황
	- 교과 성취도(석차등급)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6.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10. 독서활동상황
	1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부는 한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 전체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기록이다. <표 II-5>와 같이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항목은 세부 항목을 포함한다. 입학사정관은 위와 같은 학생부 전체를 통해 학생의 고교생활을 읽어내고, 학생의 역량을 파악한다. 위와 같은 학생부 서류 상의 항목 구분 외에도 학생부는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교과와 비학업적 역량을 포함하는 비교과로 구분된다(차정민, 2016). <표 II-5>에서는 9번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세부영역을 교과영역이라고 분류하고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을 포함한 나머지 영역을 일반적으로 비교과영역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학사정관계 전형에서는 전형자료로 학생부 전체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재의 수상경력, 창의적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영역이 학생부의 중요 영역으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우세했다. 김수연, 김시라(2009)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 학생부의 정성적 평가 모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비교과영역이 학생이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데 반해, 정량적 영역인 교과영역이 더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김병진, 김시라(2013)의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고교교육 중에서도 비교과 활동 참여도가 높았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전형 평가에서는 비교과 영역의 활동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비교과영역의 역할은 중요하게 인식된다. 정휘봉(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가 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이 평가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는 학생부였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과영역을 평가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교과영역의 확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에 기여했다. 이광현(2018)은 비교과 활동이 대입제도에서 지나치게 확대되어왔다고 설명하였고 차정민(2016)의 연구에서도 비교과영역인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이를 운영하는 교사의 비교과영역의 학생부 작성 부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학생부의 운영 실재를 연구한 김정미(2020)도 2014년 이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작성에 노력을 기울여 학생부종합전형에 대응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학생부가 점차 “두꺼워졌다”고 설명한다.

비교과영역을 기반으로 한 학생부 분량 경쟁은 대입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로 완화된다. 비교과영역의 입력 글자 수 제한, 기재금지 사항의 확대 등 학생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권오현(2017)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평가기준인 학교생활충실도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참여하는 교실수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교실에서 학생의 참여, 태도, 성취 결과가 학생부에 기록되고 그것이 대학에서 평가할 때 핵심 평가대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영역이 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연구들이 발견된다. 황현정 외(2017)에서 학교교육활동 가운데 교과 영역이 학생부종합전형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또 정명기, 최미숙, 김병주(2019)의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류평가에서 전형자료가 활용되는 경향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중 더 중요한 것은 학생부였고, 학생부의 세부항목 중에서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자료였다. 이는 입학사정관 경력이나 근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 2) 교과영역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지만, 시기에 따라 학생부 세부항목의 중요성은 달라지고 있다. 초기 비교과영역이 강조되던 것에서 최근 수업활동이 강조되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교과영역인 교과학습발달상황이 학생부 평가의 핵심으로 인식된다. 교과학습발달상황 외에도 학생의 수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나, 해당 영역에서 수업활동에 대한 기록을 가장 풍부하게 확인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I-6>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교과학습 발달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생활동의 발전 여부 등</li> <li>-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 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li> <li>-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 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li> </ul>

출처: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정리함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위의 <표 II-6>과 같이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업활동에 대한 정량기록[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과 학생이 이수한 성취수준과 수업활동에서 관찰된 역량 등의 정성기록[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정량지표로 나타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1950년대 무시험 제도에도 활용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내신이라는 명칭으로 꾸준히 대입제도에 활용되어왔다(이종대 편, 2010). 현재도 학생부위주 전형유형 가운데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주로 교과 이수단위, 석차등급 등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하위항목으로 교사가 기재하는 정성적 기록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정량지표뿐만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서술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의 역량을 확인한다. 해당 영역은 최근 들어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 개인별 개별화된 기재 방향, 수업 및 학습과정을 통한 역량 확인의 중요성에 따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생

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배경이 작용한다.

각 대학에서도 전형자료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중앙대 학생부전형 가이드북(중앙대, 2020)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통해 “수업의 과정과 성취 결과를 통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 하고,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정량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년별 성적 추이,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해서 정성평가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수업 환경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학생의 학습 활동 노력과 우수성을 평가” 한다고 정리한다. 또 한양대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한양대, 2020)에는 학생부종합평가에서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대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요하게 반영한다고 기술돼 있다. “수업과정 및 결과에 대해 부분” 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량평가인 내신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정성평가로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정휘봉(2018)의 연구에서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입학사정관의 평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반영됐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표준화된 다른 내용과 달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교사의 기재 역량에 따라 좌우” 되기 때문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황현정 외(2017)에서도 학생부의 신뢰성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으로 “교사 간 기록차” 를 언급한다. 또 조희권 외(20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할 때 학생부가 가장 평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교별 기재 차이에 대한 의문은 존재했다. 학생부에 대해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여러 교사가 학생을 오랜 기간 관찰한 기록이기 때문에, 지원자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 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학교별 교사별 학생부에 대한 기재 역량이 다르다” 는 인식에서 학생부에 대한 모순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정명기, 최미숙, 김병주(2019)의 연구에서도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자료였으나 세부항목을 보면 정량지표인 석차등급, 점수와 같은 성취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그 다음 순위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라 전형자료로서 학생부의 활용도에는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학생부 항목별 활용은 내신, 비교과영역, 교과영역 등 시기별로 강조되는 지점이 상이하다. 현재 학생의 고교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활동에 대한 기록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나 평가 방안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드물다. 강인구(2012)는

입학사정관계 전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Ⅲ.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분석

####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 가.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본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고교현장의 세특 기재 현황 파악 및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상의 세특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본 설문에서는 고교현장에서의 세특 기재 현황 및 세특 기재 시 발생하는 어려움 및 기재 격차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영향력 확대 및 평가 반영 방식에 대한 의견과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에 따른 고교현장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Survey Monkey’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6일(화)부터 9일(금)까지 4일간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 전국 고등학교 교사
조사 일시	• 2020년 10월 6일 ~ 9일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유효 표본	• 교사 200명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의 에디팅 → 코딩 →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친 후 통계자료 처리

[그림 Ⅲ-1] 교사 대상 설문조사 설계

## 2) 응답 특성

설문 참여자 수는 총 220명이었으며 그 중 설문 문항의 30% 이하 문항에만 답변한 20명은 제외되어 총 응답자는 200명이다. 응답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설문 응답 현황

구분	선택 항목	N	%
고교유형	일반고	160	80.0
	외국어고	2	1.0
	과학고	1	0.5
	예술·체육고	1	0.5
	마이스터고	1	0.5
	특성화고	4	2.0
	자율형공립고	17	8.5
	자율형사립고	6	3.0
	미기재	8	4.0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3	26.5
	강원권	5	2.5
	충청원(대전, 세종, 충북, 충남)	59	29.5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39	19.5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32	16.0
	제주	4	2.0
	미기재	8	4.0
교직경력	1~5년	15	7.5
	6~10년	25	12.5
	11~15년	30	15.0
	16~20년	45	22.5
	21~25년	33	16.5
	26년 이상	44	22.0
	미기재	8	4.0



구분	선택 항목		N	%
교과목	인문계열 교과	국어	34	17.0
		영어	26	13.0
		사회	31	15.5
		제2외국어, 한문	5	2.5
	자연계열 교과	수학	25	12.5
		과학	39	19.5
	예체능계열 교과		2	1.0
	진로진학 등 기타		30	15.0
	미기재		8	4.0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	경력 없음		7	3.5
	1~10년		91	40.5
	11~20년		78	39.0
	21년 이상		16	8.0
	미기재		8	4.0

응답자의 소속 고등학교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고가 160명(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율형 공립고 17명(8.5%), 자율형 사립고 6명(3%), 특성화고 4명(2%), 외국어고 2명(1%), 과학고 1명(0.5%), 예술·체육고 1명(0.5%), 마이스터고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개인정보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미기재 인원은 8명(4%)이다. 자율형 공립고를 포함한 일반고 소속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소속 고등학교의 소재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59명(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53명(26.5%),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39명(19.5%),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32명(16%), 강원권 5명(2.5%), 제주 4명(2%) 순으로 나타나 고교 소재지의 경우 고교 유형 대비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총 교직 경력은 16~20년 45명(22.5%), 26년 이상 44명(22%), 21~25년 33명(16.5%), 11~15년 30명(15%), 6~10년 25명(12.5%), 1~5년 15명(7.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22명(61%)이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임을 알 수 있다.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에 관한 응답에서는 1~10년 91명(40.5%), 11~20년 78명(39%), 21년 이상 16명(8%), 경력 없음이 7명(3.5%) 순으로 나타나 대입 관련 업무 경

력이 10년 이상인 교사가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담당 교과목을 묻는 문항의 경우 인문계열 교과로 응답한 수는 96명(48%)으로 국어 34명(17%), 영어 26명(13%), 사회 31명(15.5%), 한문을 포함한 제2외국어는 5명(2.5%)이었다. 자연계열 교과의 경우 총 64명(32%)으로 수학 25명(12.5%), 과학 39명(19.5%)으로 응답했다. 예체능계열 교과의 경우 2명(1%), 진로진학을 포함한 기타 과목에서는 30명(15%)이 응답했는데, 전원이 진로 과목을 담당한다고 답하였다.

### 3) 조사내용과 분석

설문 내용은 고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세특 기재방식 확인 및 세특에 대한 교사의 인식 파악과 더불어 대학의 세특 평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내용은 5점 척도로 구성된 객관식 문항 및 주관식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설문 결과 분석시 객관식 문항의 경우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관식 문항은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일부 항목은 변인 특성에 따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역별 설문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설문 문항 구성

영역	세부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현황	- 세특 작성 시 선호 기술 유형
	- 세특 기재 유형별 기재에 적합한 수업방식
	- 세특 기재 시 대학의 평가 반영 여부 고려
	- 세특 기재 시 중점을 두는 대학의 평가요소
	- 선호하는 수업방식 및 세특 기재 방식 예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어려움 및 기재 격차	- 세특 기재 시 발생하는 어려움의 유형
	- 현행 학생부 기재요령 상 세특 기입분량의 적절성
	- 세특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발생 여부
	-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
	- 학교 내 기재 격차 발생 원인
	-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별 상세 이유
	- 학교 내 기재 격차 발생 원인별 상세 이유

영역	세부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영향력에 대한 의견
	- 대학의 세특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
	- 세특 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기술 유형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 세특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기술 유형 선택의 이유
	- 대입에서의 세특 활용 방안에 대한 자유 의견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변화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세특 기재 관련 제안에 대한 의견
	- 세특 기재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공에 대한 자유 의견

##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현황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선호하는 기재 유형

우선 교사의 세특 작성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을 확인하고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주로 활용되는 기술 유형을 여덟 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선호도를 5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여 기재 유형별 기재 선호도를 확인하였다.

<표 III-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선호 기술 유형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가.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관찰 및 사실적 기술	200	4.32	.79
나.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 중심 기술	200	3.45	.95
다.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200	3.68	.91
라.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200	4.45	.67
마.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200	4.14	.75
바.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200	4.22	.79
사.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200	4.17	.84
아.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200	3.94	.90

세특 작성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을 묻는 문항에서는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이 가장 큰 선호도를 보였으며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관찰 및 사실적 기술’과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 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또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 중심 기술’의 경우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응답이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특 기재 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활동 내용이나 수업 활동 결과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사실적 기술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선호하는 기재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기술한 내용 중 가장 선호하는 기재 예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과목명, 수업방식, 세특 기재 내용의 예시와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주관식 기술로 요청하였는데, 수업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표 III-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선호하는 수업방식 유목화

내용	N	%
강의식	12	6.0
토론·발표	90	45.0
글쓰기·보고서 작성	15	7.5
모둠활동	29	14.5
실험·실습	7	3.5
심화학습	3	1.5
강의 후 활동	44	22.0

수업방식을 분석해본 결과, ‘토론·발표 수업’이 45%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강의 후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22%, ‘모둠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14.5%로 나타났다. ‘강의식 수업’이나 ‘실험·실습, 심화학습’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응답자가 실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 기재 시 가장 선호하는 기재 내용 예시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기재 내용 예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 내용으로 분류하면 모든 학급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수업 내용 중심의 공통적 기술’과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예시를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활동 중심의 개별적 기술’ 예시가 다수였다. 수업방식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강의식 수업’과 ‘강의 후 활동’ 수업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교사의 경우 그 외 수업방식을 선택한 교사에게 비해 ‘수업 내용 중심의 공통적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5> 기술 내용에 따른 예시

기술 내용에 따른 분류	수업방식	선호 기재 내용 예시
수업 내용 중심의 공통적 기술	강의식 수업	○○에 대해 독서 및 실험을 통해 자세히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 대해 발표함. (생명과학)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함. ○○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발표함. (진로와 직업)
	모둠활동	○○에 관한 주제 탐구보고서를 조리있게 발표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음. (한국지리)
학생 활동 내용 중심의 개별적 기술	강의식 수업	교과학습시간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며 교사의 다양한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의 의미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함. 특히, 인구단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비를 위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줌. (한국지리)
	모둠활동	모둠장으로서 ○○과제 수행을 잘 리드하고 영어로 발표하는 능력이 뛰어남. 진로 관련 조사보고서 발표에서 전공 관련 내용의 선행연구를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음. 관련한 전공 관련 영어 어휘집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만들어냄. (영어)

같은 유형의 수업방식이라 하더라도 기재 내용에서는 서술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강의식 수업’의 경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기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수업 중 관찰 가능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세특 기재 예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의 개별 활동 관찰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한 ‘모둠활동’ 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교사 중에서도 수업 내용 중심의 기술을 선호 기재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기재방식 및 내용의 차이는 수업 방식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기재방식 선호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 방법에 따른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사실 나열 위주의 기술, 교사 평가 위주의 기술, 동료평가 기반 기술이다. ‘사실 나열 위주의 기술’은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배제된 활동 과정과 수행 결과를 나열한 기술 방법이다. ‘교사 평가 위주의 기술’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방법으로 교사의 주관이 중요시된다. ‘동료평가 기반 기술’은 조별 활동 시 조원 평가나 수행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학급구성원의 평가 등이 포함된 기술을 의미한다.

〈표 Ⅲ-6〉 기술 방법에 따른 예시

기술 방법에 따른 분류	수업방식	선호 기재 내용 예시
사실 나열 위주의 기술	강의식 수업	선별적 포획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찬성 측 패널로 참여하여 유해동물의 기준이 인간에게 명시적인 피해를 주는 모든 동물의 측면에서 유해동물로 인한 인간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가치를 동물보다 우선시해야 하고, 선별적 포획을 통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별적 포획제도 시행의 찬성을 PPT와 같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주장함. (통합사회)
	강의식 수업	학기 초 영어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짧은 글조차 쓰기 어려웠지만, 2학기 쓰기, 말하기 수행평가를 통해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논리적으로 영어로 글을 쓰고, 이것을 설득력 있게 학급에서 영어로 발표함. (영어)
교사 평가 중심의 기술	글쓰기· 보고서 작성	평소 사회 수업을 좋아하고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인문적인 소양과 문제 해결 과정을 해결할 줄 아는 원리를 지니고 있음. 교사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화문제까지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풀어낼 줄 아는 학생으로 사회과 과목의 기본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었음.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춘 학생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임. (통합사회)
	강의 후 활동	평소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사안도 탐구할 질문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탐구를 진행하며 세계를 바라보는 폭넓은 관점을 성장시키려는 열정이 돋보이는 학생임. 세상의 흐름을 이끄는 질서와 원리가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 및 세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는지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나만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 풍부한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보여줌. (철학)
동료평가 기반 기술	발표· 토론	집합 단원의 집합의 연산을 이용하는 문제를 집합과 함수와 연계한 문제로 변형하여 문제를 제작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함. 친구들로부터 색다른 문제라는 칭찬을 받음. (수학)

선호하는 기재 내용 예시 응답을 기술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사실 나열 위주의 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기재 예시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모든 수업 유형에서 고르게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선호 기술 유형을 묻는 문항에서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관찰 및 사실적 기술’ 등이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 중심 기술’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것을 통해 확인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활동 내용이나 수업 활동 결과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술을 선호한다는 결론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교사 평가 중심 기술’은 ‘발표·토론 수업’ 유형에서 특히 높은 선호를 보였다. 교사 평가는 크게 수업 중 진행한 특정 활동의 수행과정 또는 개별적 수행 결과물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담은 기술과 학생에 대해 한 학기 동안 관찰한 교사의 종합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대부분 수행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교사 평가 기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평가에 근거가 될 수 있는 활동 내용이나 수업 활동 결과물을 우선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또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술을 선호한다는 앞선 설문 문항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할 수 있다.

#### 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유형별 적합한 수업방식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유형별 기재에 적합한 수업 및 평가방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중복체크가 가능했는데, 기재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수업방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토론과 발표’ 수업은 거의 모든 기재 유형을 기재하기에 적합한 수업방식이라 응답했다. 특히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관찰 및 사실적 기술(32.1%)’,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 중심 기술(31.7%)’,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28.3%)’,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31.3%)’,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35.1%)’,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 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35.1%)’ 항목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보고서와 글쓰기 위주의 수업 및 평가 방식에 대한 선호 또한 다수의 기재 유형에서 확인되었다.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27.1%)’,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28.8%)’,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30.4%)’ ,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 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29.9%)’ 에서 높은 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 중심 수업방식의 경우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23%)’ 에서 선호되었으며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에서는 ‘모둠활동’ 이 3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실험 실습 중심 수업방식의 경우 교과 성취수준이나 이해도 또는 진로 관련 기술보다는 협력, 리더십 등 인성 관련 기술에 적합한 수업방식임을 확인하였다.

<표 III-7>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유형 적합한 수업 및 평가 방식 (중복체크)

(단위 : %)

내용	강의	보고서 글쓰기	모둠 활동	토론 발표	실험 실습
가.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관찰 및 사실적 기술	10.9	20.8	22.5	<b>32.1</b>	13.8
나.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 중심 기술	12.0	23.7	21.6	<b>31.7</b>	10.9
다.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20.4	27.1	14.4	<b>28.3</b>	9.7
라.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5.8	28.8	19.8	<b>31.3</b>	14.4
마.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7.2	30.4	18.9	<b>35.1</b>	8.5
바.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3.6	29.9	18.0	<b>34.1</b>	14.5
사.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23.0	15.1	<b>25.0</b>	24.8	12.1
아.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7.0	8.1	<b>37.6</b>	30.1	17.1

#### 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대학 평가 반영 여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대학의 평가 고려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의 93.5%가 대학 평가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교사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대학 평가에 반영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재 시 대학의 평가를 고려한 기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대학의 평가 반영 여부 고려

내용	N	%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13	6.5
평가를 고려한다	189	93.5

#### 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중점 두는 대학의 평가요소

대학의 다양한 평가요소 중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는지를 묻는 주관식 질문의 응답을 유목화하였을 때 단일 평가요소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학업(32.1%)’이었으며 전공적합성(진로) 역시 21.4%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43.3%는 1개 이상의 평가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업과 전공적합성(진로)를 함께 고려한다는 응답이 19.8%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 전공적합성, 인성을 모두 고려한다는 응답 또한 12.3%로 다수 확인되었다. 단일 평가요소일 경우뿐만 아니라 다수의 평가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에서도 학업과 전공적합성이 포함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9>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중점을 두는 대학의 평가요소 (선택응답, N=187)

내용		N	%
단일 평가요소	학업	60	32.1
	태도(인성)	5	2.7
	전공적합성(진로)	40	21.4
복합 평가요소	학업, 태도(인성)	11	5.9
	학업, 전공적합성(진로)	37	19.8
	태도(인성), 전공적합성(진로)	10	5.3
	학업, 태도(인성), 전공적합성(진로)	23	12.3
미응답	-	1	0.5

해당 평가요소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업]**

- 실제로 수업 중에 학생들이 성장한 내용이 잘 드러나기 때문임
- 대학에서 충분히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진로나 인성은 생기부의 다른 부분에 기록할 수 있음.
- 결국 학업역량을 바탕으로 대학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임.
- 학업에 성실히 참여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학생 수가 줄어 등급이 낮게 나오게 되어서 학생의 역량을 등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임.

**[전공적합성(진로)]**

- 다양한 교과에서 전공(관심 분야)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후 기록하여 학생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음.
- 해당 전공을 수학하기에 어떤 역량과 열의를 지닌 학생인지 보여주기 위함.
- 학종에서는 그 학과에 어울리는 학생을 뽑는 것이고, 따라서 그 학과에 적합한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전공적합성을 엿볼 수 있음.

**[인성]**

- 학생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제일 중요함.
- 인성 부분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임.

##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어려움 및 기재 격차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어려움 발생 이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로 인한 교사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세특 기재 시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이 발생하리라 보았다. 이에 고교 현장에서 느끼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어려움 발생 요인을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표 III-10> 세특 기재 시 발생하는 어려움 유형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가.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일부 과목)	200	<b>4.49</b>	.80
나. 학생별 개별화된 기록	200	<b>4.09</b>	1.02
다. 기재요령 및 기재규정 준수	200	3.82	1.01
라. 글쓰기 자체의 어려움	200	3.39	1.13
마. 우수 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우수성 기재	200	3.55	1.20
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입 분량 채우기	200	3.35	1.16
사. 추후 기록 공개에 따른 부담	200	3.43	1.22
아. 참여형 수업 진행에 따른 교과 진도 수행의 어려움	200	3.66	1.1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4.49점)’에 대해 가장 많은 동의를 보였다. ‘학생별 개별화된 기록’ 기재에 대한 부담(4.09점)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기재요령 및 기재규정 준수(3.82)’, ‘참여형 수업 진행에 따른 교과 진도 수행의 어려움(3.66점)’, ‘우수 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우수성 기재(3.55점)’, ‘추후 기록 공개에 따른 부담(3.43점)’, ‘글쓰기 자체의 어려움(3.39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입 분량 채우기(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변경으로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재 분량 확대 및 기재 내용 개별화의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입 분량의 적절성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의 ‘과목당 500자, 과목별 기록 의무화’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보통이다(6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Ⅲ-11〉 세특 기재시 과목당 500자, 과목별 기록 의무화의 적절성

내용	N	%	평균	표준편차
매우 부적절하다	8	4.0	3.05	.82
조금 부적절하다	28	14.0		
보통이다	120	60.0		
적절하다	34	17.0		
매우 적절하다	10	5.0		

#### 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여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발생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의 94.5%가 학생부 기재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라는 강한 긍정의 응답은 49.5%였으나,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모두 0%로,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가 있음에 동의하였다.

〈표 Ⅲ-12〉 세특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발생 여부

내용	N	%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44	.60
그렇지 않다	0	0		
보통이다	11	5.5		
그렇다	90	45.0		
매우 그렇다	99	49.5		

#### 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교 간 기재 격차 원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자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동의 정도를 물어보았다.

〈표 Ⅲ-13〉 세특 기재 시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가. 학교별 수업방식에 따른 차이	200	3.92	.96
나.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199	<b>4.11</b>	.84
다.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사립) 등에 따른 차이	200	3.84	1.00
라.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199	<b>4.34</b>	.66
마. 학교별 우수 학생의 비율에 따른 차이	200	3.82	1.01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가 4.34점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가 4.11점으로 주된 기재 격차 발생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별 수업방식에 따른 차이(3.92점)’,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사립) 등에 따른 차이(3.84점)’, ‘학교별 우수 학생의 비율에 따른 차이(3.8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각 항목별로 상세 이유를 기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선 ‘학교별 수업방식에 따른 차이’는 크게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교사의 수업 수준과 준비도에 따른 차이, 동일 교과 교사 간 수업 관련 의견 불일치에 따른 차이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는 관리자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이해하는 정도,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학생부의 개별화된 기록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고교유형과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에서는 공립학교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세특 기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교에서는 교사 간 의견 교류가 많고 수업방식과 학생부 기재에 대한 연수 운영 등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우수 학생 비율에 따른 차이’는 우수 학생 비율에 따른 수업 활동의 질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다수 언급되었으며, 우수 학생 비율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이해도의 차이도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른 차이, 농어촌 여부와 같은 지역 간 차이도 기재 격차 발생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표 Ⅲ-14〉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별 상세 이유 유목화 (선택응답, N=152)

내용		N	%
가. 학교별 수업방식에 따른 차이	수업방식에 따른 차이	29	19.1
	교사의 수업 수준/준비도에 따른 차이	4	2.6
	동일 교과 교사 간 수업 관련 의견 불일치에 따른 차이	2	1.3
나.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학교 관리자에 따른 차이	13	8.6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9	5.9
다.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사립) 등에 따른 차이	고교유형에 따른 차이(일반고/자사고/특목고)	6	3.9
	설립유형(공립/사립)에 따른 차이	6	3.9
	중점과정 유무에 따른 차이(과학중점 등)	1	0.7
	지역 간 차이(교육청/농어촌 등)	3	2.0
라.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학교 차원의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23	15.1
	교사의 학생부종합전형 이해도/준비도에 따른 차이	17	11.2
마. 학교별 우수 학생의 비율에 따른 차이	우수 학생 유무(비율)에 따른 수업 활동의 질 차이	29	19.1
	학생/학부모의 학생부종합전형 이해도에 따른 차이	2	1.3
바. 기타	통합형 응답(가~마)	8	5.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간 기재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이 재직 고교 유형, 재직 고교의 지역, 교직 경력,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에 따른 차이는 대입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교사 18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 변인에 대해서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부 항목에서 교사 경력과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간 기재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 21년 이상의 교

사(4.38점)가 1년에서 10년 사이의 대입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교사(3.80점)에 비해 학교 관리자와 학교 분위기에 따른 학교 간 차이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세특 기재 시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 중 유의성 항목: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별

경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heffe	F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1~10년(a)	91	3.80	.99	c>a	3.27*
	11~20년(b)	78	3.91	.96		
	21년 이상(c)	16	4.38	.72		
계		185	3.90	.96		

p: \*<0.05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라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사립) 등에 따른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6년에서 10년 사이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4.20점)가 21년에서 25년 사이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3.35점) 보다 고교유형과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으로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세특 기재 시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 중 유의성 항목: 교직경력별

경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heffe	F
고교유형, 설립 유형(공립/사립) 등에 따른 차이	1~5년(a)	15	4.13	.64	b>e	3.39**
	6~10년(b)	25	4.20	.87		
	11~15년(c)	30	4.04	.88		
	16~20년(d)	45	3.57	1.11		
	21~25년(e)	33	3.35	1.08		
	25년 이상(f)	44	3.89	.97		
계		192	3.80	1.01		

p: \*\*<0.01



## 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교 내 기재 격차 원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내 기재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4.34점)’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다음으로는 ‘교과 내 수업방식에 따른 차이(3.92점)’에 대해 높은 응답률이 보였으며, 이어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3.61점)’,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3.32점)’,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3.16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세특 기재 시 학교 내 기재 격차 발생 원인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가.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200	3.16	1.13
나. 교과 내 수업방식에 따른 차이	199	3.92	.89
다.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공통/일반선택 vs 진로선택/소인수과목 등)	200	3.32	1.13
라.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199	3.61	1.02
마.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	200	<b>4.34</b>	.8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내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기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먼저 ‘수능 반영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게 학생 수업 참여도 차이와 교사의 수업방식 차이로 나누어졌으나 수능 반영 여부에 따른 학생 개인의 수업 참여도 차이가 더 큰 응답률을 보였다. ‘교과 내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는 수업구성 방식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응답하였다.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는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차이, 교사의 기재 관심도 차이, 평가 방식 차이로 인한 학생 참여도 차이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는 교과 특성에 따른 차이와 교사 전공에 따른 작문 능력의 차이로 나누어볼 수 있었는데, 교사 전공보다는 교과 특성에 따른 차이가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었다.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는 크게 담당 학년에 따른 교사 기재방식의

차이, 대입에 대한 교사 관심도의 차이, 수업역량 또는 대입전형 이해도와 같은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른 차이로 나누어졌는데, 이중에서도 교사 역량에 따른 차이를 언급한 응답은 전체 응답 중 46.8%로 가장 높았다.

〈표 III-18〉 학교 내 기재 격차 발생 원인별 상세 이유 유목화 (선택응답, N=156)

내용		N	%
가. 수능 반영 여부에 따른 차이	수능 반영 여부에 따른 학생 수업 참여도 차이	5	3.2
	수능 반영 여부에 따른 교사의 수업방식 차이	2	1.3
나. 교과 내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수업구성 방식에 따른 차이	18	11.5
다.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공통일반선택 vs 진로 선택소인수과목 등)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차이	1	0.6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교사의 기재 관심도 차이	1	0.6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평가방식 차이로 인한 학생 참여도 차이	1	0.6
라.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교과 특성에 따른 차이	9	5.8
	교사의 전공에 따른 작문 능력의 차이	4	2.6
마.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	담당 학년에 따른 교사 기재방식의 차이	2	1.3
	대입에 대한 교사 관심도의 차이	40	25.6
	교사 역량에 따른 차이(수업역량, 대입전형 이해도 등)	73	46.8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내 기재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재직 고교 유형, 재직 고교의 지역, 교직 경력,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과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에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학 입학 관련 업무 경력에 따라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 항목 모두 대학입학 관련 경력 21년 이상의 교사가 1년에서 10년 사이의 대입 관련 경력을 가진 교사에 비해 해당 항목들을 학교 내 기재격차 발생 원인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11년에서 20년 사이의 대입 관련 경력을 가진 교사(3.35점)와 21년 이상의 경력 교사(4.13점)간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9〉 세특 기재 시 학교 내 기재 격차 발생 원인 중 유의성 항목: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별

경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heffe	F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1~10년(a)	91	3.06	1.17	c>a	3.49*
	11~20년(b)	78	3.16	1.02		
	21년 이상(c)	16	3.87	1.06		
계		185	3.17	1.11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1~10년(a)	91	3.11	1.17	c>a c>b	5.89**
	11~20년(b)	78	3.35	1.02		
	21년 이상(c)	16	4.13	.83		
계		185	3.30	1.11		
교과 특성 및 교 사 전공에 따른 차이	1~10년(a)	91	3.49	1.05	c>a	3.99*
	11~20년(b)	78	3.65	.97		
	21년 이상(c)	16	4.27	.70		
계		185	3.62	1.01		

p: \*<0.05, \*\*<0.01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라서는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항목에서 인식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25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3.59점)가 11년에서 1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2.79점)에 비해 수능 반영 여부에 따른 차이를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20〉 세특 기재 시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 중 유의성 항목: 교직경력별

경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heffe	F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1~5년(a)	15	2.87	1.13	f>c	2.48*
	6~10년(b)	25	3.16	1.14		
	11~15년(c)	30	2.79	1.13		
	16~20년(d)	45	2.98	1.07		
	21~25년(e)	33	3.24	1.12		
	25년 이상(f)	44	3.59	1.06		
계		192	3.15	1.12		

p: \*<0.05

### 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영향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를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90.5%가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평균 또한 4.48점으로 매우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표 Ⅲ-2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영향력

내용	N	%	평균	표준편차
매우 그렇지 않다	0	0	4.48	.68
그렇지 않다	4	2.0		
보통이다	8	4.0		
그렇다	72	36.0		
매우 그렇다	109	54.5		
미응답	7	3.5		

교직경력에 따른 응답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일원배치분산분석 수행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영향력에 대하여 6년에서 10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4.64점)와 16년에서 20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4.63점)가 1년에서 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초임교사(4.00점)에 비해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영향력에 대한 교직경력별 유의성 확인

경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heffe	F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의 학생부종합 전형 평가 영향력	1~5년(a)	15	4.00	1.06	d>a b>a	2.49*
	6~10년(b)	25	4.64	.56		
	11~15년(c)	30	4.46	.57		
	16~20년(d)	45	4.63	.53		
	21~25년(e)	33	4.51	.50		
	25년 이상(f)	44	4.45	.72		
계		192	4.49	.65		

p: \*<0.05

##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반영되는 대학의 평가 항목

대학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평가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앞서 조사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중점을 두는 대학의 평가요소’ 문항의 결과와 동일하게 학업역량(26.9%)과 전공적합성(26.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전가능성’을 선택한 응답자 역시 20.3%로 다수 확인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문제해결능력’, ‘진로설정 및 진로 수행 과정의 체계화능력’, ‘전공 지식 습득 역량’ 등이 있었다.

〈표 Ⅲ-23〉 대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

(복수응답, N=642)

내용	N	%
학업역량	173	26.9
전공적합성	168	26.2
인성	85	13.2
발전가능성	130	20.2
창의성	80	12.5
기타	6	0.9

#### 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 유형의 평가 반영 중요도

대학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술 유형을 묻는 문항에서는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4.26점)’ 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이어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4.22점)’,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4.13점)’,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 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4.12점)’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은 3.78점으로 가장 낮은 선호를 보였다.

〈표 Ⅲ-2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기술 유형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가.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193	3.78	1.01
나.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193	4.22	.74
다.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193	4.13	.77
라.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 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193	4.12	.74
마.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193	4.26	.74
바.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193	3.95	.82

세특 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기술 유형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각 교과목별로 성취기준이 있으므로 성취기준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나머지는 성취기준 충족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됨.
- 개인의 탐구능력이 곧 학업역량을 의미한다고 보며,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탐구활동이라고 생각함.
- 교과 세특이라는 특징을 볼 때 진로 관련 내용보다는 해당 교과에 대한 성취 정도나 교과 수행 과정의 인성이나 태도 등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함.
- 수업시간에 토론, 모둠활동 및 실험을 통해 학생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단체활동에서의 협력, 참여도 및 리더십을 통해 학생을 파악함.
- 학생들의 학습 참여 태도, 진로와의 연계성 등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를 결정함.
-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이나 리더십을 파악함.

#### 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별 동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세특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41점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4.11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교육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세특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는 2.71점의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세특은 학생의 석차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2.80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고교현장에서는 대학 평가에서의 세특 반영에는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의 표준화된 공통의 세특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하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특에 대한 신뢰는 수업시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한 사항이나 수업 중 작성한 수행 과제물을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세특 기재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25〉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세특 반영에 대한 의견별 동의 정도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가. 세특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193	4.41	.89
나. 교과별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범위의 추가적인 탐구 활동의 기재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93	3.36	1.37
다. 세특 평가 시 객관적 활동 내용과 주관적인 평가 내용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	193	3.49	1.25
라. 세특 평가 시 최종 성취 결과(성취물)보다 수업 참여도와 참여 내용 등 활동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93	3.87	.97
마. 세특 평가 시 최종 성취 결과(성취물)보다 적극성, 자발성, 자기주도성 등 활동 수행 태도를 더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93	3.81	.99
바. 세특은 학생의 석차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193	2.80	1.40
사. 교육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세특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93	2.71	1.34
아.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193	3.97	1.07
자.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193	4.11	1.07

교직경력에 따른 응답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특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항목에서 차이를 확인하였다. 교직경력 25년 이상의 교사(4.69점)가 1년에서 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초임교사(3.93점)에 비해 해당 항목에 대하여 동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동의 정도의 교직 경력에 비례하여 상승하고 있으며 저연차의 교사일수록 객관적 관찰 범위 내의 기록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6〉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세특 반영에 대한 의견 중 유의성 항목: 교직경력별

경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heffe	F
세특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1~5년(a)	15	3.93	.96	f>a	2.63*
	6~10년(b)	25	4.16	1.28		
	11~15년(c)	30	4.25	1.00		
	16~20년(d)	45	4.52	.69		
	21~25년(e)	33	4.35	.98		
	25년 이상(f)	44	4.69	.51		
계		192	4.40	.89		

p: \*<0.05

#### 마) 대입에서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대입에서 학생 평가 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답변을 유목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7〉 대입에서의 세특 활용 방안에 대한 자유 의견 유목화 (선택응답, N=185)

내용		N	%
활용범위	활용범위 축소	32	17.3
	활용범위 확대	28	15.1
	현행 활용범위 유지	5	2.7
활용방안	역량 확인 자료로 활용	68	36.8
	면접/자기소개서 평가 자료로 활용	13	7.0
	객관적 기술 중심 평가	7	3.8
기타	대학의 평가기준안 공개	14	7.6
	대학의 평가기준안 공개 반대	1	0.5
	기타(논외)	17	9.2

활용범위에 관한 의견은 활용범위 축소와 확대 의견이 모두 확인되었는데, 활용범위 축소 의견(17.3%)로 활용범위 확대 의견(15.1%)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세특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은 크게 학생의 역량을 확인하는 자료로의 활용, 면접 또는 자기소개서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객관적 기술과 주관적 평가를 구분하여 활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 외 대학의 평가기준 공개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구체적인 답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활용 범위]**

- 세특은 가장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좋은 부분임. 최대한 수업안에서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틀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제약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함.
- 교사의 세특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함.

**[활용 방안]**

- 학생의 교과에 대한 탐구심과 무엇을 깊게 알고 있는지 노력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좋겠음.
- 교과 성적과 함께 학생의 흥미와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로 활용
- 수업시간 학생활동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기에 그 중요도는 커질 것이라 예상함. 다양한 교과목 이수과정에서 수강 학생이 적은 과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등급보다는 과세특을 통한 평가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면접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확인 필요.
- 숫자로 발견할 수 없는 학생의 태도와 역량을 평가해야 함.
- 객관적 사실 부분과 주관적 평가 부분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함.

**[기타]**

-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해야 함. 교사는 수업시간에 관찰한 부분을 있는대로 서술하고 대학은 평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환경(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대학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하는 것이 고교 현장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함.
- 교과세특의 내용을 신뢰하되 검증의 과정은 필요함.

#### 4)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변화에 대한 고교현장의 의견을 확인하고 대학의 세특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특 기재요령 변화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기재 방식 및 가이드라인 제공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 변화의 적절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동의 정도를 물어보았다. 이에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 기재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금지’에 대해 3.89점의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허용’ 의견에도 3.88점의 동의 정도를 보였다. 반면 ‘방과 후 학교 활동 기재 금지(2.81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사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3.04점으로 동의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표 Ⅲ-28〉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요령 변화에 대한 항목별 동의 정도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가.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193	3.89	1.28
나.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	193	3.67	1.35
다.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	193	3.32	1.45
라. 방과 후 학교 활동 기재 금지	193	2.81	1.49
마.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193	3.04	1.47
바.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193	3.88	1.09

해당 문항에 대한 교사의 교직경력 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 기재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금지’ 항목에서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6년에서 10년 사이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4.36점)가 11년에서 15년 사이의 경력 교사(3.35점) 보다 해당 항목에 대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9〉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요령 변화에 대한 항목별 의견 중 유의성 항목: 교직경력별

경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heffe	F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사항 일체 기재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금지	1~5년(a)	15	3.46	1.40	b>c	2.40*
	6~10년(b)	25	4.36	.95		
	11~15년(c)	30	3.35	1.44		
	16~20년(d)	45	3.80	1.34		
	21~25년(e)	33	4.16	1.03		
	25년 이상(f)	44	3.97	1.29		
계		192	3.88	1.28		

p: \*<0.05

##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방향 제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해당 제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에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3.48점)’이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며, 이어서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 제공(3.39점)’,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3.27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방식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가.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우수사례) 제공	193	3.39	1.29
나.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수행평가 / 수업태도 / 탐구활동 등)	193	3.48	1.25
다.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193	3.27	1.37

## 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관련 자유 의견

마지막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공에 대한 자유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세특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의 39.4%에 해당하는 56명의 교사가 ‘기재내용 규제 폐지, 가이드라인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상세 기재요령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는 의견 또한 22.5%로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재영역, 기재분량,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 등 기재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도 다수 제시하였다. 그 외 의견으로는 세특을 직접 작성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요구, 활동 중심 교육과정 개편, 세특 기재사항 비공개(학생, 학부모 대상), 평가 반영 축소 등의 의견도 있었다.

〈표 Ⅲ-31〉 세특 기재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공에 대한 자유 의견 유목화 (선택응답, N=142)

내용		N	%
가이드라인	상세 기재요령 및 가이드라인 제시	32	22.5
	기재내용 규제 폐지 / 가이드라인 폐지	56	39.4
	대학의 평가기준안 공개	12	8.5
기재방식	기재영역 확대(방과후 수업 등)	2	1.4
	세특 기재 영역 세분화	4	2.8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10	7.0
기타	교사역량 강화	6	4.2
	활동중심 교육과정 개편	2	1.4
	세특 기재사항 비공개(학생/학부모)	3	2.1
	평가 반영도 축소	5	3.5
	기타	10	7.0

구체적인 의견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화가 될수록 대입 평가요소의 기능을 잃을 것 같음.
- 세특 가이드라인은 학생에 대한 종합적 기술에 제한을 줄 수 있음.
- 가이드라인 제시할 경우 참조하면 교사의 역량에 따른 편차는 줄어들 수 있을 거라 봄. 단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기에 교사들이 차별적인 수업 방식과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기재방식]**

- 세특은 교과교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많은 제약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
- 기록항목을 3~5가지로 제시하여 각 항목당 일정한 분량으로 작성하면 기록의 부담도 줄어들고 상급학교 진학자료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표준화는 획일화와 셀프 학생부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가 방법이 아니라 자율권을 주고 그것을 모니터링할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타]**

- 세특 기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업이 중요함.
- 모든 학생을 다 기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어떤 식으로든 대입을 위한 목적으로만 기록되어서는 안된다. 본질은 고등학교 학생 생활기록이어야 한다. 과도한 블라인드 처리 등등 대입을 위한 보조장부의 전략은 아쉽다.
- 양질의 교원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다. 설문조사 요약 및 시사점

본 설문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고교현장의 세특 기재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특 기재 현황과 더불어 세특 기재 시 발생하는 어려움과 기재 격차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방식에 대한 인식과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에 따른 고교현장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은 지역, 경력, 담당과목 등의 제한 없이 현직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Survey Monkey’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 수는 총 220명이었으나 그 중 설문 문항의 30% 이하에만 답변한 20명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한 최종 응답자는 200명이다. 수집된 응답을 토대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객관식 문항의 경우 빈도분석을 활용하였고 주관식 문항은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일부 항목은 응답자의 특성(고교유형, 지역, 교직경력, 교과목,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현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세특 작성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과 선호하는 수업방식, 기재 유형 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업방식을 묻고 실제 학생부 작성에 활용하였던 세특 기재 방식 예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세특 기재 시 대학의 평가 반영 여부 고려 유무와 세특 기재 시 중점을 두는 대학의 평가요소를 확인함으로써 고교현장의 세특 기재 현황 및 교사의 세특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활동 내용이나 수업 활동 결과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술이 선호됨을 확인하였다. 객관적 기술의 높은 선호도는 세특 기재 유형 별 적합한 수업 및 평가 방식을 묻는 문항에서 학생의 활동을 관찰하기 용이한 토론·발표 수업과, 학습 활동 결과물 확인에 적합한 평가방식인 보고서·글쓰기는 세특 기재 유형 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을 통해 교사의 기재방식 선호도가 수업 및 평가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사의 세특 기재 방식 및 세특에 대한 인식이 수업방식 및 학습활동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특 기재와 대학 평가간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세특이 대학 평가에 반영된다 생각하고 있으며 세특 기재 시 대학의 평가를 고려하려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특 기재 시 중점을 두는 대학의 평가요소를 묻는 문항에서는 주관식 문항이었음에도 학업, 전공적합성, 인성과 같은 보편적인 대학의 평가요소 위주의 답변이 다수였으며 단일 평가요소와 복합 평가요소 모두에서 학업과 전공적합성의 고려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교 현장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며 학생부 기재 시에도 이러한 이해도를 반영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어려움 및 기재 격차

세특 기재 시 발생하는 어려움의 유형을 파악하고 기재 격차 발생에 대한 의견을 학교 간 및 교사 간(학교 내)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기재 시 느끼는 어려움의 유형 중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와 학생별 개별화 기록에 부담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변경에 따른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른 기재 분량 확대와 타 항목의 기재 분량 축소로 인한 세특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른 내용 구성의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세특 기입분량 지침 사항인 과목별 500자에 대한 의견은 보통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세특 기재 분량에 대한 어려움 유형에서도 기입분량을 채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기입분량은 현행을 유지해도 괜찮다고 판단된다.

세특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발생 유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학생부 기재 격차가 존재한다는 응답이 94.5%의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간 기재 격차 발생 원인으로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관리자와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역시 주된 기재 격차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관리자와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는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과 비례한 동의 정도를 보인다. 대입 관련 업무 경력 21년 이상의 교사는 학교 관리자와 학교 분위기에 따른 세특 기재 시 학교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교 간 기재 격차의 원인을 묻는 항목뿐만 아니라 학교 내(교사 간) 기재 격차 원인 파악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교 내(교사 간) 기재 격차 발생원인 중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에 따른 유의성이 확인된 항목은 총 세 가지로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로 세 항목 모두 21년 이상의 대입 지도 경



력을 가진 교사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에 따른 동의 정도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입 업무 경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입 업무 경력 21년 이상의 교사들은 다른 경력의 교사들보다 학교 관리자와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가 학교 간 차이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석차등급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가 학교 내 차이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년간의 대입 업무 수행 경험을 통해 학교 관리자와 학교의 분위기, 교과 특성, 교사의 전공이 학생부 기재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응답자 중 93.5%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대학의 평가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대학의 세특 평가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다수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부의 여러 항목 중 세특의 영향력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90.5%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상 세특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을 영향력 있는 평가항목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기술 유형을 묻는 문항에서는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고교 현장에서는 대학평가를 고려한 ‘학업역량’ 중심의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성실성, 참여도와 같은 학업태도와 인성에 관한 서술을 대학 측에서 조금 더 강조하여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별 동의 정도를 물었을 때 대학의 세특 평가 반영 및 주요 평가영역으로써의 활용에 대해서는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학의 표준화 된 공통의 세특 평가 기준 확립과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해당 문항 또한 성취 결과(성취물)보다는 적극성, 자발성, 자기주도성과 같은 활동 수행 태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이 결과 역시 대학에서 학업역량 중심보다는 학업태도와 인성에 관한 서술을 더 고려하려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볼 수 있다.

#### 4)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중 소논문을 제외한 K-mooc, 방과 후 학교 활동 등에 관한 기재금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타 문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기재금지사항 확대 및 강화가 고교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세특 기재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 기재내용 규제 폐지, 가이드라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통해 기재내용 규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는 고교현장에서도 큰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특의 대학 평가 반영에 부정적이거나 평가 반영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개선과 적절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활용을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Ⅳ.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및 활용 방안

###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현황

#### 가.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이번 조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대학 입학사정관의 의견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설문조사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7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해당 학교에 공문(설문조사 URL 포함)을 일괄 발송한 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진은 최종적으로 대교협 연구에서 권장하는 표본 수에 맞춰 선착순 200명의 설문지를 수합하였다. 조사 항목은 응답자들의 대학이 속한 지역, 설립유형, 대학규모, 경력 등을 비롯한 개인 배경과 고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의 차이,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학교생활기록부의 변화와 향후의 방향까지 선택형 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	•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대학(67개교)
조사 일시	• 2020년 11월 19일 ~ 26일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유효 표본	• 입학사정관 200명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의 에디팅 → 코딩 →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친 후 통계자료 처리

[그림 IV-1] 입학사정관 대상 설문조사 설계

## 2) 응답 특성

이번 설문 조사에 최종 응답한 대학 입학사정관 200명이 소속한 대학 및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설문 응답 현황

구 분	선택 항목	N	%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17	58.5
	강원권	11	5.5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31	15.5
	전라권(광주/전남/전북)	6	3.0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31	15.5
	제주권	4	2.0
설립 유형	국·공립	59	29.5
	사립	141	70.5
대학 규모	1,000명 미만	7	3.5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51	25.5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65	32.5
	3,000명 이상	77	38.5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	2년 미만	45	22.5
	2년 이상 ~ 5년 미만	75	37.5
	5년 이상 ~ 8년 미만	31	15.5
	8년 이상	49	24.5
전공 계열	인문	142	71.0
	자연	56	28.0
	예체능	2	1.0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이 117명(58.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충청권과 경상권이 각각 31명(15.5%)이며, 다음으로 강원권 11명(5.5%) 순으로 많이 조사되었다. 제주권과 전라권은 각각 6명, 4명이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입학사정관 소속 대학의 설립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이 59명(29.5%), 사립대학이 141명(70.5%)로 나타났다. 대학 규모는 3,000명 이상 대규모 대학이 77명(38.5%), 2,000명 이상~3,000명 미만이 65명(32%)으로 많았고, 1,000명 미만 대학 소속은 7명(3.5%)에 불과하였다.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은 2년 이상~5년 미만이 75명(37.5%)이며, 8년 이상 49명(24.5%), 2년 미만 45명(22.5%)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

사정관의 전공 계열은 인문계열이 142명(7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연 계열 56명(28.0%)이었고 예체능계열은 2명(1.0%)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위해 최초에 조사된 집단 중 지역, 대학 규모,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 전공계열 항목을 집단 특성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표 IV-2〉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집단 재분류

구 분	항목	N	%	비고
지역	수도권	117	58.5	
	기타	83	41.5	
설립유형	국·공립	59	29.5	변경 없음
	사립	141	70.5	
대학규모	2,000명 미만	58	29.0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65	32.5	
	3,000명 이상	77	38.5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	2년 미만	45	22.5	변경 없음
	2년 이상 ~ 5년 미만	75	37.5	
	5년 이상 ~ 8년 미만	31	15.5	
	8년 이상	49	24.5	
전임/위촉 사정관	전임사정관	188	94.0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서 제외
	위촉사정관	12	6.0	
전공계열	인문/예체능	144	72.0	
	자연	56	28.0	

지역은 수도권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규모는 1,000명 미만 인원이 부족하여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집단과 통합하여 재분류하였으며, 전공계열은 예체능 계열 표본 수가 부족하여 인문 계열과 합쳐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립 유형과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의 집단 분류는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위촉사정관 인원수 부족으로 전임/위촉사정관은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서 제외하였다.

### 3) 조사 내용과 분석

이번 조사는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 현황에 대한 인식,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 학교생활기록부 변화와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IV-3〉 설문 문항 구성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기재 격차 유무에 대한 의견
	학교 간 기재 차이의 원인	학교별 수업 방식 차이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학교별 우수 학생의 비율에 따른 차이
	학교 내 기재 차이의 원인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교과 내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공통/일반선택 vs 진로선택/소인수과목 등)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
	학교 및 교사 간 차이의 실재	과목별 세특 기재량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
		학생별 관심 분야(학과)를 고려한 기재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기재
		개인별 세특 기재
	세특 기입 분량	학생부 평가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분량 여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반영	세특의 평가 영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 영향력
	세특 평가 항목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창의력, 기타
	세특 기술 유형의 지원자 변별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세특 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	교사의 관찰 가능한 범위 내 기재
		교과별 성취기준 외 추가적인 탐구 활동 반영
		객관적 활동과 주관적 평가 내용 분리 평가
		최종 성과물보다 활동 과정 중심 평가
		최종 성과물보다 활동 수행 태도 중심 평가
		석차등급,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 역할
		세특 평가 적극 반영의 불합리성
		블라인드 평가에 따른 세특의 영향력 확대
		대학의 세특 표준 평가 기준 확립 및 공개
	세특 평가 활용	교과서 내용 기반의 응용 탐구 활동
		학생 제출 과제물 내용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진로 관련 탐구
		교과서 외 외부자료 활용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세특 지침 변화	소논문 및 탐구보고서 기재 금지
		K-mooc 내용 입력 금지
		대회 명칭의 단순 행사 변경 입력 금지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금지
		5개 과목 외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세특에 대한 제언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 제공
		세특 기재 항목 영역별 구분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이상의 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격차에 대한 인식,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 평가 방향 활용,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와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응답자 개인 특성에 따라 이상의 인식이 다른지 살펴보았다. 입학사정관 경력, 소속 대학의 지역 및 규모 등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 장의 교사와 동일한 문항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 입학사정관과 교사의 인식의 차이도 확인하였다. 변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검증(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서류평가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은 교과 학업성취도 점수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 외에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과 같은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 활동 참여도 등의 정성적인 자료를 평가에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각 고교별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량도 증가하였으며 기재 내용의 질적인 측면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가 교사별, 학교별로 격차가 발생하여 학생이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교과학습발달사항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에 대한 문항은 전반적인 학교 및 교사 간 격차가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학교 내/ 학교 간 학생부 기재 격차의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존재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고등학교 및 교사 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입학사정관 전체 응답의 89.0%는 학생부 기재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여 평균 4.18점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전체 응답의 2.5%(5명)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에 대한 인식은 입학사정관 소속 대학의 소재지, 설립 유형, 규모, 경력,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학교 및 교사 간 세부 기재 격차

문항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에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존재	전혀 그렇지 않다	-	-	4.18	.69
	그렇지 않다	5	2.5		
	보통	17	8.5		
	그렇다	115	57.5		
	매우 그렇다	63	31.5		
	전체	200	100.0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교사 간 기재 격차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교사(4.44점)는 입학사정관(4.18점)보다 학교 및 교사 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재의 격차가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근무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다양한 학교의 학생부 기재 현황을 접하기는 어렵고, 입학사정관은 본인 소속 대학에서 접할 수 있는 지원자들의 지역이나 학교유형 범위는 넓지만 대학별로 어느 정도 유사한 성적 분포를 가진 학생들의 학생부 위주로 접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표면적으로 느끼는 학생부 기재 격차가 입학사정관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은 학생부 기재 당사자로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학생부 평가자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존재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 교사 vs 입학사정관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교사	4.44	.60	4.04	.000***
입학사정관	4.18	.68		

p-값: \*\*\*<0.001

####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학교 간 차이의 원인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격차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개별 학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제시된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교 간 차이의 원인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5개의 항목 중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4.32점)를 나

타냈으며,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4.18점),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3.99점)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교별 우수 학생의 비율에 따른 차이라는 의견(3.69)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은 학교 간 기재 격차의 차이는 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에 위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지, 이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방침이나 전반적인 학교 교사들의 문화가 학생부의 충실한 기재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서 발생한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수업 방식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별 개별화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학교 간에 학생부 기재 차이가 나타난다고 입학사정관은 판단하고 있다. 학교별 우수 학생의 비율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이는 소위 우수 고교의 경우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맞는 학교 문화와 수업 방식의 변화가 있지 않다면 학생부 기재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IV-6〉 교과 세특의 학교 간 차이의 원인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195	3.99	.75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193	4.18	.66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195	3.87	.81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195	4.32	.67
학교별 우수 학생의 비율에 따른 차이	195	3.69	.85

교과 세특의 학교 간 차이의 원인에 대해 입학사정관 소속 대학의 소재지, 설립 유형, 규모,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학사정관의 전공에 따라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문, 예체능 계열 입학사정관은 자연계열 입학사정관에 비해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라 교과 세특 기재 차이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7〉 교과 세특의 학교 간 차이의 원인 유의성 검정: 입학사정관 전공 계열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인문·예체능 계열	4.25	.65	5.78	.010*
자연 계열	3.98	.65		

p-값: \*<0.05

다음으로 교과 세특의 학교 간 차이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의 의견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5가지 항목별 높은 점수 부여 순서도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표 IV-8〉 교과 세특의 학교 간 차이의 원인 유의성 검정: 교사 vs 입학사정관

문 항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교사	입학사정관	교사	입학사정관		
학교 간 차이 전체	20.00	20.04	2.81	2.52	-.13	.891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3.92	3.99	.96	.75	-.92	.362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4.11	4.18	.84	.66	-.84	.401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3.84	3.87	1.00	.81	-.35	.706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4.34	4.32	.66	.67	.28	.784
학교별 우수 학생의 비율에 따른 차이	3.82	3.69	1.01	.85	1.35	.175

#### 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학교 내 차이의 원인

교과 세특 기재의 차이를 유발하는 학교 내 요인에 대해서 5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입학사정관들은 제시된 문항 중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가장 높은 점수(4.42점)를 부여했으며, ‘교과 내 수업 방식’(3.97점),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3.84점) 순으로 나타났다.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3.28점)는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낮은 편이다. 교과 세특의 학교 내 차이에 대한 문항에서 입학사정관 소속 대학의 소재지, 설립 유형, 규모,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고교의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고, 학생부 기재에 관심이 많은 고교라고 할지라도 개별 교사의 관심이나 역량에 따라서 학생부 세특 기재의 격차가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일 교과 내에서도 수업 방식을 어떻게 채택하여 진행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였고, 교과 특성이나 교사 전공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교과별 기재 격차의 차이는 수능 반영 교과 여부보다는 석차등급 부여에서 자유로운 교과인지, 인문/자연/예체능계열 등의 교과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인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V-9〉 교과 세특의 학교 내 차이의 원인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195	3.28	0.92
교과 내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195	3.97	0.72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공통/일반선택 vs 진로선택/소인수과목 등)	195	3.64	0.89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195	3.84	0.81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	195	4.42	0.66

교과 세특의 학교 내 차이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의견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교사에 비해 입학사정관이 학교 내 기재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석차등급에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는 입학사정관(3.64점)에 비해 교사(3.32점)가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교사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도 입학사정관(3.84점)에 비해 교사(3.61점)의 점수가 높지 않았다.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세특의 기재가 차이가 난다는 점은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대다수가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학교 간의 기재 격차 차이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사 개인의 학생부 기재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표 IV-10〉 교과 세특의 학교 내 차이의 원인 유의성 검정: 교사 vs 입학사정관

문항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교사	입학 사정관	교사	입학 사정관		
학교 내 차이 전체	18.36	19.14	3.32	2.73	-2.52	0.12**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3.16	3.28	1.13	.92	-1.12	.261
교과 내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3.92	3.97	.89	.72	-.56	.583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공통/일반선택 vs 진로선택/소인 수과목 등)	3.32	3.64	1.13	.88	-3.03	.002**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3.61	3.84	1.02	.81	-2.44	.021*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	4.34	4.42	.80	.66	-1.03	.300

p: \*<0.05, \*\*<0.01

#### 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학교 및 교사 간 차이 양상

다음은 실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중 어떤 점에서 학교 및 교사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질문하였다. 연구진에서 제시한 6가지 항목에서 모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교과 세특에서 학교나 교사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양상에 대해서 점수 차이는 미미하지만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개인별 세특의 기재,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 과목별 세특 기재량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학생별 ‘개별화’ 된 기재의 격차는 학교의 다양한 수업 및 교과 연계 활동을 통해 학생이 학습하고 참여하고 성과를 보인 내용 등 학생 개별적인 특성을 교사가 잘 관찰하여 기재하는 데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은 기재의 내용이 학생별로 개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개인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못하고 평범하고 추상적인 단어들의 나열이 된다면 학생 역량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재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과목별 세특의 ‘기재량’은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의 양적인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별 세특 기재’는 2020년 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라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특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가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으로, 학교 별로 활용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학생의 ‘관심분야’를 고려한 세특 글쓰기,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글쓰기도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으로 보았다. 이렇듯 입학사정관은 교과 세특의 기재의 차이는 학생부 기재의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V-11〉 교과 세특 기재의 학교 및 교사 간 차이 양상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과목별 세특 기재량	200	4.03	0.78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200	4.14	0.81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	200	4.05	0.77
학생별 관심 분야(학과)를 고려한 기재	200	3.95	0.82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기재	200	3.85	0.80
개인별 세특 기재	200	4.08	0.71

교과 세특 기재의 학교 및 교사 간 차이가 발생하는 양상에 대해서 입학사정관 소속 대학의 설립 유형, 규모,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는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두 항목 모두에서 수도권 지역 입학사정관이 비수도권 지역 입학사정관보다 ‘학생별 개별화’ 기재와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적’ 기재에 대해서 더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지원하는 고교와 지원자의 유형과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학생부 자료 중 세특 기재의 양상이 달라서 세특 기재의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와 기록의 구체성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표 IV-12〉 교과 세특의 학교 및 교사 간 차이 양상 유의성 검정: 입학사정관 대학 소재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수도권	4.25	.73	2.246	.026*
	비수도권	3.99	.90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 구체성	수도권	4.17	.76	2.660	.008***
	비수도권	3.88	.77		

p-값: \* $<0.05$ , \*\*\* $<0.001$

## 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적절성

교육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지침이 학생부를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질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과목당 500자 기입’이라는 기재 분량,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 과목에 한해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의 적절성을 문의하였다.

입학사정관은 과목 당 500자 기입 및 모든 학생에 대한 입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3.25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동의한다는 의견이 41.3%인데 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3.6%이다. 이 문항을 통해서 비동의 의견의 경우 과목당 500자 기입이 적다는 것인지 많다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학생부 항목 중 서술형 기재가 최대 500자라는 점, 학생부 다른 항목의 서술이 최대 500자를 넘지 않는다는 점, 세특 500자 기입은 각 교과별 기준이며 실제적으로는 학년 당 교과목 기재량을 합친다면 평가에 부담을 느낄 만큼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기재 분량의 축소에 대한 의견임을 유추할 수 있다.

참고로, 교육부(2018b)에서 실시한 학생부 기재 항목 관련 교육주체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입학사정관 집단은 학생부 서술형 글자 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64.7%로 교사 집단(65.7%)과 비슷하였으며, 학생(22.1%), 학부모(26.2%)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입학사정관 응답에서 글자 수를 축소해야 할 학생부 항목 중에서는 자율활동(32.7%) 다음으로 교과 세특(22.5%)을 꼽았다. 교육부(2020)는 학생부 기재 수준 차이 최소화와 기재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부 기재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고, 학생부 서술식 기재영역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현재 학생부 기재 항목은 총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었고, 창체활동 특기사항 기재 분량은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어들었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사정관들은 서류평가에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재 내용이 줄어드는 점에서 평가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많은 기재량을 평가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기초교과 및 탐구교과 과목의 경우 모든 학생에게 세특 기재를 해야 한다는 지침은 교사들의 기재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부실한 기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교과 세특의 적절성에 대한 문항에서 입학사정관 소속 대학의 소재지, 설립 유형, 규모,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학교생활기록부의 적절성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과목 당 500자 기입 기초교과군, 탐구교과 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 에 대해 입력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3.5	3.25	1.00
	별로 동의하지 않음	40	20.1		
	보통	70	35.2		
	동의함	60	31.2		
	매우 동의함	20	10.1		
전체		200	100.0		

##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 문항은 크게 교과 세트를 반영하는 평가 영역, 세트 기술 유형에 대한 평가 반영, 세트 기재 내용별 평가 활용으로 크게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 평가 영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학생부종합전형 등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입학사정관 응답자의 89.0%가 영향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점수는 4.22점으로 높았다.

〈표 IV-1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의 학생부 평가 영향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학생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전혀 동의하지 않음	-	-	4.22	.731
	별로 동의하지 않음	7	3.5		
	보통	15	7.5		
	동의함	105	52.8		
	매우 동의함	72	36.2		
	전체	199	100.0		



세특의 학생부 영향력에 대한 문항에서 입학사정관 소속 대학의 소재지, 규모,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속 대학의 설립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 대학 소속 입학사정관(4.03점)보다는 사립대학 입학사정관(4.29점)이 세특의 학생부 평가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15〉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의 학생부 평가 영향 차이 유의성 검증: 입학사정관 대학 설립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국·공립 대학	4.03	.72	-2.316	.022*
사립 대학	4.29	.73		

p-값: \*<0.05

교과 세특의 기재 내용이 학생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 의견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교사(4.48점)보다 입학사정관(4.22점)의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입학사정관에 비해 교사들이 평가에서 세특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의 학생부 평가 영향 차이 유의성 검증: 교사 vs 입학사정관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교사	4.48	.68	3.73	.000***
입학사정관	4.22	.73		

p-값: \*\*\*<0.001

##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 반영 요소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항목을 반영하는 대학의 서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중복응답으로 문의한 결과, 교사는 학업역량을 가장 많이, 입학사정관은 전공적합성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위의 차이가 일부 있을 뿐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음 순위로는 교사, 입학사정관 모두 ‘발전가능성’, ‘인성’, ‘창의력’ 순으로 평가에 반영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7〉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 평가 반영 평가 항목

평가항목	빈도(%)			
	교사		입학사정관	
학업역량	173	44.0	168	42.7
전공적합성	167	42.5	179	45.5
발전가능성	130	33.1	142	36.1
인성	85	21.6	74	18.8
창의성	80	20.4	64	16.3

#### 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지원자 간 변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시 어떠한 방식의 기재 기술 유형이 학생의 실제 평가 시 지원자 간의 변별에 도움이 되는지 질의하였다. 제시한 문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3점대의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질문지에는 문항별로 실제 기재 예시를 작성하여 함께 제시함으로써 기술유형별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기술유형은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이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의 관심사와 흥미 영역을 파악하고 특정 교과목에서도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 영역을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 개별화된 내용의 기재는 지원자 간 평가 변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의 기술’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다양한 탐구활동으로 이어질 경우 평가의 차별성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수업 과정 중 ‘학생의 성실성’ 등 태도에 대한 기술, 수업 내 조별 활동 중에 드러나는 ‘협력과 리더십’ 등에 대한 기술도 학생 간 평가의 변별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제시된 항목 중에서는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와 성취도에 대한 기술’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보다는 일반적인 수업내용의 제시와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을 기재하는 방식은 교육부 학생부에서 제시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입학사정관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IV-18〉 세특 기재 기술 유형의 지원자 간 변별 평가 항목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200	3.45	.906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200	3.76	.738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200	3.89	.714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200	3.69	.712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200	3.84	.805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200	3.75	.740

제시된 여러 항목 중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재는 입학사정관 대학 소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 소속(3.70점)에 비해 수도권 소속(3.94점) 입학사정관이 지원자 간 변별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IV-19〉 세특 기재 기술 유형의 지원자 간 변별 유의성 검정: 입학사정관 대학 소재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수도권	3.94	.82	2.108	.036*
	비수도권	3.70	.76		

p-값: \* < 0.05

세특 기재에 대한 지원자 간 변별에 도움이 되는 기재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응답에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교사에 비해 입학사정관이 부여한 점수대가 높지 않았다. 특히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에 대한 기술’은 입학사정관(3.76점)에 비해 교사(4.22점)의 긍정적 평가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의 경우에도 입학사정관(3.69점) 대비 교사(4.12점)의 긍정적인 응답이 뚜렷하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의 경우에도 교사(4.26점)가 입학사정관(3.84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대체적으로 입학사정관에 비해서 교사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위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0〉 세특 기재 기술 유형의 지원자 간 변별의 유의성 검증: 교사 vs 입학사정관

문 항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교사	입학 사정관	교사	입학 사정관		
세특 기재 지원자 변별 전체	24.46	22.39	3.36	3.05	6.43	.000***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3.78	3.45	1.01	.91	3.39	.011*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4.22	3.76	.74	.74	6.14	.000***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4.13	3.89	.77	.71	3.26	.012*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4.12	3.69	.74	.71	5.93	.000***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4.26	3.84	.74	.80	5.37	.000***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3.95	3.76	.82	.74	2.51	.018*

p-값: \*<0.05, \*\*<0.01, \*\*\*<0.001

세특 기재 유형에서 지원자 간 변별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 유형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주요 기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의 주관적 평가나 성취수준 언급보다 객관적 관찰, 반응, 결과 등의 기재
- 활동의 결과 이후 성장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 기재
- 학생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전공 관련 내용을 심화학습하고 발표하는 사례
- 호기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하고 이후 다른 사례와 응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례
- 대학 지원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교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재
- 학습 수준에 대한 기재보다 학생 개인의 주도적 노력과 심화 확장하는 탐구 사례
- 세특 기재의 상향 평준화로 과거처럼 개인간, 학교간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함
- 교과목 성취도는 낮으나 세특 기재 내용이 우수하게 작성된 것은 도움되지 않음

## 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에 대해서 연구진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가. 항목은 교사가 관찰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물 등의 내용을 세특에 기재하는 것에 입학사정관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항목에서는 교과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범위의 추가적 탐구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었으나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세특 기재의 기본 원칙이 교과 성취기준을 토대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교실 현장에서는 교과 내용을 토대로 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응답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다. 항목은 학생이 성취한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재와 교사가 판단하는 학생의 학습 특성을 주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라.와 마. 항목은 최종 결과물보다 수업 내 활동 과정의 역할 및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교과 수업 내 과도한 결과물 도출 경쟁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부담감을 드러내는 답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바. 항목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을 세부적으로 잘 기재한 경우에도 석차 등급 등 객관적인 수치를 넘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세특 기재 내용 자체로서 독립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긍정과 부정의 견해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 항목은 학교 및 교사에 따른 세특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평가에 적극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질문이었고, 유일하게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였다. 즉, 교육환경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및 고교 현장의 수업이 의미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세특의 기재가 학생부 평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 항목은 학교 블라인드 평가의 결과에 대한 질문으로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 항목은 대학의 표준 평가 기준 확립 및 공개 의견으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표 IV-21〉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의견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가. 세특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200	4.26	.650
나. 교과별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범위의 추가적인 탐구 활동의 기재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00	3.43	.990
다. 세특 평가 시 객관적 활동 내용과 주관적 평가 내용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	200	3.79	1.012
라. 세특 평가 시 최종 성취 결과(성취물)보다 수업 참여도와 참여 내용 등 활동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00	3.68	.877
마. 세특 평가 시 최종 성취 결과(성취물)보다 적극성, 자발성, 자기주도성 등 활동 수행태도를 더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00	3.66	.927
바. 세특은 학생의 석차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200	2.97	1.053
사. 교육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세특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00	2.62	.970
아.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200	3.87	.931
자.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200	2.94	1.156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별로 학교 소재지, 규모, 입학사정관 전공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소속 대학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 중에는 ‘교육환경에 따른 차이로 세특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공립(2.90점)은 사립(2.50점)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22〉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의견에 대한 유의성 검정: 대학 설립유형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사. 교육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세특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공립	2.90	.959	2.666	.008*
	사립	2.50	.953		

p-값: \* < 0.05

또한, 입학사정관 경력별로 살펴봤을 때 ‘교사가 관찰 가능한 범위 내 기재’의 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8년 이상 경력자(4.49점)는 2년 이상~5년 미만 경력자(4.08점)에 비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제시되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는 입학사정관 집단 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표 IV-23〉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의견 중 유의성 항목: 경력별

	경력	평균	표준편차	Sheffe	F
가. 세특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2년 미만(a)	4.27	.580	d>b	4.173**
	2년 이상~5년 미만(b)	4.08	.731		
	5년 이상~8년 미만(c)	4.29	.588		
	8년 이상(d)	4.49	.545		
	계	4.26	.650		

p-값: \*\*<0.01

세특 기재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입학사정관 대 교사의 응답을 비교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특 평가 시 객관적 활동 내용과 주관적 평가 내용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라는 질문의 경우 교사(3.49점)에 비해 입학사정관(3.78점)의 긍정적인 의견이 높아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또한, ‘세특 평가 시 최종 성취 결과보다 수업 참여도와 참여 내용 등 활동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3.68점)보다 교사(3.87점)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장 큰 견해 차이를 드러낸 항목은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교사(4.11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에 입학사정관(2.94점)은 보통의 점수를 부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대학의 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입학사정관은 세특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으로 보인다.

〈표 IV-24〉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의견 중 유의성 항목: 교사 vs 입학사정관

문항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교사	입학 사정관	교사	입학 사정관		
세특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동의	32.54	31.20	4.59	4.05	37	.002**
세특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4.41	4.26	.89	.65	1.96	.051
교과별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범위의 추가적인 탐구 활동의 기재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36	3.43	1.37	.99	-.52	.607
세특 평가 시 객관적 활동 내용과 주관적 평가 내용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	3.49	3.78	1.25	1.01	-2.55	.011*
세특 평가 시 최종 성취 결과(성취물)보다 수업 참여도와 참여 내용 등 활동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3.87	3.68	.97	.88	1.99	.047*
세특 평가 시 최종 성취 결과(성취물)보다 적극성, 자발성, 자기주도성 등 활동 수행태도를 더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3.81	3.66	.99	.93	1.53	.127
세특은 학생의 석차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2.80	2.97	1.40	1.05	-1.29	.197
교육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세특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71	2.62	1.34	.97	.76	.448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3.97	3.87	1.07	.93	1.03	.304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4.11	2.94	1.07	.93	10.234	.000***

p-값: \*<0.05, \*\*<0.01, \*\*\*<0.001



## 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의 평가 활용

교육부 훈령 상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이다.

또한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에는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명을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되는 여러 내용 중 연구진이 일부 문항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하는지 질의하였다. 실제 설문지에는 각 항목별로 질문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기재 예시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입학사정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항목은 ‘학생 제출 과제물 내용’ (3.75점)이었으며, ‘교과서 내용 기반의 응용 탐구 활동’ (3.75점)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세특의 기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 (3.67점),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 (3.63점) 순이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세특의 기재 원칙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고교에서 흔히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며 입학사정관들은 이러한 기재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에 활용한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진로 관련 탐구’ (3.22점),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 (3.12점), ‘교과서 외 외부자료 활용’ (2.90점)의 경우 비교적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고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 유형이 학교별, 교사별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특 기재의 기본적인 원칙 내에서 기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일부 기재 사례의 경우 과목별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내용이나 교사가 수업 내에서 관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의 평가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의 소속 대학 소재별, 대학 설립별, 규모별, 입학사정, 경력별, 전공별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5〉 세특 기재 내용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활용 항목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교과서 내용 기반의 응용 탐구 활동	200	3.75	.777
학생 제출 과제물 내용	200	3.76	.738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	200	3.67	.845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진로 관련 탐구	200	3.22	.852
교과서 외 외부자료 활용	200	2.90	.980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	200	3.63	.771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	200	3.12	.941

### 3)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학생부 기재 격차 해소와 학생부의 공정한 기재를 통한 신뢰도 제고 요구에 따라 해마다 학교생활기록부 이 변화하였고, 학생부 세특 기재 금지 항목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학교생활기록부 변화에 따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지침의 변화와 향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문의하였다.

#### 가) 학생부 기재요령의 세특 지침 변화의 적절성

학생부 중 세특의 지침 변화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이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항목은 ‘대회 명칭의 단순 행사 변경 입력 금지’ (3.57점) 항목이었다. 이 조항은 수상경력 항목에 따른 유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교내 대회에서 수상한 내용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 기재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세특 항목의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입력 불가 항목인 ‘소논문 관련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 기재 금지’ (3.50점) 문항이다. 또한,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3.42점) 항목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일부 과목 외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2.93점)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냈다. 교과학습 발달상황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정규 교육과정 정규교육

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명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고, 연구보고서 작성 가능 과목은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5과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양한 수업 방식의 확대가 학생 개인의 학업 역량을 높이고 개별화된 기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사가 관찰하기 어려운 학생의 개별적 과제물 제출에 대해서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연구보고서 작성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평균적인 점수를 부여하였다.

'방과후학교 활동 금지' (2.73점)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평균 점수를 부여하였다.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 해소, 일부 지역 학교의 선행학습 허용, 사교육업체의 위탁 운영 등의 문제로 방과후학교 활동의 학생부 기재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방과후학교가 수업 내용과 수업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충족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6〉 학생부 기재요령의 세특 지침 변화의 적절성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200	3.50	1.16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	200	3.07	1.11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	200	3.57	1.11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금지	200	2.73	1.14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 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200	2.93	1.14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의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200	3.42	.95

입학사정관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결과 입학사정관 소속 대학 소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4개 항목에서 비수도권 대학 소속 입학사정관보다 수도권 대학 소속 입학사정관의 긍정적인 응답이 유의하게 낮았다. '소논문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

서 편법 기재 금지’ 항목은 수도권(3.35점) 대비 비수도권(3.70점)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으며, ‘대회 명칭 단순 행사 변경 입력 금지’ 항목에 대해서도 수도권(3.33점)보다 비수도권(3.90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방과후학교 활동 금지’,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였다. 질의 문항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자 기재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응답 결과의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 IV-27〉 학생부 기재요령의 세특 지침 변화의 적절성에 대한 유의성 검증: 입학사정관 대학 소재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수도권	3.35	1.22	-2.18	.031*
	비수도권	3.70	1.03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	수도권	3.33	1.19	-3.86	.000***
	비수도권	3.90	.89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금지	수도권	2.56	1.13	-2.68	.008**
	비수도권	2.99	1.11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수도권	2.69	1.12	-3.02	.000***
	비수도권	3.27	1.08		

p-값: \*<0.05, \*\*<0.01, \*\*\*<0.001

학생부 기재요령의 지침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집단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3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논문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편법 기재 금지’ 질문에서는 입학사정관(3.50점)에 비해 교사(3.89점)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 항목에서도 입학사정관(3.08점) 대비 교사(3.67점)의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에 대한 지침 변화의 질문에서도 입학사정관(3.42점) 교사(3.88점)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입학사정관 대비 교사들은 K-mooc 수강, 소논문 및 탐구보고서 기재와 같은 수업 내 과정이 아니거나 교사의 직접적인 관찰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는 과목별 세특 입력 외에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개인별 세특 기재’의 입력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세특의 새로운 기술 방식을 통해 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학생 개인의 우수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IV-28〉 학생부 기재요령의 세특 지침 변화 적절성 중 유의성 항목: 교사 vs 입학사정관

문 항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교사	입학 사정관	교사	입학 사정관		
세특 지침 변화 전체	20.50	19.23	5.58	4.68	2.46	.015*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 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3.89	3.50	1.28	1.16	3.18	.002**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	3.67	3.08	1.35	1.11	3.96	.000***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 여 입력 금지	3.32	3.57	1.45	1.11	-1.91	.058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금지	2.81	2.74	1.49	1.14	.55	.585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 용 입력 금지	3.04	2.93	1.47	1.14	.799	.425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의 특정 과 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3.88	3.42	1.09	.95	4.49	.000***

p-값: \*<0.05, \*\*<0.01, \*\*\*<0.001

##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제언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향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변화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였다.

교육부(2019)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 간 세특 기재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재 방법을 교과별로 안내하는 ‘교과 세특 기재 표준안’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입학사정관(3.41점)은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표준안의 개발 및 보급이 세특 기재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오히려 기재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가장 긍정적인 의견으로 응답한 내용은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으로 3.85점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였다. 현재 교과별 500자 이내로 서술형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입학사정관의 평가 입장에서는 표 형태나 숫자 형태로 구분되어있는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교과 세특과 같이 서술형이 교과별로 나열된 형태는 여러 지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과정에서 집중하여 읽어내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또한, 교사별로 수업내용 기술, 수행평가, 수업태도, 탐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평가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구진이 제시한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은 입학사정관에게는 가독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3개 항목 모두 입학사정관의 특성별로 유의미한 결과 차이는 없었다.

〈표 IV-29〉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방향 제언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우수사례) 제공	200	3.41	1.157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 (수행평가/수업태도/탐구활동 등)	200	3.85	.904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200	3.41	1.195

입학사정관과 교사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에 대해서는 교사(3.48점)에 비해 입학사정관(3.85점)의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3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방향 제언 중 유의성 항목: 교사 vs 입학사정관

문항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교사	입학 사정관	교사	입학 사정관		
세특 제언 전체	10.14	10.67	3.22	2.56	-1.80	.072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우수사례) 제공	3.39	3.41	1.29	1.16	-.13	.894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 (수행평가/수업태도/탐구활동 등)	3.48	3.85	1.25	.90	-3.43	.001**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3.27	3.41	1.37	1.19	-1.04	.298

p-값: \*\*<0.01

#### 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한 고교 및 정책 당국에 바라는 점

입학사정관 대상 마지막 설문 문항은 세특과 관련하여 고교 및 정책 당국에 바라는 점, 제언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교에 바라는 점]

(교사의 세특 기재 방향)

- 수업 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 기재보다는 학생 관찰 내용 위주의 기재 필요성
- 감성적인 문장, 불필요한 미사여구 기재 최소화
- 과목별 성취수준/석차등급 등 객관적 점수를 고려한 세특 내용 기재 필요
- 교과 세특 기재를 과도하게 대학 진로와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글쓰기 지양
- 동일 내용 반복 기재, 긍정적인 평가 위주 기재 지양을 통한 학생 개인별 차이 확인 필요
- 과도하게 어려운 기재보다는 학생의 핵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글쓰기
- 주요 교과 대비 비주요 교과의 세특 기재 충실화 필요
- 학생 셀프 학생부 금지 등 고교 차원의 독자적 신뢰성 확보 노력

(고교별 정책적 노력)

- 학생부 기재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사 대상 교육을 통한 기재 역량 표준화 노력
- 온라인 수업 등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관찰과 기록 가능한 체제 도입

**[교육 당국에 바라는 점]**

(학생부 재구조화)

- 학생부 기재 항목의 재구조화
- 고교 현장의 변화를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학생 학업 기록에 대한 종합적 평가 지표 개발
- 교사의 필력이 아닌 객관적 지표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학생의 개별적인 탐구과정과 발전 가능성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기재방식 변화

(학생부 기재 자율성 부여)

- 교육부 주도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불필요성 및 고교의 자율성 강화
- 학생부 기재 입력 항목 및 글자수 제한, 작성 금지 내용의 최소화
- 학생부 기재 금지, 기재량 축소 등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변별력 담보하지 못함
- 일부 학생부 항목 학생, 학부모 비공개 방식 채택을 통해 교사의 평가권 강화
- 모든 학생 대상 교과 세특 기재 지침은 바람직하지 않음

(학생부 기재 표준화 및 감독 강화)

- 교육부 주도의 학생부 기재 표준안 마련, 학생부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세특 기재의 유사도 검증 시스템 도입
- 기재 금지 위반 고교에 대한 페널티 부여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 대입전형 정책 변화 추진 시 고교, 대학 등 현장의 목소리 최대한 반영
- 다양한 교육 환경의 학생부를 충실히 평가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 폐지 및 고교 프로파일 제공 필요
-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상호 평가를 위해 학생 자기소개서 존치 필요



## 다. 설문조사 요약 및 시사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중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 방향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과 세특 기재 현황, 학생부 평가 방향, 향후 학생부 기재요령의 변화와 향후 정책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은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한 조사 페이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참여자 및 최종 응답자 수는 총 200명이다. 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위해 응답자 대학 소속 지역, 설립유형, 대학규모, 경력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앞 장에 기재된 교사의 설문 결과와 입학사정관의 응답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활용하였고 변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 검증(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부 주관식 항목은 유목화하여 제시하였다.

###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우선 고교 및 교사 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격차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89.0%는 기재 격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응답과 비교했을 때 입학사정관에 비해 고교 현장에서 교사가 느끼는 세특 기재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 격차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 간 격차와 학교 내 격차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학교 간 격차의 원인으로는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의 차이, 학교 관리자 및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가 중요한 격차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격차의 원인은 교사의 관심과 역량, 교과 내 수업 방식, 교과 특성과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학교의 진학지도 방향을 바탕으로 학교별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활용하는 고교의 세특 기재가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교사의 관심과 역량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과 세특 기재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얼마나 학생별로 개별화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수업 내용과 학생 특성 기록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교사의 관찰을 통한 학생의 관심 분야를 고려한 글쓰기가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기재의 양적인 측면과 함께 기재의 격차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수업 내용 위주의 기술, 여러 학생들에게 공통적으

로 기재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 기재보다는 다양한 수업 방식과 평가방식을 활용하는 수업 환경에서 학생의 우수한 특성, 관심 분야,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교사의 세특 기재의 우수성을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학생부 기재요령 특히, 세특 기재 500자 제한과 주요 교과 모든 학생 입력 지침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엇갈렸다. 주관식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면 세특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기재 내용을 제한하고 기재 대상을 획일화하는 방안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자율성이 훼손당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반면, 학생부 기재의 표준화를 통해 기재 격차를 줄이고 기재의 용이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

##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질문에 대해 입학사정관 대부분이 동의하였으나 입학사정관에 비해 오히려 교사 집단에서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다양한 평가요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영역에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발전가능성, 인성 순으로 중복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는 교과 석차등급 등 정량적인 평가와 달리 학업역량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 세특 기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 중 어떤 기술 유형이 지원자 간의 변별에 도움이 되는지 기재 예시를 들어 질의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항목 중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보다는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에 높은 응답을 하였는데, 학생이 배운 교과목 학습의 우수성에 대한 기술보다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과 답을 구성하고,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탐구 과정이 잘 기술될 경우 변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세특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와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재 내용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지원자 간 변별에 용이한 기술 유형이라고 답하였다.

주관식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우수한 세특 기재 방식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교사의 주관적 평가나 단순한 성취수준에 대한 언급보다는 교사의 객관적 관찰을 통해 드

러나는 학생의 구체적인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학생 개인적 특성과 우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교과 세특 기재의 기재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입학사정관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입학사정관들은 세특 기재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세특의 취지상 최종적인 결과물보다는 수업 참여 내용 등 활동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또한 성실성이나 자기주도성 같은 수행 태도도 중요하게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과목별로 제시된 성취 기준을 넘어서는 우수한 탐구활동 기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평균 점수는 높지 않았으며, 세특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독립적인 평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나 대학이 세특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특히 세특 표준 기재안 마련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과 교사의 온도 차이가 분명했다. 입학사정관에 비해 교사의 경우 세특 기재에 대한 어려움으로 표준 기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 입학사정관은 오히려 세특 기재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는 경향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생부 세특에 제시된 ‘과목별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수준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용’ 위주로 세특이 기재된 학교가 있는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부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과 세특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되기도 한다. 실제 학생부 교과 세특에 기재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재 내용을 제시하고 평가에서 활용하는지를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입학사정관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에 활용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학생 제출 과제물 내용’과 ‘교과서 내용 기반의 응용 탐구 활동’ 등 이었다. 다음으로는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과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 ‘교과서 외 외부자료 활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가 활용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입학사정관은 대체로 과도한 학생부 기재 내용 제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부 기재 지침에 금지사항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교 간의 기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특 기재 가능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3)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변화에 따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지침의 변화와 향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와 학생부 기재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요령은 전반적으로는 기재량 축소, 기재 금지 및 제한 항목 증가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학생부 기재 지침 변화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다른 항목에 비해 대체로 긍정적인 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소논문, 탐구보고서 기재 금지’와 교과별 담당교사 외 담임교사가 작성 가능한 ‘개인별 세특 사항 입력 가능’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반면 ‘K-mooc 입력 금지’, ‘방과후학교 기재 금지’, ‘일부 과목 외 연구보고서 내용 입력 금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대학 소속보다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긍정적인 점수가 확연히 낮았다. 교사와 비교했을 때도 ‘소논문, 탐구보고서 기재 금지’와 ‘K-mooc 입력 금지’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다. 학생부 기재 당사자인 교사에 비해 대학 입학사정관은 더 많은 평가자료의 확보, 학생 간의 변별력, 평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생각이 강하며, 이러한 차이가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부 세특 기재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기재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세특 기재의 영역별로 구분(수행평가/수업태도/탐구활동 등)하여 세특 기재를 용이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에 비해 교사의 응답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 제공이나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부정적인 의견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고교 교사와 교육정책 당국에 바라는 점에 대해 주관식 문항을 제시하였다. 고교에 바라는 점은 크게 교사의 세특 기재 방향에 대한 조언과 고교의 정책적 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특 기재 방향은 교과 내용 위주 기재보다는 학생 관찰 내용 위주 기재, 동일 내용 반복보다는 학생 개인별 차이를 드러낸 기재, 교과 성적과 연계된 세특 내용 기재, 개인의 진로희망과 무리하게 연계된 세특 기재의 지양, 셀프 학생부 기재 금지 및 검증을 통한 고교-대학 신뢰성 확보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교에서는 교사 대상 지속적인 세특 기재 교육, 온라인 교육 등 새로운 수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록 체계 도입을 주문하였다.

교육 당국에 바라는 점은 크게 학생부 재구조화, 학생부 기재 자율성 부여, 학생부 기재 표준화 및 감독 강화,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부 재구조화는 고교 현장의 변화를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학업 역량 기재 체계 마련 등 학생부 기재 항목의 재구조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부 기재 자율성 부여는 세특 기재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재고, 학생부 기재 금지 항목 및 기재량 제한의 철회, 일부 학생부 항목 비공개화를 통한 교사 학생부 기재 자율권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부 기재 표준화 및 감독 강화 영역에서는 앞의 의견과는 반대로 학생부 기재 표준화 마련, 학생부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세특 기재의 유사도 검증 시스템 도입, 기재 금지 위반 학교에 대한 제재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전반적인 대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다수 입학사정관이 블라인드 서류평가 정책이 오히려 학교 환경을 고려한 정성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방해하며 세특 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기소개서 폐지 반대 의견, 고교 및 대학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대입전형 정책 추진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및 평가 활용에 대한 FGI조사

### 가. 전문가 심층면접(FGI)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전문가 심층면접(FGI)조사는 1차 설문조사(교사, 입학사정관)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현황 및 평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기존 설계는 교사 및 장학사 전문가 집단, 입학사정관 전문가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대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대면 진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각 집단의 원래 대상 인원보다 2배씩 확대하여 각 20명씩 총 40명의 전문가집단으로 재구성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 방법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별 이메일을 통한 면담지 발송 및 회신을 받아 진행하였다. 조사 항목은 크게 교사 및 장학사에게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에 대한 의견, 입학사정관에게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고, 두 집단 공통적으로 향후 정책 관련한 의견을 묻도록 설계하였다.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문가 집단 1: 교사 및 장학사 20명</li><li>• 전문가 집단 2: 입학사정관 20명</li></ul>
조사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1년 1월 11일 ~ 1월 20일</li></ul>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대면 온라인 면담지 작성</li></ul>

[그림 IV-2]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설계

## 2) 응답 특성

### 가) 교사 및 장학사

교사 및 장학사 대상 심층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명으로 지역 교육청 장학사 2명, 12개 지역 고등학교 교사 18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IV-31〉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교사 및 장학사)

연번	구분	지역	고교 유형	교직 경력(년)	대입 업무 경력(년)	담당 교과	보고서 표기
1	교사	광주	일반고	21	20	진로진학	교사1
2	교사	충남	자사고	21	15	국어	교사2
3	교사	제주	일반고	9	8	수학	교사3
4	교사	인천	일반고	31	25	진로진학	교사4
5	교사	전남	자사고	26	10	물리	교사5
6	교사	서울	일반고	21	16	국어	교사6
7	교사	경북	자사고	20	8	수학	교사7
8	교사	대전	자사고	15	12	국어	교사8
9	교사	인천	일반고	20	13	영어	교사9
10	교사	서울	자사고	11	8	수학	교사10
11	교사	전남	외고	32	5	독일어	교사11
12	교사	충북	자공고	17	16	수학	교사12
13	교사	서울	일반고	19	14	역사	교사13
14	교사	경기	일반고	25	20	수학	교사14
15	교사	대구	일반고	17	11	수학	교사15
16	교사	충남	일반고	15	3	수학	교사16
17	교사	경남	일반고	15	8	영어/ 진로진학	교사17
18	교사	제주	일반고	15	7	국어	교사18
19	장학사	부산	-	22	15	-	장학사1
20	장학사	경기	-	22	10	-	장학사2

집단 구성은 교육청 소속 장학사 2명과 일반고 11명, 자공고 1명, 자사고 5명, 특목고 (외고) 1명으로 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7명,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4명, 전라권(전남, 광주) 3명, 경상권(부산, 대구, 경남, 경북) 4명, 제주권 2명으로 구성하였다. 총 교직 경력은 최소 9년 이상으로 잡았으며, 대입 업무 경력은 최소 3년부터 최대 25년까지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담당 교과는 진로진학, 주요교과, 비주요교과 등을 포함한 교사로 구성하였다.

## 나)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대상 심층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명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전임입학사정관으로 구성하였다.

〈표 IV-32〉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입학사정관)

연번	구분	지역	설립 유형	대학 규모 ※신입생 정원 내 선발인원	입학사정관 경력(년)	보고서 표기
1	전임	서울	사립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4	입학사정관1
2	전임	대전	국공립	3,000명 이상	6	입학사정관2
3	전임	서울	사립	3,000명 이상	11	입학사정관3
4	전임	서울	사립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12	입학사정관4
5	전임	경북	사립	1,000명 미만	11	입학사정관5
6	전임	서울	사립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9	입학사정관6
7	전임	충북	국공립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12	입학사정관7
8	전임	서울	국공립	3,000명 이상	11	입학사정관8
9	전임	대구	사립	3,000명 이상	11	입학사정관9
10	전임	서울	사립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10	입학사정관10
11	전임	인천	사립	3,000명 이상	12	입학사정관11
12	전임	서울	사립	3,000명 이상	10	입학사정관12
13	전임	전북	국공립	3,000명 이상	12	입학사정관13
14	전임	경기	사립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9	입학사정관14
15	전임	서울	사립	3,000명 이상	5	입학사정관15
16	전임	서울	사립	3,000명 이상	11	입학사정관16
17	전임	서울	사립	3,000명 이상	13	입학사정관17
18	전임	서울	사립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10	입학사정관18
19	전임	경기	사립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6	입학사정관19
20	전임	부산	국공립	3,000명 이상	10	입학사정관20

집단 구성은 현직 전임사정관으로 한정했으며, 국공립 대학교는 5명, 사립 대학교는 15명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14명, 충청권(대전, 충북) 2명, 전라권(전북) 1명, 경상권(부산, 대구, 경북) 3명으로 구성하였다. 입학사정관 총 경력은 최소 4년 이상으로, 심층면접인 만큼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14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신입생 정원 내 선발 인원이 3,000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 사정관을 11명으로 가장 많이 편성하고, 2,000명 이상 4명, 1,000명 이상 4명, 그리고 1,000명 미만 선발하는 소규모 대학 사정관은 1명으로 구성했다.



### 3) 조사 내용과 분석

면담지의 내용은 교사 및 장학사 집단과 입학사정관 집단으로 달리 구성했으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에 대한 의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향후 정책 관련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표 IV-33〉 면담지 문항 구성

대상	구분	세부 항목	내용
교사 및 장학 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기재 유형별 선호도 및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li> <li>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li> <li>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li> <li>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li> <li>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li> <li>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li> </ul>
		기재 적합한 수업방식 및 진행시 어려움	-
		학교 및 교사간 격차 발생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교 유형, 설립유형 등에 따른 차이</li> <li>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li> <li>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li> <li>수능 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li> <li>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li> <li>과목 세특이 아닌 ‘개인별 세특’ 기재의 차이</li> <li>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li> </ul>
		블라인드 평가로 인한 세특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교의 대비 현황</li> </ul>
입학 사정 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와 활용방안	기재 유형에 따른 학생 변별 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li> <li>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li> <li>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li> <li>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li> <li>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li> <li>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li> </ul>
		기재 내용에 따른 학생 변별 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응용 탐구 활동</li> <li>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의 내용</li> <li>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li> <li>해당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학생 진로 관련 탐구 기술</li> <li>교과서 외 외부 자료의 활용</li> <li>교과목 외 학교/학년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 (2020년부터 담임교사 기재 가능)</li> <li>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li> </ul>

대상	구분	세부 항목	내용
입학 사정 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와 활용방안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체감여부에 따른 평가 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li> <li>▪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li> <li>▪ 수능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li> <li>▪ 과목별 세특 기재량</li> <li>▪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li> <li>▪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li> <li>▪ 학생별 관심 분야(학과)를 고려한 기재</li> <li>▪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기재</li> <li>▪ ‘개인별 세특’ 기재</li> </ul>
		블라인드 평가로 인한 세특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평가시 고려할 점</li> </ul>
공통	정책제언	교사의 세특 기재 부담 줄일 수 있는 방안	-
		학교와 교사 간 차이로 인한 학생 불이익 방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의 입장</li> <li>▪ 대학의 입장</li> </ul>
		대학의 세특 평가 기준 공개에 대한 의견	-
		세특의 성취도 평가 보조적 역할 한정에 대한 의견	-
		학생부 기재요령 중 세특 지침 변화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li> <li>▪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li> <li>▪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li> <li>▪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금지</li> <li>▪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li> <li>▪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li> </ul>
		세특 관련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우수사례) 제공</li> <li>▪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 (수행평가/ 수업태도/ 탐구활동 등)</li> <li>▪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li> </ul>
		기타 의견	-

## 나. 전문가 심층면접(FGI)조사 결과 분석

###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에 대해서는 교사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크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과 이유, 세특을 기재하기에 적합한 수업 및 평가방식, 세특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세특이 학생부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고교에서의 준비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과 이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유형에 대한 질문으로 교사들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과 선호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 가.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 나.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 다.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 라.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 마.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 바.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가장 많은 의견은 ‘나.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이었으며, 그 이유는 학생의 성장 과정 및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 개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 답했다.

“다양한 수업 내용 속에서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호기심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학생 중심 참여형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별 탐구 활동을 실시했고, 이를 중심으로 세특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탐구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교사, 동료, 개인 평가를 통해 그 내용을 세특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사2)

“교과 수업은 교과 지식 습득과 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목 세특에는 그 교과에서 학생이 보여준 학업역량과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업을 듣고 습득한 지식의 심화 이해를 위해 이와 연계된 탐구활동이 기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8)

“스스로 호기심을 보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 탐구활동을 한 학생에게는 연구방법과 더불어 주제 및 결론까지 탐구활동 전반을 기록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교사14)

“교과에서도 교과 영역 활동을 기본 바탕으로, 본인이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진로)과 관련된 내용으로 탐구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현재 활동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18)

그다음으로 ‘가.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이 많았는데, 선호하는 이유는 학문적 호기심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업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 답했다.

“단순히 성적이 좋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그 과목을 이수하면서 어떤 내용에서 ‘학문적 호기심’을 가졌으며,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학습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하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교사3)

“세특 내용의 구성에서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사항은 ‘가’와 ‘나’이다. ‘가’는 학생의 (개인적) 학업 수준과 능력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기재 요소이며 ‘나’는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 학업에 임하는 자세 등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기재 요소로서 학생의 내신 성적이 보여주는 의미를 강화하거나 보충해주는 정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사18)

이외에도 ‘라.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학생의 변화된 모습,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교과에 관계 없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대학에 가서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3)

“한창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 중심 수업으로 바뀌면서 먼저 도입된 것이 토론식 수업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업 결과를 교과 세특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구체적 실적 위주의 수행평가가 도입되면서 발표내용에 대한 기술이 많습니다. 자연계의 경우 실험실습 관련 수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4)

“탐구활동 과정과 발표를 통해 학생의 학업 능력과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활동을 하며 느낀 점, 포부 등을 발표에 포함시키는데 이를 통해 의지와 변화된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9)

## 나) 세특을 기재하기에 적합한 수업 및 평가방식

교사 대상 1차 설문조사에서 세특을 기재하기에 적합한 수업 및 평가방식으로 ‘토론/발표’와 ‘강의 후 활동’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에 해당 유형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였다.

우선 ‘토론/발표’ 및 ‘강의 후 활동’ 수업 진행의 어려운 이유로는 주어진 학습량과 수업 시수 등 시간적 제약을 가장 많이 거론하였다.

“활동의 수업 시수를 확보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 여러 교사가 함께 수업하는 과목의 경우, 교사간의 수업과 평가의 편차로 인해 진도를 함께 맞춰가면서 토론과 발표, 강의후 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교사2)

“교과 진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한 과목을 여러 교사가 분반하여 수업하면서 동일한 평가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점점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4)

“‘토론 및 발표’를 준비시키려면 많은 수업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사전 준비를 과제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교사12)

“시간의 제약이 많다. 정해진 시간안에 많은 학생들이 토론하거나 발표를 해야 하는데, 수업시간 이후에 따로 활동을 강요할 수 없기에 토론이나 발표의 흐름이 끊길 수 있다.” (교사9)

다음으로 ‘학생별 성향 및 역량 차이’, ‘교사 및 학교 내 준비 부족’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강의 후 활동은 상대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담은 적으나 이 역시 학생의 자발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함. ~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수능 대비를 위한 지식 강의 위주의 수업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임.” (교사6)

“교과점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에게 발표가 집중되어 여러 학생들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장학사1)

“토론/발표의 경우 학생들이 사전 준비 활동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 교사 스스로 토론/발표 활동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결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까지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14)

이러한 문제점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의견으로 ‘적정 학습량, 적정 수업시간 확보’ 등이 제시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시간 50분 또는 학기별 수업시수를 따져 볼 때, 강의식 수업과 토론/발표 수업 및 강의 후 활동의 시간 배분을 50%를 기준으로 어느 한 쪽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17)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체제에서는 학생개인의 역량을 개별화해 기록해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과와 내용을 줄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 외엔 다른 개선 방안은 없어 보임.” (교사5)

“특정 주제로 진행하는 발표를 위해서는 적어도 1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30분씩 4차례 정도의 발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정성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과정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11)

또한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 개선’ 등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형태의 교과활동이 효과적으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횡적학습 구조에서는 매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학습량의 감소, 평가체제의 변화, 학급당 수업인원 감소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사1)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과정형평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정형평가’를 구성하면 해당 내용의 평가로 끝이 날 수 밖에 없어 조금 더 세밀하게 구성하면 학생의 모습을 찾기도 쉽고 그 내용을 세특에 기록하기도 수월합니다.” (교사15)

“진도의 부담을 이겨내면서 수업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토론 및 발표 소재를 개발해 가는 것이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12)

“교사들의 토론 및 발표수업에 대한 이해정도를 높이고 해당 수업의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교사3)

## 다) 세특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교사 및 입학사정관 대상 1차 설문조사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시 학교 및 교사간 격차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것을 토대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 가. 고교 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 나.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 다.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 라. 수능 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 마.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 바. 과목 세특이 아닌 ‘개인별 세특’ 기재의 차이
- 사.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

우선 ‘가. 고교 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차이’를 들었고, ‘구성원들의 소속감 차이’와 ‘학생들의 관심도 차이’를 해당 원인으로 거론하였다.

“사립의 경우 공립보다는 소인수 수업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되어 있다” (교사12)

“고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학생의 자율적 활동에 대한 기회 여부의 차이에서 기인함” (교사7)

“공립은 학교 운영과 평가이 모든 면에서 입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 그 학교의 입시 결과가 학교에 대한 평판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5년 후면 떠나기 때문에 그 학교의 평판이나 입시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교사6)

“고교유형에 따라 그리고 설립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 자세의 차이와 요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자세는 학생들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인 학생들의 요구로 이어져 세특을 기재할 때 학생들의 활동을 더 잘 적어 주려는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8)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는 ‘교육과정 및 환경 개선’ 및 ‘교장 및 교사 대상 연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학교 내에서 학생부 기재 연수와 더불어 세특과 같은 학생부 기재 주요 항목과 관련된 교과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단절없이 구성하여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발전적 협의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교사18)

“교육청 차원에서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사들간 차이에 의한 교육과정 차이를 줄여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한, 공립 교사 스스로 세특 기록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12)

“공립의 경우는 관리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사14)

다음으로 ‘나.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대입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도 차이’를 가장 많이 거론하였다. 관리자 또한 진로진학에 대한 경험 및 그에 따른 중요성을 인지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본 것이다.

“대입 제도 및 학생부 기재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관심과 이해도에 격차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입장과 나머지 학교 구성원 사이의 이해와 협조 정도에도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학교 내 점검 및 관리 수준의 차이도 세특 기재에 학교 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하나다.” (교사18)

“관리자가 ‘리더십’과 ‘대입 진학 지도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생부의 질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교사들은 모두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적극적인 자세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때 관리자나 신망이 두터운 교사들의 리더십에 의해 일반 교사들의 역량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3)

“세특을 잘 기록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변하여야 함. 하지만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못한 관리자의 경우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잘 모르므로 수업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교사1)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리자 대상 대입 연수 강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결국 관리자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세특의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고등학교 관리자들과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연수가 자주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입 진학 지도 및 학생부 기재 역량 강화 연수 등이 필요합니다.” (교사3)

“최근 변화된 입시 환경에 대해서 교장, 교감 대상의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 학교를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리자의 의지이다. 최근의 경향성에 대한 연수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해야 한다. 관리자 계층의 속성 상 일반 교사보다 훨씬 더 진학 관련 연수에 대한 습득 속도가 느리다.” (교사6)



“입시관련 교육청 연수(시도 마다 횟수 및 내용은 다름)에 3학년 관련 교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학기별 1회 이상 관리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교사17)

이외에도 ‘대입정책과 교육과정의 일관성’ 및 ‘공동협의체 마련’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대입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 현행과 같이 교육과정과 대입정책이 모순될 경우 관리자들이 어떤 정책에 집중해야 할 지를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음.” (장학사1)

“학교마다, 변화하는 대입 및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마련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교사18)

다음으로는 ‘다.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교사 및 과목별 수업방식의 차이’, ‘교사의 학생부종합전형 이해도 차이’ 등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에게 개별적 활동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교과와 수업 진도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교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수행평가를 지필평가처럼 인식하는 일부 교사들의 관점도 역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교사14)

“대부분 교사들의 경우 세특을 잘 써야 한다고 할 때, 잘 쓰는 기준을 ‘글쓰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다 보니 수학과나 과학교과 교사들의 경우 글쓰기가 잘 되지 않아 세특 기록이 어렵다고 판단함.” (장학사1)

“세특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 장식이 아니다.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학생의 활동 사실이 문제이다. 이는 교과 특성이 아니라 수업 방식이 문제가 좀 더 솔직할 것이다.” (교사6)

이러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특 기재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과 수업방식의 변화’, 이를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우선 과제로 뽑았다.

“세특을 쓰기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은 없다. 교사의 관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개인과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함.” (교사7)

“세특 기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여야 함. 향후 고교학점제 하에서 성취도평가가 전면 시행될 경우 교과세특은 ‘서술식 평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음. 잘 쓰기가 아니라 객관적 기록으로 이해해야 함.” (장학사1)

“부전공 연수, 교과전문성 향상 연수를 방학마다 자주 실시하여 교사의 수업과 평가의 질을 높입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도 수업을 희망하는 교사 중심으로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자주

실시해서 잘 가르치는 교사를 늘리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16)

다음으로는 ‘라. 수능 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수능 반영 교과와 석차 등급이 부여됨에 따른 ‘해당 교과의 중요도로 인한 수업방식 및 참여도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 보고 있었다.

“수능 응시 여부 때문에 강의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세특의 부실함이 연결될 수 있고, 수능에 응시하기 때문에 열심히 듣는 경우도 있다.” (교사6)

“수능 반영교과여부는 수능 문제풀이 수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활동중심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로 강의식 수업, 문제풀이식 수업이 되기 십상입니다. 석차등급이 부여되지 않고 성취평가제로 운영되는 진로선택과목이 경쟁구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둠활동이 일반선택과목보다는 더 내실있게 운영됩니다.” (교사16)

“학생들이 관심있어 하는 과목을 모두 개설해 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수능필수과목들이다. 학종이 대세이고 수시모집전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 수능이라는 평가요소를 배제하기란 쉽지 않다.” (교사9)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세특 기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반대 입장 또한 있었다.

“수능 반영과 석차등급 부여와 관계없이 수업에는 학습목표가 있고 학생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충분히 세특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5)

“학생들의 참여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현장에서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역시 수업 방법과 내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사13)

“이 차이로 인해 세특 기재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능 반영 여부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라 세특 기재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지식 습득과정과 활동이 있다면 모두 동일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교사8)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대입제도 개편’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연수 등을 통해 수능 반영 교과만이 아닌 전 교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능과 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는 수능 개편으로 해결해야 함. 수능 성적이 대입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이상 학교 활동을 통해 미래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에는 한계가 있음.” (교사10)

“해결방법으로는 수능 절대평가, 수사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폐지, 정시 수능위주 전형 축소, 전과목 성취평가제 도입 등이 있습니다.” (교사16)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반영 교과가 아닌 교과에 대한 학업역량과 그 세특에 대한 대학 입장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학교 현장에 널리 알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3)

“연수 및 정보 공유를 통한 교사의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교사12)

다음으로 ‘**마.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 수업방식, 준비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준비 정도에 따라 세특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의 분위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잘 준비하는 학교는 담임선생님부터 교과 선생님들까지 이 분야에 대해 잘 준비할 것이고 이것이 생기부의 다른 요소뿐만 아니라 과목 세특의 기재에서도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8)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임.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어울리는 교육과정 편성의 문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 간 합의, 학교장의 의지, 학생 및 학부모의 동참의지 차이 발생” (교사17)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이 낮으면 당연히 수업이 강의 일변도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적을 것도 없다.” (교사6)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와 ‘학교 내, 지역 내 정보 공유’를 위한 교사연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장, 교감, 교무부장은 대입 제도, 교육과정, 종합전형에 대한 연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적용하도록 함.” (교사10)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만 갖추고 정시대비 공부하는 학교인지에 따라 세특의 기록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할 것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전교직원 수시 연수가 필요” (교사17)

“대학 및 교육청 학교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학종의 필요성 인식 재고가 요구 됨. 대학의 고교-연계 활동을 통하여 학종의 필요성의 인식확대 요구. 특히, 정시비중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학종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교사19)

다음으로 ‘바. 과목 세특이 아닌 <개인별 세특> 기재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대다수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제한’과 그로 인한 ‘기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차이’라 응답했다.

“기재 가능한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차이, 담임교사의 역량에 따른 차이, 담임교사의 학생부 기재 영역 내용 과다에 따른 부담” (교사17)

“개인별 세특 중 가장 의미 있는 영역은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융합수업을 활용한 자율적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운영을 해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간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16)

“개인별 세특은 현재 그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무엇이건 적을 수도 있지만, 지침에서는 엄격하게 기록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세특은 지침의 적용을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인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교사6)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개인별 세특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선’에 대한 의견과 ‘기재 가능한 교육활동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개인별 세특 기재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자유롭게 학생의 성장 모습을 개인별 세특에 기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2)

“모든 학교들이 개인별 세특에 기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게 독려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우수 사례 공유, 배포하고 교원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사16)

“개인별 세특에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생부에 적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학교의 특색활동으로 유의미한 교육활동을 창출하고 이를 개인별 세특 기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18)

마지막으로 ‘사.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진학지도 경험에 따른 대입전형 이해도 차이’와 ‘교사의 수업방식 차이’가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대학 진학에 중점을 두지 않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대입에 관심과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립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근무가 개방되어 있어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교사11)

“고3 담임을 맡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담당학생을 대학에 진학 시킨 경험은 학생부를 보는 눈을 갖게 해 세특을 쓰는데 도움이 됨.” (교사5)

“근본적인 원인은 수업에 있습니다. 기존 강의식 수업으로 학습태도 중심 서술의 관습이 남아 있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수업방식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교사..기록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사4)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진학지도 교사연수’ 강화와 이를 통한 ‘교사의 인식 개선’, ‘담임교사들의 업무 경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 개개인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교과 및 진로진학지도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사3)

“모의 서류평가를 적극적으로 많은 교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사14)

“교사들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담임교사들의 업무 경감과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같이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 라) 세특이 학생부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고교에서의 준비

1차 교사 설문조사에서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응답이 많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어떤 이유로 세특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고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우선 블라인드 평가로 세특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고교 정보에 대한 대입 제공 제한’ 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영역 및 분량 축소’ 등으로 응답하였다.

“일반고 내에서 우수한 학교와 열악한 학교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교과성적은 계량화가 쉽지만, 세특은 그렇지 않음. 또한, 기재사항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기당 13-4명의 교사로부터 관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세특이 중요해 짐.” (교사19)

“서류평가 시 고교프로파일을 참고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세특 기록에서 어떤 학교 상황, 여건에서 이러한 학업역량, 탐구활동을 수행했는지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입장에서조차 쉽지 않고, 입력 가능한 글자 수도 적기 때문에 고민하여 기록할 수밖에 없음.” (교사17)

“세특 기재의 양적, 질적 수준이 학교마다 비슷해지는 상황에서 학교 정보까지 블라인드 된다면 세특이 조금이라도 부실해질 경우, 이전의 대입 성과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학교마다 커지고 있다.” (교사18)

“학교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이 되면 학생의 내신석차등급이 주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대학 입장에서 고등학교 학생구성원의 전체적인 학업수준 등의 학교 환경을 고려하여 내신성적을 평가해왔을텐데,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사3)

“블라인드 평가도 영향을 주겠지만, 학생부 기재 영역이 계속해서 축소, 미반영, 미기재되고 있다.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과세특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다. 학교교육과정 204단위 중 180단위가 교과수업이다.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수업이다. 수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사9)

이에 대해 고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수업 및 평가방법의 개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현재 세특 기록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업과 평가 방법에 대한 변화를 교사들에게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수업 중 학생 참여 활동 증대, 과정 중심 평가의 확대, 학생들의 개인적 기록을 위한 연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6)

“고교의 준비로서는 세특은 활동중심수업과 과정중심평가 확대 운영을 위해 교사들의 교-수-평-기 일체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선택과목은 다양한 선택군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진로선택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교과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입니다.” (교사16)

“우리 학교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학년 내·학년 간 협의회 강화, 과정중심평가 설계의 고도화, 수업 기반 독서활동 강화를 통한 세특 내용의 구체적 수준 확보, 세특 기재의 개별화를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의 과목 선택과 맞물리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교사18)

“다른 학교에 비해 일찍 교과 세특을 통해 학생의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어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며 세특 기록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업 방법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파악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를 넘어서 교사들 간의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교사11)

##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와 활용방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크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유형에 따른 지원자 간 변별, 학생의 역량 평가 시 변별에 도움 되는 세특 내용, 세특 평가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세특이 학생 부종합전형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유형에 따른 지원자 간 변별

먼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유형에 대한 질문으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 평가에 있어 각 유형별로 지원자 변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 가.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 나.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 다.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 라.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 마.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 바.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변별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는 ‘나.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학업역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탐구주제를 해결하는 데에 교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내용” (입학사정관1)

“지원자가 수행한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 가능하며, 지원자가 수강한 교과의 교육내용 중에서도 타 지원자와 구분되는 학생의 우수성이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다” (입학사정관2)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 탐구 등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평가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됨” (입학사정관4)

“‘나. 수업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은 ‘가. 교과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교사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보다 풍부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입학사정관7)

“탐구활동 진행에 대한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관찰과 평가’가 기술되어 있을 경우 우수하게 평가” (입학사정관19)

다음으로 ‘가.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로, 학업역량 차원에서 지원자의 성취 수준 및 역량 파악에 가장 큰 도움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동일한 과목에서 동일한 내신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과목에서 학생이 가진 역량과 역량을 발휘한 영역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해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는 반면, 탐구심이나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입학사정관3)

“등급 및 성취도 수준에서 학생이 높은 성취를 보였을 때, 세특에 있는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에 있는 내용이 학생의 성취에 대하여 수업참여도, 수업 내용 등의 내용이 학생을 이해할 정도를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경우, 변별력이 있는 작성 기록으로 작용함.” (입학사정관14)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는 자연계의 진로선택 과목(물,화,생,지 2), 전문교과에 해당되는 과목의 경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편이다. 실제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수업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 안에서 학생은 어떤 성취를 보였는지 살펴본다.” (입학사정관19)

또한 ‘다.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지원한 모집단위의 관련성 속에 전공적합성 차원에서 변별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지원한 모집단위와 고교 교과목에 대한 연계 정도에 대한 변별 검토, 해당 교과목의 학습 과정에 대한 담당 교사의 개인별 평가에 대한 기술내용 참조” (입학사정관11)

“진로선택과목 선택 여부와 전문교과(혹은 심화과목) 선택 여부에 따라 학생의 관심도와 지원학과와의 연관성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다만 단위 학교마다 진로선택과목 개설 정도와 학생 선택 제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평가 반영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13)

“학생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과목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계해 고민한 흔적이 있을 경우 전공적합성의 전공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변별을 두는 편이다.” (입학사정관19)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지원전공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모든 과목이 지원전공에 맞추어 쓰여지다보니 전공에 대한 관심은 파악할 수 있는데, 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두루두루 탐색하여 선택한 것인지를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생김.” (입학사정관4)

‘라.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볼 수 있으며, 학업역량 및 발전가능성 차원에서 변별이 된다고 답하였다.



“학생의 학업적 자기주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배움중심수업’이 아닌 ‘학생참여형수업’이 강조되고 과정중심평가 강조됨에 따라 학생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수업 내 활동이 바로 발표, 토론, 실험실습 등이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변별을 할 때에는 교사의 ‘관찰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을 변별하려 한다.” (입학사정관19)

“학습내용에 대한 적응, 응용,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입학사정관20)

“다른 항목에 비해 지원자가 수행한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 가능하며, 지원자가 수강한 교과목의 교육내용 중에서도 타 지원자와 구분되는 학생의 우수성이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함” (입학사정관2)

‘마.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과 ‘바.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은 인성적 차원이나 학습 태도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마, 바’ 항목의 경우 세특을 통해 학생의 인성 영역, 학업 역량 중 학업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나 이는 한 과목에서 보이는 세특이 아닌 전체 세특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으로 판단하게 된다.” (입학사정관19)

“마, 바의 경우 인성과 관련있는 항목으로 단순히 세특에 기재된 사항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인성관련 교내 수상과 동아리 활동 및 자율활동을 통한 리더십 등을 연계하여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5)

“‘마’ 항목은 지원자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업 장면에서 지원자가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입학사정관1)

##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에 따른 지원자 간 변별

다음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 평가에 있어 각 내용별로 지원자 변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평가 시 문제되는 점을 질문하였다.

- 가.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응용 탐구 활동
- 나.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의 내용
- 다.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
- 라. 해당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학생 진로 관련 탐구 기술
- 마. 교과서 외 외부 자료의 활용
- 바.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
- 사.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

먼저 ‘가.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응용 탐구 활동’에 대해서는 학습 내용의 수준 및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과정, 학업성적과 함께 교과목에 대한 관심, 열정, 태도 등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데 참고자료로는 활용 가능하다” (입학사정관5)

“응용 탐구 활동의 내용을 통해서 현재 학생의 관심 분야 및 발전 희망 역량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해당 과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로서 도움이 됨.” (입학사정관6)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응용 탐구활동은 학생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학생이 교과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수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교과 성적 수치 이외의 내용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13)

문제점으로는 해당 학년의 성취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나 과장된 활동 내용 등으로 충분한 변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과서 내용 기반 응용 탐구의 기록이 있을 경우 첫째 학업역량 부분에서 탐구 역량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과목이 지원자의 지원 모집단위와 연관된 과목일 경우 전공적합성에서도 변별이 가능하다. 다만 ‘응용’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적절해야 할 것이며, 탐구 과정에서도 교사의 관찰과 평가가 엮여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해당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성취 수준을 넘어선 ‘선행학습’ 측면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 (입학사정관19)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응용 탐구 활동이 기재가 되는 것은 분명 평가에 도움이 된다. 탐구 활동 내에서 학생의 개별화된 역할이나 성취 정도를 디테일하게 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활동을 나열한 수준으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충분히 변별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입학사정관15)

“교과 내용의 추가적인 응용 탐구 활동이다 보니 학교별 과목별로 해당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및 해당 활동의 자유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음. 또한 해당 내용이 과해지고 경쟁이 되다보면 교과 수업으로서의 본질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입학사정관6)

“간혹 탐구활동이 과장되었던 경우가 있음. 따라서 다른 부분과 반드시 연계해서 파악해야 함” (입학사정관4)

‘나.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과제물의 수준이나 제목보다는 주도성, 학업태도, 성실성, 문제해결력 등에서 변별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과제물의 세부적인 내용과 수준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이 주도적인 탐구활동, 학업에 대한 태도와 의지 등 학업과 연계된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하는데 활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제물 주제가 진로와 연계되어 있다면, 진로주도성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입학사정관5)

“해당 과목의 과제물 단순 제출 및 내용의 단순 기술은 학생을 변별할만큼의 평가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다만 과제물 제출에 있어서의 성실성, 자기주도성은 엿볼 수 있으며, 해당 과제물이 지원자의 관심과 연결된 내용이라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19)

문제점으로는 과제 수행 주체 및 외부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평가 과정에서 한계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과제의 주제 설정의 주체가 학생인지 담당교사인지는 알 수 없어 학생의 관심사를 이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입학사정관6)

“다만 학교 수업 시간 안에 완성되는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타인의 개입 가능성 때문에, 끊임없는 사교육 논쟁거리가 되기 쉽다. 따라서 수업 시간 혹은 동아리나 방과후학교 시간을 정규 수업과 연결하여, 수업 과제물을 학교 내에서 완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팀별 과제의 경우, 각 개인의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평가하고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13)

‘다.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변별 가능성보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들이 교과 수업 외 활동 수행에 따른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 변별이 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 내에서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기록 및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과수업 외의 심화활동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을 통해 개인별 세특에 기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입학사정관2)

“교과수업 외의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정여부에 따른 차이와 교과서를 벗어난 심화 내용이 자칫 세부특기사항 기재를 위한 활동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으며, 사교육의 개입 여지가 큼” (입학사정관2)

“교과수업 외의 심화 학습 활동은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이나 활동에 참고한 내용, 활동에 도움을 준 자문진 등, 관련 모든 상황들을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워 관련 활동에 대한 진실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교실 및 학교에서의 활동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 낸 학생이 자발적으로 관련 심화학습을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관련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음.” (입학사정관8)

“해당 심화학습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시 수업 외 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수업과 주객이 전도되는 양태가 보여지게 되고 이는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입학사정관6)

‘라. 해당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학생 진로 관련 탐구 기술’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오히려 해당 교과목 내 성취 및 탐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세특은 교과와 관련된 수행능력 혹은 성취 정도를 기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해당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진로 관련 내용은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고 활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15)

“학생의 관심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작위적 작성이 될 경우에는 해당 수업에서의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입학사정관19)

“지나치게 학생의 진로를 강조하다보니, 재수생은 전공을 바꾸어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학생이 가진 다양한 관심과 적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 같음. 만약 교과목별로 실제 교과목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적는다면, 학생이 진로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이 학생은 이러한 특성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이러한 점들을 더 고려해서 지원하게 되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음.” (입학사정관4)

‘마. 교과서 외 외부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내 활용 가능한 외부자료일 경우는 긍정적이나,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일 경우는 큰 변별을 갖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문제점은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외부자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업 시간에 활용될 수 있는 외부 자료이고, 해당 자료가 학습 역량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평가 시 의미 있는 자료라고 봄.” (입학사정관12)

“지원자의 과제집착력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서적, 신문기사, 뉴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식의 깊이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 외 자료라고 할지라도 그 수준이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입학사정관1)

“교과서 외 외부 자료 활용은 학생의 지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오히려 교과서의 내용만으로 한정한다면 지적 호기심과 확장을 엿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변별이 된다. 다만 핵심은 수업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나가는지가 중요하며, 전혀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외부 자료, 특히 고교생의 수준에 맞지 않는 논문 등의 활용이 나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평가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입학사정관19)

‘바.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학교 분위기 및 교사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하였다.

“학교/학급별 탐구활동에 대한 내용이 2020년부터 기재된다면 학생들의 협력, 소통 등 인성과 연계된 내용을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 탐구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생 개개인의 학업역량을 단순히 평가하는 데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학사정관5)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은 창체- 자율활동에 충분히 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경우 학교의 환경,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의미있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입학사정관15)

“학급, 학교 단위의 프로젝트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역할에 주목하여 평가할 듯하다. 문제점은 정말 의미 있는 학생의 개별적 모습이 담겨야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2의 자율활동’ 처럼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입학사정관19)

‘사.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교사가 관찰 가능한 경우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오히려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은 변별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문제점으로는 이를 적극 반영할 경우 학생부 부풀리기 등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 응답했다.

“단순히 이론과 개념을 배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적인 성취도, 탐구 활동 및 태도, 심화교과 이수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었을 때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5)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고등학생 수준에서 해당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변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또한, 대학이 이러한 내용이 변별가능한 내용이라고 안내하지 않았으면 함” (입학사정관14)

“고교 교육과정에서도 고등교육과정의 이론과 개념을 언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이론을 미리 접했다는 사실 자체는 평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행학습 과열의 우려가 있어 평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1)

## 다) 세특 평가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세특 평가에 있어 학교 및 교사 간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또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 평가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 가.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 나.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 다. 수능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 라. 과목별 세특 기재량
- 마.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 바.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
- 사. 학생별 관심 분야(학과)를 고려한 기재
- 아.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기재
- 자. ‘개인별 세특’ 기재

입학사정관들이 세특 평가 과정에서 학교 및 교사 간 가장 큰 격차를 느낀 항목으로는 ‘나.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마.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바.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으로 응답하였다.

실제 평가 활용에 대해서는 ‘나.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학생이 참여한 활동에 대한 사실 위주 반영, 해당 고교의 교육과정 파악을 통한 반영 등으로 고교유형 및 설립유형만으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평가에서는 주로 학생이 직접 참여한 활동에 대한 ‘사실’을 주로 반영하게 되므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사립 공립의 학생부 기록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입학사정관7)

“평가자로서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을 미리 파악하고 그 안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의 내용이나 질적 수준, 수업에서 운영 가능한 모델 등을 사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즉,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학생이 보인 의지나 적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는 뜻임.” (입학사정관8)

“고교유형에 따라 과목의 수준에 근본적인 차이가 가장 큼. 가능하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편성된 과목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하려고 함.” (입학사정관17)

‘마.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와 ‘바.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로 인한 차이 또한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평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유형에 따른 차등보다는 교사의 구체적 관찰과 기록이 있는 경우, 차별화된 학생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등을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능하면 공통적으로 부여된 과제나 탐구 활동에 대한 기록보다 개인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수행한 노력을 찾으려고 노력함. 공동과제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역할과 기여 등을 참고자 함” (입학사정관17)

“수업내용, 발표제목, 형식적인 표현(우수하게 ... 열심히 ... 적극적으로 ...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우나, 개별활동, 학생의 개별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업성취도와 연계하여 의미있게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5)

“학생 소감문을 제출 받아 학생의 언어로 적는 세특이 있는 한편, 교사가 직접 수업 안에서 관찰해 구체적으로 평가한 세특이 있다. 후자의 경우가 평가에 있어서는 의미있다.” (입학사정관19)

“차이가 나는 경우, 작성된 내용에 대한 활용보다는 다른 항목의 내용을 통해 학생 개인의 특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입학사정관10)

또한 ‘가.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와 ‘라. 과목별 세특 기재량’에서도 일부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학생의 개별 특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영역을 활용하여 평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세특 기재가 부실한 고교 지원자는 교과 성적에 대한 정성평가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창의력의 논리력, 탐구력에 대한 기재 내용과 자기소개서 기록을 적극 참고” (입학사정관1)

“관련 교과목의 내용이 많다고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님. 과목의 양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참여한 내용, 참여한 방법, 태도 등등이 영향을 미치게 됨” (입학사정관14)

이외에도 ‘사. 학생별 관심 분야(학과)를 고려한 기재’와 ‘자. <개인별 세특> 기재’ 등도 일부 차이를 느낀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일 고교 지원자 전체의 세특에서 진로위주 서술이 전략적으로 적혀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세특 외 항목의 기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의미를 파악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관심 분야(학과)를 과도하게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고교에서 학과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순간 고교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입학사정관14)

“동일고 지원자 전체의 모든 세특에서 그런 기재 경향을 보일 때는 기만적이라고 느껴져서 오히려 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입학사정관16)

“독서 활동, 수상 경력 등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세특의 기록의 진정성 확인” (입학사정관20)

반면 ‘다. 수능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와 ‘아.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기재’ 등에서는 큰 격차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 라) 세특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1차 입학사정관 설문조사에서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세특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세특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입학사정관 모두 세특의 중요성에 동의했는데,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고교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세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보았다.

“고교 정보가 제한되면서 지원자의 내신 경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세특의 기록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특 기록을 통해서 교과수업 내용을 지원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탐구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활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1)

“고교 환경에 대한 정보 미제공으로 부풀려진 수상경력, 무분별한 연구와 동아리 활동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공적합성과 학업역량, 발전가능성 등의 학종 주요 평가요소로서 세특은 고교의 내실화, 수험생의 주도성 활동을 판단하는 평가 근거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입학사정관2)

“고교의 환경과 특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업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정량적인 부분에 더해 정성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세특이라고 볼 수 있다.” (입학사정관3)

“블라인드 평가는 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알 수 없게 만드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 내용이 학생에게 충실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인 세특에 평가자가 주목하는 이유이다.” (입학사정관13)

고교 블라인드 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제한 및 축소 등으로 세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와 상관없이 학생의 교과활동, 전공에 대한 관심도 등 세특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고교 블라인드 평가에 더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영역이 대폭 축소되고 글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생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학생부 항목이 많지 않다” (입학사정관7)

“세특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그 외의 학생부 영역이 축소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가 적어지는 상황에서 수치만으로 학생의 학업역량을 가



높하지 않도록 세특이 학생의 면면을 세세히 기재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크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8)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해 성취도 평가가 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해당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였는지 정성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본다” (입학사정관15)

“세부능력 특이사항 기록은 고교블라인드 여부와 관련 없이 학생의 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자료였음” (입학사정관20)

### 3) 정책 제언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교사와 입학사정관에게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 가) 고교 교사가 세특 기재 시 겪는 어려움과 개선점

교사 대상 1차 설문조사에서 교사가 세특 기재 시 겪는 어려움으로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 ‘학생별 개별화된 기록’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으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관찰하여 개별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교사로서 당연하나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과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지도의 목적도 있으므로 기록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음.” (장학사1)

“전체 학생 의무 기재, 개별화된 기록은 말처럼 쉽지 않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 중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만약 전체 학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한다면, 교사가 학생을 관찰 후 기록하여 평가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 학습량 축소, 평가 방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교사1)

“모든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기록을 위해서는 학생의 개별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별화된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학생들의 다채로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 및 평가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사들 간 공유하는 것만이 당장 맞닥뜨린 기록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교사12)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및 수업 방법 개선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교사13)

동일한 질문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의견은 모든 학생에 대해 기재해야 할 경우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평가자 입장에서 세특은 모든 학생에 대한 기재보다는 역량이 드러나는 학생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별화된 기록을 위해 교사 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안, 수업방법의 개선과 함께 학생부의 기록방법 개선과 공개 범위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모든 학생을 다 기록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실만 짧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역량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학생에 한해서만 교사의 주관적 의견을 기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개별화된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수업방법을 고민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3)

“본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교사별 담당 학생의 수가 줄어야만 가능했던 정책인데 현재 교사별 담당 학생의 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6)

“개별화된 기록은 학생의 우수성, 특별한 점이 드러날 때 기록이 가능한 것인데, 모든 학생에게 모든 수업에서 기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학생의 우수한 점, 특별한 점이 있을 때 그 장점이 잘 부각 될 수 있도록 기록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입학사정관 18)

“학생부에 대해 학생, 학부모 대상 전체 공개에 대해서 항목별 비공개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10)

## 나) 학교 및 교사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학교와 교사의 차이로 인해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교’ 입장에서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고교 내 교사들 간의 협의와 내용 공유, 교육청 주관의 교사 연수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대학에 합격한 교내 학생들의 사례를 함께 점검하며 교육과정 선택을 비롯하여 수업 방법, 평가 루브릭, 기록 내용 등을 공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교사간의 기록에 대한 편차를 줄여나갈 수 있으며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사12)

“교과협의회의 내실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들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학년을 넘어서 서로의 수업사례와 기록 사례 및 피드백 상황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교사14)

“전국 모든 고교의 상황이 다르고 모든 교사의 개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표준안을 마련하고 교육을 해도 이러한 차이를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

속적인 노력(교사 개인의 노력과 관심, 교사연수를 통한 중요성 공유 등)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3)

동일한 질문에 대해 ‘대학’ 입장에서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동교 지원자 비교를 통해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에 반영할 것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 세특과 병행하여 학생부의 다양한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 고교의 교육환경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대학에서는 블라인드로 인하여 고교명이나 지역은 알 수 없을 것이나, 교육과정 편성표 등을 통하여 동일 학교 지원자들끼리는 묶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 학교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세특의 내용이 학교의 특성이라면 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장학사1)

“평가 시 특정 교과 세특에만 집중하여 편중된 리딩을 피해야 합니다. 학생부는 1~2명의 교사만 작성에 참여한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 한 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특정 교사에 의한 평가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16)

“현재와 같은 블라인드 평가 상황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대학의 경우 학생의 교육환경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공정한 평가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 기존 프로파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개별 학교의 교육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17)

## 다) 세특의 표준적인 평가 기준 확립과 공개에 대한 의견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으로 1차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t=10.234$ ,  $p<.001$ ). 교사는 표준화된 평가기준 확립과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입학사정관은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대학의 평가 기준과 공개로 인해 학생부 기재를 대학 제공의 틀에 종속화하거나 형식화한다면, 교사와 학생의 역동적인 수업 활동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율성이 아닌 대입만을 위한 학생부 기재로 고착화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안내만으로도 충분히 평가기준이 제시된 것 같기에, 이에 대한 보충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며, 세특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방법의 확립과 공개는 반대합니다.” (교사2)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특 기록의 차별화를 줄여버리고 개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하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교교의 몫이고 대학은 그 기록을 공정하게 평가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교사7)

“대학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교교의 교육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면 세특 기록에 대한 유형화된 틀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지금까지 대학은 충분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세특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한 영역인데, 이렇게 학생부 영역별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입학사정관7)

“학생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을 기록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학 진학을 위한 맞춤형 기록을 위해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15)

## 라) 평가에서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역할에 대한 의견

‘세특은 학생의 석차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의견으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대부분 세특이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특은 석차등급이나 성취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석차등급 부여가 되지 않는 과목의 경우 세특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한 역할이 되기도 하고, 세특과 성취도는 서로 상호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타났다.

“세특은 학생이 수업시간 얼마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탐구하며 자신의 학업역량을 드러냈는가를 기술하고, 평가자는 교과외의 수치적 결과 보다,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과 발전가능성까지 유추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따라서 석차 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역할이 아닌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특 내용을 바탕으로 석차등급이나 성취도평가의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사17)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학생의 석차등급 혹은 세부적인 성취 자료가 기재되지 않는 과목이 많아지는 현 상황에서, 세특이 성취자료의 보조적 수단이라고 정의내리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이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성취자료가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개설 과목 다양화에 따라 성취자료가 아닌, 세특 안에서 과목 및 이수자의 특성, 수준, 지원자의 성장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다양성보다 정규 교육과정의 공통적 이수가 강조되던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수자 중의 상대적 우수성이 성취자료에 비교적 잘 드러났으나, 이제는 과목 특성에 따라 세특만으로 학생의 우수성을 판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입학사정관8)

“세특은 성적의 보조도구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성적을 가져야 한다. 만약 동일 대학에 1등급과 9등급이 동시에 지원한다면 성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세특은 보조적일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지원 단계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을 어느 정도 고려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성적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간에 변별은 세특에 나타난 학습 태도나 호기심, 발전 가능성 등이 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세특은 석차 등급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입학사정관17)

## 마) 학생부 기재요령 상 세특 지침 변화에 대한 의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다음과 같은 지침 변화에 대해 교사 및 입학사정관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 (1)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 (2)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
- (3)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
- (4)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금지
- (5)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 (6)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1)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 기재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금지’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사교육 유발 측면에서 기재금지에 찬성하는 의견과 함께 소논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재만 금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진행한 내용은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현장의 상황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못한 방법(사교육 등)으로 탐구활동을 한 경우는 작성해서는 안되겠으나,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행한 탐구의 내용을 작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사3)

“자율탐구활동의 목적인 학생 개인이나 학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심도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특정 주제를 탐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자신의 언어로 학습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소논문과 탐구보고서 기재를 금지하면 발표라는 것을 통해 기재하게 된다. 즉흥적이고 대책 없는 규제는 편법만 늘리는 일이 된다.” (교사9)

“일률적으로 일부 악용된 소논문 반영 사례만을 가지고 무조건 관련 내용은 기재금지라고 못

박아버려, 수준이 높지는 않아도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가던 일선 고교에서 이러한 변화 노력이 일시에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가 되는 바임. ‘소논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단순 실험보고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교과서 내용 안에서 호기심을 해결하는 사고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핵심임.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장려하고 응원하는 수업 분위기가 정착된 고교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봄” (입학사정관8)

“소논문 자체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논문을 ‘탐구보고서’ 형태의 편법 기재 금지에는 찬성한다. 다만 학생이 수업 내 활동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기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입학사정관19)

(2)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입학사정관의 경우 K-mooc 자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동안 학생들이 지적호기심을 채우는 과정으로 활용해 왔는데 기재를 금지하면서 탐구 노력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 외의 활동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아닌 것이 맞다.” (교사6)

“K-mooc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평가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기존에 세특에 기재될 때도 어떤 주제의 강의를 들었다 정도만 기재되었기 때문에 지원자의 관심사가 어떤 영역인지를 유추하는 것 외의 다른 부분을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침변화 여부가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입학사정관15)

(3)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회라는 용어 자체를 무조건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회는 단순 수상을 넘어 학생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부분도 클 것인데 이런 부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교사8)

“교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노력한 바를 작성할 곳이 없어진 것은 아쉽지만, 수상 기록 자체가 축소된 상황에서는 세특에서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1)

(4)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금지’와 관련하여 기재금지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입학사정관의 경우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된 내용은 기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교육정상화법 위배하고 학생의 적성보다 대입을 위한 활동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기재

금지에 찬성한다” (장학사2)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관련 모든 활동은 기재 가능해야 한다. 단, 객관적으로 그 활동 내용이 입증 가능하며 외부 강사가 아닌, 해당 학교 소속 교사 및 강사가 진행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교사17)

“정규 과정에서 제공되지 못한 과목을 방과 후 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고교 사례가 적지 않고 이는 학생의 자주성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로 활용되었기에 평가자료의 제한이 우려됩니다.” (입학사정관16)

“방과후 활동이 단순히 수업의 연장 수준이라면 기재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심화학습이나 심층 탐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활동이라면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입학사정관17)

(5)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와 관련하여 찬성의 의견과 함께 과목별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있었다.

“소논문, 연구보고서, 보고서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애매한 상황에서 이 과목은 되고, 다른 과목은 안 된다는 식의 구분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과목의 성격에 따라 수학과제탐구 등 5개의 과목은 보고서 작성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이유에서 기재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지침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학교에서 가능한 대응은 연구보고서 기재가 가능한 이러한 과목들을 전략적으로 교육과정에 잘 집어넣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앞서 학생부 세특 기재와 자율탐구활동, 보고서 기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통합적, 합리적인 정비를 제안하고 싶다.” (교사18)

“왜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사회과제 연구, 과학과제 연구 5개 과목만 허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타 교과는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입학사정관12)

(6)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이러한 기재가 학교 간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찬성함. 학교에 따라서는 자율적 교육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학생들 스스로 심화학습이나 연계, 확장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봄.” (장학사1)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을 가능하게 한다면 학교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을 기재하게 해야 한다.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에 대해 사례를 발굴하여 더 많은 학교가 따라갈 수 있

도록 홍보해야 한다.” (교사9)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새로운 문제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영재교육, 발명교육, 자율형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기록의 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 또한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16)

## 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제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세 가지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또한 들어보았다. 우선 (1)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제공’ 과 관련하여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적인 부분이 줄어들고, 표준화되고 정형화 되어가고 있어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우수한 학생의 우수성을 영역별로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가할 부분이 별로 없다. 교육부에서 세특 기재 우수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한다면 더욱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내용으로 기재 될 것이다.” (교사17)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우수사례를 공유할 경우 복붙의 위험이 있으며, 세특이 획일적이고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질 위험성이 있어, 학생의 개별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서류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입학사정관3)

(2)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 (수행평가/ 수업태도/ 탐구활동 등)’ 과 관련하여 교사의 경우, 현재도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영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교사의 자율성 저해와 업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입학사정관의 경우에도 영역을 구분하면 그 안에 간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영역 구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무언가를 더 나누고 보강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예전 행발을 항목별로 구분하였을 때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부작용들이 그대로 재연될 수 있다.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했을 때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9)

“수행평가, 수업태도, 탐구활동 등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 짓기는 어려우므로 세특 기재의 항목을 구분할 경우, 항목 간 내용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연결되는 맥락을 구성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한다. 또한 기재 항목을 나누게 되면 교사의 입장에서는 기재 항목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고, 또 항목별로 기재할 내용을 분류하고, 기재 가능한 글자 수를 맞춰야 하는 일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인식을 주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교사18)



“항목의 세부적 분할은 결국은 해당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되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분할 보다는 통합의 측면으로 학생부가 변해야 한다.” (입학사정관6)

“세특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을 구분해 준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수업 안에서의 학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입학사정관19)

(3)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교사와 입학사정관 대부분 반  
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표준화는 획일화로 변질되어 대학에서는 학생 변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고교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찬성하지 않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하에 교사가 내용 구성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장학사1)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세특의 내용을 표준화하면 차별화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적절한 최  
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요할 수 있으나 표준화하는 것은 학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지  
금도 금지사항은 매우 많은 편이고 가이드라인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교사7)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세특의 표준화를 추진한다면, 학생부 상에서 또다시 개별  
화 특성은 사라지고 잘 짜여진 동일한 기술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기재될 것임. 어느 정도의 가  
이드라인은 필요하나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을 내세워 표준화, 지침 통일 등만 강조한다면 획  
일적 입시가 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했던 그간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될 것임.” (입학사정  
관8)

이와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및 평가와 관련한 자유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에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개선, 기재요령의 개선 등 현 지침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재의 유연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부 교과와 같은 정  
량적 평가와는 다르게, 다양한 학생의 모습을 평가자가 발굴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기 위해  
서는 세특 기재의 제한과 규제가 부적절하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중 문·이과 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세특 기재 시 여  
러 교과 교사가 통합하여 기재하는 교과 통합적인 내용을 지침에 추가해야 함.” (장학사2)

“현재 발표된 학생부 기재지침이 고교 및 대학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람.” (입학사정관8)

“모든 기재금지 사항이 편법 또는 부정적 방법으로 나타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기재  
금지사항에 포함된 내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상당히 교육적 의미 및 평가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함.” (입학사정관12)

“세특은 학생부의 학교 간, 교사 간 격차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은 한번쯤 검토해야 한다고 봄. 평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세특을 포함하여 일부 항목은 가독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기재 방식을 기록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평가자에게는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17)

## 다. 전문가 심층면접(FGD)조사 요약 및 시사점

###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교사 및 장학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우선 기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크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과 이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기에 적합한 수업 및 평가방식,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학생부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고교에서의 준비사항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보았다.

먼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과 이유’와 관련해서는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그리고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등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해당 유형의 기술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관심 분야에 대한 학생의 탐색 과정 및 발전하는 모습의 관찰, 학생의 지적 수준 및 호기심 해결 과정 등 학업 태도에 대한 관찰 등 학생 개인의 변화 과정이나 성실성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기에 적합한 수업 및 평가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사 대상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 및 발표’와 ‘강의 후 활동’이 진행되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해당 수업 진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주어진 학습량과 수업 시수 등 시간적 제약을 가장 많이 거론하였다. 또한 학생별 성향 및 역량 차이, 교사 및 학교 내 준비 부족 등도 어려운 요인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적정 학습량, 적정 수업시간 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 개선’, 나아가서는 ‘대입 제도의 개선’ 등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음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와 관련해서 교사 및 입학사정관 대상 1차 설문조사에서 모두 격차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것을 토대로 심층면접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에 다음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차이의 발생 이유와 해결방안을 물어보았다.

- 가. 고교 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 나.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 다.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 라. 수능 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 마.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 바. 과목 세특이 아닌 ‘개인별 세특’ 기재의 차이
- 사.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교육과정 및 환경의 차이, 관리자 및 소속 구성원(교사, 학생)의 관심도 차이, 교사들의 대입(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도 차이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되었다.

항목별로 이유를 다시 살펴보면, ‘가. 고교 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차이’를 들었고, 구성원들의 소속감 차이와 학생들의 관심도 차이를 해당 원인으로 거론하였다. ‘나.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대입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도 차이를 가장 많이 거론하였다. ‘다.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교사 및 과목별 수업방식의 차이, 교사의 학생부종합전형 이해도 차이 등을 제시하였다. ‘라. 수능 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능 반영 교과와 석차 등급이 부여됨에 따른 해당 교과의 중요도로 인한 수업방식 및 참여도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 보고 있었다. ‘바. 과목 세특이 아닌 <개인별 세특> 기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제한과 그로 인한 기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차이로 응답했다. ‘마.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과정, 수업방식, 준비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사.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진학지도 경험에 따른 대입전형 이해도 차이와 교사의 수업방식 차이가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리자 대상 대입 연수 강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결국 관리자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와 ‘세특 기재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과 수업방식의 변화’를 위한 교사연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대입제도 개편’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외에도 ‘담임교사들의 업무 경감’ 및 ‘공립과 사립 교사 간의 순환파견’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학생부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고교에서의 준비’에 대해서는 고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영향력에 대한

생각과 고교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고교 정보에 대한 대입 제공 제한으로 인해 고교의 환경 및 학생의 개별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블라인드 평가 때문이 아니더라도 ‘고교생활의 충실성을 볼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영역 및 분량 축소’ 등도 중요성을 높게 하는 요인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고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수업 및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와 활용방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크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유형에 따른 지원자 간 변별, 학생의 역량 평가 시 변별에 도움 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시 지원자 변별에 도움을 많이 받는 기재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가장 변별이 되는 유형은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에 대한 기술’로, 구체적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학업역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이 많았는데, 이는 학업역량 차원에서 지원자의 성취 수준 및 역량 파악에 가장 큰 도움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지원한 모집단위와의 관련성 속에 전공적합성 차원에서 변별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볼 수 있으며, 학업역량 및 발전가능성 차원에서 변별이 된다고 답하였다.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과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은 인성적 차원이나 학습 태도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학생의 역량 평가 시 변별에 도움 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변별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해당항목 평가 시 문제되거나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물었다.

가.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응용 탐구 활동

나.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의 내용

다.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

라. 해당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학생 진로 관련 탐구 기술

마. 교과서 외 외부 자료의 활용

- 바.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2020년부터 담임교사 기재 가능)
- 사.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

먼저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응용 탐구 활동’에 대해서는 학습 내용의 수준 및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과제물의 수준이나 제목보다는 주도성, 학업태도, 성실성, 문제해결력 등에서 변별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문제점으로는 해당 학년의 성취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나 과장된 활동 내용 등으로 충분한 변별이 어렵다는 의견, 과제 수행 주체 및 외부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평가 과정에서 한계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과 ‘해당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학생 진로 관련 탐구 기술’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오히려 해당 교과목 내 성취 및 탐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들이 변별 가능성보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교과 수업 외 활동 수행에 따른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 변별이 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 내에서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기록 및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교과서 외 외부 자료의 활용’과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내 활용 가능한 자료이고 교사가 관찰 가능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은 오히려 변별이 어렵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의 강조될 경우,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외부자료 활용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부풀리기 등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학교 분위기 및 교사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와 관련해서 다음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차이를 평가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 가.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 나.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 다. 수능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 라. 과목별 세특 기재량
- 마.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 바.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
- 사. 학생별 관심 분야(학과)를 고려한 기재
- 아.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기재
- 자. ‘개인별 세특’ 기재

입학사정관들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과정에서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

립) 등에 따른 차이’,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 등을 볼 때 학교 및 교사 간 가장 큰 격차를 크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실제 평가 활용에 대해서는 교사의 구체적 관찰과 기록이 있는 경우, 차별화된 학생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바탕으로 학생이 참여한 활동에 대한 사실 위주 반영, 해당 고교의 교육과정 파악을 통한 반영하고 있기에 고교유형 및 설립유형만으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와 ‘과목별 세특 기재량’에서도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학생의 개별 특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영역을 활용하여 평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학생별 관심 분야(학과)를 고려한 기재’와 ‘개인별 세특’ 기재 등에서도 일부 차이를 느낀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외 항목의 기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의미를 파악하여 평가한다고 답했다.

반면 ‘수능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나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기재’ 등에서는 큰 격차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입학사정관 모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고교 정보가 제한되다 보니 고교 및 학생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본 것이다. 하지만 고교 블라인드 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제한 및 축소 등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그 안에서도 학생의 교과 활동 및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항목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기 때문인 것이다.

### 3)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이러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교사 및 장학사, 입학사정관 공통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에 대한 개선점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기술해달라고 하였다.

우선 **‘고교 교사가 세특 기재 시 겪는 어려움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교사 대상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 ‘학생별 개별화된 기록’을 세특 기재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으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관찰하여 개별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교사로서 당연하나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과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입학사정관들 또한 모든 학생에 대해 기재해야 할 경우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평가자 입장에서 세특은 모든 학생에 대한 기재보다는 역량이 드러나는 학생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별화된 기록을 위해 교사 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안, 수업방법의 개선과 함께 학생부의 기록방법 개선과 공개

범위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및 교사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어보았다. 고교입장에서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고교 내 교사들 간의 협의와 내용 공유, 교육청 주관의 교사 연수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대학 입장에서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입학사정관들은 동교 지원자 비교를 통해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에 반영할 것과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이므로 세특과 병행하여 학생부의 다양한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세특의 표준적인 평가 기준 확립과 공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보았다.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에 대해 교사 대상 1차 설문조사에서는 표준화된 평가기준 확립과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교사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입학사정관 대상 2차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입학사정관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에서의 세특의 역할에 대한 의견**’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세특은 학생의 석차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의견으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대부분 세특이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의견이 많았다. 세특은 석차등급이나 성취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석차등급 부여가 되지 않는 과목의 경우 세특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한 역할이 되기도 하고, 세특과 성취도는 서로 상호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개선됨에 따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지침** 또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이에 관련 지침에 대한 교사 및 장학사, 입학사정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 기재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금지’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사교육 유발 측면에서 기재금지에 찬성하는 의견과 함께 소논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재만 금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진행한 내용은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입학사정관의 경우 K-mooc 자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동안 학생들이 지적호기심을 채우는 과정으로 활용해 왔는데 기재를 금지하면서 탐구 노력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회라는 용어 자체를 무조건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금지’와 관련하여 기재금지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입학사정관의 경우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된 내용은 기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와 관련하여 찬성의 의견과 함께 과목별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있었다.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과 관련하여

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이러한 기재가 학교 간 격차를 벌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제공’ 과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 (수행평가/ 수업태도/ 탐구활동 등)’ ,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등의 제안에 대해서도 찬반의 입장을 들어보았는데,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교사들은 영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교사의 자율성 저해와 업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입학사정관의 경우에도 영역을 구분하면 그 안에 간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설부른 표준화는 획일화로 변질되어 대학에서는 학생 변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고교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주요 평가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교 생활 전반에서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평가하여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의 교과 수업에서의 경험과 학습 활동 참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토대로 학생의 학업역량,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고교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어 대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부 항목과 분량이 감소하고,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경험과 성장 과정이 자세하게 드러나도록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들의 수업방식과 세특 기재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정민주 외, 2020). 이에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고교 현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기재하고 있는지 기록 현황을 파악하여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대학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는 현직 고교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차는 67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변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 검증(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부 주관식 항목은 유목화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층면접(FGI)을 실시하였는데, 교사 및 장학사 20명과 입학사정관 20명 총 40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면담지를 통해 진행하였다.

우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세특 기재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과 수업방식, 적합한 수업 및 평가방식, 학교 및 교사 간 격차, 세특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고교에서의 준비사항 등의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세특 기재 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활동 내용이나 수업 활동 결과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그중에서도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글쓰기·발표력·토론·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등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학생의 탐색과정과 발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학생 개인의 변화과정이나 성실성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기에 적합한 수업 및 평가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토론 및 발표와 강의 후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주어진 학습량과 수업 시수 등의 제약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을 위해 적정 학습량과 적정 수업시간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는 세특이 대입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세특 기재 시 학업, 전공적합성, 인성 등 대학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특 기재 시 느끼는 어려움은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와 학생별 개별화 기록에 대한 부담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변경에 따라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기재 분량이 확대되고, 세특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른 내용 구성의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세특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응답을 비교했을 때 고교 현장에서 교사가 느끼는 세특 기재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 격차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 간 격차와 학교 내 격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가 인식하는 학교 간 격차의 원인으로는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의 차이, 학교 관리자 및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였으며, 입학사정관은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집단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하는 학교 내 격차의 원인은 교사의 관심과 역량, 교과 내 수업 방식, 교과 특성과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학교 및 교사 간 격차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및 환경의 차이, 관리자 및 소속 구성원(교사, 학생)의 관심도 차이, 교사들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도에 따른 차이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자 대상 대입 연수 강화가 우선이라고 응답하였다. 관리자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학생부 기재의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지침이 학생부를 평가하는데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세특 기재 과목 당 500자 제한과 주요 교과 모든 학생 입력 지침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엇갈렸다. 세특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기재 내용을 제한하고 기재 대상을 획일화하는 방안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자율성이 훼손당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반면, 학생부 기재의 표준화를 통해 기재 격차를 줄이고 기재의 용이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심층면접에서 고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영향력에 대한 생각과 고교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세특이 고교의 환경 및 학생의 개별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며, 고교생활의 충실성을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것을 위해 고교에서는 수업 및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및 활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90.5%와 입학사정관의 89.0%는 세특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다양한 평가요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영역에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발전가능성, 인성 순으로 중복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고교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평가는 교과 석차등급 등 정량적인 평가와 달리 학업역량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 세특 기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기술 유형이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 교사 집단에서는 ‘학습 태도·성실성·참여도에 대한 기술’,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입학사정관 집단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 중 어떤 기술 유형이 지원자 간의 변별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였고, 교사 집단과 유사하게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보다는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학습 태도·성실성·참여도에 대한 기술’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학생이 배운 교과목 학습의 우수성에 대한 기술보다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과 답을 구성하고, 학습태도 등이 잘 기술될 경우 변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식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우수한 세특 기재 방식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교사의 주관적 평가나 단순한 성취수준에 대한 언급 보다는 교사의 객관적 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학생의 구체적인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학생 개인적 특성과 우수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세특 평가 시 지원자 변별에 도움을 많이 받는 기재 유형으로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과 ‘교과 성취 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수업에서 구체적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성취 수준 및 학업역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은 지원한 모집단위와의 관련성 속에 전공적합성 차원에서 변별에 도움이 되며, ‘학습 태도·성실성·참여도에 대한 기술’과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은 인성적 차원이나 학습태도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세특 기재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세특 기재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라는 공통된 답변이 많았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의견으로는 세특 평가 시 최종 성취 결과보다 ‘수업 참여도와 참여 내용 등 활동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객관적 활동 내용과 주관적 평가 내용을 분리하여 평가

해야 한다’는 의견은 입학사정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응답은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교사의 동의 정도는 높았으나, 입학사정관은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세특 기재에 대한 어려움으로 표준 기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 입학사정관은 오히려 세특 내용의 획일화와 기재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는 경향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실제 학생부 교과 세특에 기재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재 내용을 제시하고 평가에서 활용하는지를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입학사정관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에 활용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학생 제출 과제물 내용’과 ‘교과서 내용 기반의 응용 탐구 활동’ 등 이었다. 다음으로는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과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 ‘교과서 외 외부자료 활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가 활용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입학사정관은 대체로 과도한 학생부 기재 내용 제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부 기재 지침에 금지사항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고교 간의 기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특 기재 가능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 심층면접에서 학생 변별에 도움이 되는 세특 기재 내용을 항목별로 질문하였다. 먼저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응용 탐구 활동’과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습 내용의 수준 및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고, 과제물의 수준이나 제목보다는 주도성, 학업태도, 성실성, 문제해결력 등에서 변별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해당 학년의 성취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이나 과장된 활동 내용은 충분한 변별이 어렵고, 과제 수행 주제 및 외부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평가 과정에서 한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과 ‘해당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학생 진로 관련 탐구 기술’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오히려 해당 교과목 내 성취 및 탐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들이 변별 가능성보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교과 수업 외 활동 수행에 따른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 내에서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기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과서 외 외부 자료의 활용’과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내 활용 가능한 자료이고 교사가 관찰 가능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은 오히려 변별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해당 내용의 강조될 경우,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외부자료 활용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부풀리기 등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학교 분위기 및 교사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심층면접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평가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입학사정관들이 학교 및 교사 간 격차를 크게 느끼는 항목으로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실제 평가 활용에 대해서는 교사의 구체적 관찰과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교의 교육과정 파악을 통해 반영하고 있기에 고교유형 및 설립유형만으로는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와 ‘과목별 세특 기재량’에서도 차이를 느끼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영역을 활용하여 평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수능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나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기재’ 등에서는 큰 격차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입학사정관 모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블라인드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의 제한 및 축소의 영향으로 고교 정보가 제한되다 보니 고교 및 학생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의 교과 활동 및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항목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전문가 심층면접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생각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개선점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세특 기재 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와 학생별 개별화된 기록이라는 응답에 대해 개선방안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과 수업 방법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공개 범위 제한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학교 및 교사간 차이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방안’으로 고교에서는 고교 내 교사들 간의 협의와 내용 공유, 교육부와 교육청 주관의 교사 연수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대학 입장에서는 동교 지원자 비교를 통해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에 반영할 것과 세특과 학생부의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세특의 표준적인 평가 기준 확립과 공개’에 대해서는 교사 대상 1차 설문조사에서는 표준화된 평가기준 확립과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교사 및 입학사정관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히려 표준화된 기준이 세특 내용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나타내었다. ‘평가에서의 세특의 역할’에 대해 교사 및 입학사정관 대부분 세특은 석차등급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특은 석차등급이나 성취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석차등급 부여가 되지 않는 과목의 경우 세특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한 역할이 되기도 하고, 세특과 성취도는 서로 상호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학교생활기록부 변화에 따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지침의 변화와 향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와 학생부 기재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요령은 전반적으로는 기재량 축소, 기재 금지 및 제한 항목 증가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학생부 기재 지침 변화에 대해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두 집단 모두 ‘소논문, 탐구보고서 기재 금지’와 교과별 담당교사 외 담임교사가 작성 가능한 ‘개인별 세특 사항 입력 가능’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활동 기재 금지’에 대해서는 모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K-mooc 입력 금지’에 대해서는 교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입학사정관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집단 간 비교에서 입학사정관이 교사에 비해 ‘소논문, 탐구보고서 기재 금지’와 ‘K-mooc 입력 금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다. 학생부 기재 당사자인 교사에 비해 대학 입학사정관은 더 많은 평가 자료의 확보, 학생 간의 변별력, 평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생각이 강하며, 이러한 차이가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파악할 수 있다.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무조건 기재 금지사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한 내용은 기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학사정관의 경우에는 소논문, K-mooc, 탐구보고서 등 이 자체가 학생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채우는 과정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러한 무조건적인 기재금지가 학생들의 탐구 노력을 위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학교 간 격차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된 내용은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생부 세특 기재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기재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세특 기재의 영역별로 구분(수행평가/수업태도/탐구활동 등)하여 세특 기재를 용이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에 비해 교사의 응답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구분이 교사의 업무를 증가시킬 수 있고, 내용을 획일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 제공이나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부정적인 의견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세특을 영역별로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교사의 자율성 저해와 업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세특 가이드라인(우수사례) 제공이나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에 대해서도 오히려 학생부 내용의 획일화로 변질되어 대학에서 개별학생의 특성을 변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평가자의 입장에서 학생부의 가독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기재방식의 개선은 필요해 보이

나, 가이드라인 혹은 표준화 지침, 사례공개 등은 그만큼 위험부담도 따르는 일인 만큼 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때 대학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입학사정관 대상 설문조사에서 고교 교사와 교육정책 당국에 바라는 점을 질문하였다. 고교에 바라는 점은 교사의 세특 기재 방향에 대한 조언과 고교의 정책적 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특 기재 방향은 교과 내용 위주 기재보다는 학생 관찰 내용 위주 기재, 동일 내용 반복보다는 학생 개인별 차이를 드러낸 기재, 교과 성적과 연계된 세특 내용 기재, 개인의 진로희망과 무리하게 연계된 세특 기재의 지양, 셀프 학생부 기재 금지 및 검증 등을 통한 고교-대학 신뢰성 확보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교에서는 교사 대상 지속적인 세특 기재 교육, 온라인 교육 등 새로운 수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록 체계 도입을 주문하였다.

교육 당국에 바라는 점은 크게 학생부 재구조화, 학생부 기재 자율성 부여,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부 재구조화는 고교 현장의 변화를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학업 역량 기재 체계 마련 등 학생부 기재 항목의 재구조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부 기재 자율성 부여는 세특 기재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재고, 학생부 기재 금지 항목 및 기재량 제한의 철회, 일부 학생부 항목 비공개화를 통한 교사의 학생부 기재 자율권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전반적인 대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다수 입학사정관이 블라인드 서류평가 정책이 오히려 학교 환경을 고려한 정성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방해하며 세특 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입전형 정책 추진 시 고교 및 대학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제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높아야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대입전형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의 잦은 변경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고교 현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와 학생별 개별화된 기록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방안과 수업 및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 및 교사 간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교 내 교사들 간의 협의와 내용 공유를 위한 노력, 교사 연수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고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대학에서의 서류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수업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내실화있는 수업이 진행된다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수업 내에서 관찰된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면 된다. 즉 대학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이 아니라 고교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기록하면 된다.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잘 숙지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재요령의 표준 가이드라인에 보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의 성취기준과 학습목표에의 도달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하며, 관찰이나 객관적인 근거 기술 없이 제시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나 해당 교과목과 관련 없는 진로에 대한 과도한 기술 등을 구분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자로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이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숙지가 중요하므로 특히 위촉입학사정관 교육에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입학사정관의 학생부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해보인다. 더불어 입학사정관 인식 조사에 위촉입학사정관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등의 연구도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된 내용은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입전형의 공정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기재금지 항목을 확대하고 기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탐구 노력을 위축할 수 있고,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자율권을 축소할 수 있으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를 고교에 안내하는 것은 학생부 내용의 획일화를 유도하여 평가자 입장에서는 학생 간 변별이 어려워지는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적 평가에 제한이 많아질 수 있다. 이외에도 대입 전형자료로서 일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을 비공개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교수학습방법, 학습공간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학생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의 과목구조를 개편하는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도 예고되어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의 변화에 맞는 대입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과정과 배치되는 대입정책은 오히려 지원자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정성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입전형 정책 추진 시 교육부 차원에서 고교 및 대학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인구 (2012). 입학사정관전형 평가준거와 최종평가와의 관례 - G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교육문제연구, 30(1), 1-23.
- 교육과학기술부(201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87호, 1-8.
- 교육부 (2013).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 교육부 (2016).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방안. 보도자료(2016.11.24.).
- 교육부 (2018a).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9호, 10-12.
- 교육부 (2018b).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보도자료(2018.08.17.).
- 교육부 (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보도자료(2019.11.28.).
- 교육부 (2020).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 권오현 (2017).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 제1차 대입정책포럼 발표자료 (2017.12.12.).
- 김수연, 김시라 (2009). 입학사정관 평가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성적 평가 모형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23(1), 35-59.
- 김병진, 김시라 (2013).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과 타 전형 신입생의 특성 비교 연구 - 입학사정관 전형 종합평가의 타당성 분석 - . [KEDI] 한국교육, 40(2), 57-78.
- 김재춘, 박소영 (2006).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록방식의 비판적 검토. 수산해양교육연구, 18(2), 194-207.
- 김정미 (2020).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운영 실제 연구-일반고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류은상 (2000).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박균열 (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OR 2014-1.
- 박균열, 엄준용, 주영호 (2015).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방식, 관리,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문제연구, 28(1), 81-107.
- 안희진 (2018).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광현 (2018). 학생부종합전형의 쟁점분석과 대입제도 개선방향. 교육사회학연구, 28(3), 57-95.
- 이수정 (2018).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개혁에 대한 쟁점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4), 923-944.
- 이종재, 이승호 (2010). 대학입학선발제도 유형변화와 사교육. 이종재(편), 사교육: 현상과 대응, 교육과학사.

- 장정현 (2020). 학생부종합전형의 쟁점 분석 연구 -숨겨진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명기, 최미숙, 김병주 (2019). AHP를 통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자의 전형자료 활용 경향성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6(3), 1-27.
- 정민주, 박해정, 권지원, 최혜미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태 분석: 대입 전형에 주는 시사점 논의. 교육과정연구, 38(2), 105-126.
- 정휘봉 (2018). 휴리스틱 과제분석에 기반한 대학입학사정관 평가 과정 분석.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주영효, 김상철 (2017).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35(1), 141-168.
- 조영진 (2006).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변천과정.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조희권, 김이지, 김효희, 김화신 (2019).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에 대한 입학사정관들의 인식 연구. 입학전형연구, 8, 29-53.
- 중앙대학교 (2020). 학생부전형가이드북. 중앙대학교 입학처.
- 차정민 (2016). 학생부종합전형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CP 2016-02-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한수경 (2020).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일반고 교사들의 대응전략 분석.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한양대학교 (2020). 수시전형안내 플러스 학생부종합전형 편. 한양대학교 입학처.
- 황현정, 이승준, 오수정, 이상빈, 윤상준 (2017).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과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 2.

## 부 록

### 1. 교사 대상 설문지

####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에 대해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고교 현장에서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기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합니다.

응답 완료 후, [연락처를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기프티콘\)](#)을 보내 드립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건국대학교·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 연구진 드림

##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현황

1. 다음 문항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기술 유형은 귀하께서 실제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입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가.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관찰 및 사실적 기술					
나.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 중심 기술					
다.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라.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마.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바.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사.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아.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2. 귀하께서 실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기술한 내용 중 가장 선호하는 기재 **예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명	
수업방식	
기재 내용 예시	
선호하는 이유	

3. 아래의 세특 기재 유형을 기재하기에 **적합**한 수업 및 평가 방식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강의	수행 평가	모둠 활동	토론 발표	실험 실습
가.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관찰 및 사실적 기술					
나. 수업 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 중심 기술					
다.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라.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마.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바.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사.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아.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4. 귀하께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실 때 해당 내용이 대학에서 평가에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십니까?

① 고려한다      ② 고려하지 않는다

5. (4번 문항에서 ‘고려한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중점을 두는 **대학의 평가요소**는 무엇입니까?

중점 평가요소 (ex. 학업, 진로, 인성 등)	
해당 평가요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어려움 및 기재 격차

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다음 사유에 대해 다수 교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일부 과목)					
나. 학생별 개별화된 기록					
다. 기재요령 및 기재규정 준수					
라. 글쓰기 자체의 어려움					
마. 우수 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우수성 기재					
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입 분량 채우기					
사. 추후 기록 공개에 따른 부담					
아. 참여형 수업 진행에 따른 교과진도 수행의 어려움					
자. 기타(내용 기재)					

7.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세부능력및특기사항 기입분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목당 학생부 세특 기입 분량 500자, 과목별 기록 의무화

① 매우 부족하다    ② 조금 부족하다    ③ 적절하다    ④ 조금 많다    ⑤ 매우 많다

8.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및 교사 간 기재 격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8번 문항에서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변)

다음 항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간 차이 발생**에 대한 원인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학교 간 차이	가.	학교 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나.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다.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사립) 등에 따른 차이					
	라.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마.	학교 별 우수 학생의 비율에 따른 차이					

10. **학교 간 차이**에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답변한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항목 중 하나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 주십시오.

내용		선택	답변 이유(필수 기재)
가.	학교 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나.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다.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사립) 등에 따른 차이		
라.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마.	학교 별 우수 학생의 비율에 따른 차이		

11. (8번 문항에서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다음 항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내 차이 발생**에 대한 원인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학교 내 차이	가.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나.	교과 내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다.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공통/일반선택 vs 진로선택/소인수과목 등)					
	라.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마.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					

12. **학교 내 차이**에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답변한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항목 중 하나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 주십시오.

내용		선택	답변 이유(필수 기재)
가.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나.	교과 내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다.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공통/일반선택 vs 진로선택/소인수과목 등)		
라.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마.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		

## 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1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대학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평가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학업역량 ② 전공적합성 ③ 인성 ④ 발전가능성 ⑤ 창의성 ⑥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5. 다음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 유형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가.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나.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다.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라.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마.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바.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사.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6. 위 항목(15번 문항)에 대한 선택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17. 다음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5점 척도)

내용	1	2	3	4	5
	매동의		→		매우 동의
가. 세특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교과별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범위의 추가적인 탐구 활동의 기재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세특 평가 시 객관적 활동 내용과 주관적인 평가 내용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					
라. 세특 평가 시 최종 성취 결과(성취물)보다 수업 참여도와 참여 내용 등 활동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마. 발생, 자기주도성 등 활동 수행 태도를 더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바. 세특은 학생의 석차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사. 교육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세특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자.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18. 대입에서 학생 평가 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19.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다음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변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가.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나.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					
다.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					
라.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금지					
마.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 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바.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2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다음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가.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우수사례) 제공					
나.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 (수행평가/수업태도/탐구활동 등)					
다.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21. 위 항목(20번 문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 ■ 응답자 기본 사항

22. 귀하가 현재 재직 중인 고등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고	② 외국어고	③ 과학고	④ 국제고	⑤ 예술·체육고
⑥ 마이스터고	⑦ 특성화고	⑧ 자율형공립고	⑨ 자율형사립고	⑩ 영재학교

23. 귀하가 현재 재직 중인 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무엇입니까?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② 강원권	③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④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⑤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⑥ 제주

24. 귀하의 총 교직 경력은 얼마입니까?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25년	⑥ 26년 이상
--------	---------	----------	----------	----------	----------

25. 귀하의 담당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계열 교과	② 자연계열 교과	③ 예체능계열 교과	④ 진로진학 등 기타
-----------	-----------	------------	-------------

26. 담당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27.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은 어떠합니까?

① 경력 없음	② 1~10년	③ 11~20년	④ 21년 이상
---------	---------	----------	----------

28.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기프티콘 발송을 위한 응답자 연락처

■ 설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본 설문은 1인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기프티콘 발송이 가능합니다. 비동의시 및 기프티콘 수령이 불가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기프티콘 발송을 위한 휴대폰 번호를 아래의 칸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번호 기재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선착순 설문 마감 시 해당 설문은 종료됩니다.

빈 칸 없이 기재 예) 01012345678	
-----------------------------	--

- 긴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2. 입학사정관 대상 설문지

###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 설문

---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 중앙대학교 · 한양대학교에서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해당 연구의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입학사정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이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 완료 후, 연락처를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기프트콘)을 보내 드립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건국대학교 · 중앙대학교 · 한양대학교 연구진 드림

---

## I.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에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1번 문항에서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학교 간 차이	가.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나.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다.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사립) 등에 따른 차이					
	라.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마.	학교별 우수 학생의 비율에 따른 차이					

3. (1번 문항에서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시 **학교 내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학교 내 차이	가.	수능 반영 교과 여부에 따른 차이					
	나.	교과 내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다.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공통/일반선택 vs 진로선택/소인수과목 등)					
	라.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마.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나타나는 학교 및 교사 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내용	1	2	3	4	5
	(전혀 차이가 없다)	→			(매우 차이가 크다)
가. 과목별 세특 기재량					
나.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다.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					
라. 학생별 관심 분야(학과)를 고려한 기재					
마.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기재					
바. 개인별 세특 기재					

5.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입분량이 학생부를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목당 500자 기입 가능, 기초교과군,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II.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대학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평가하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① 학업역량    ② 전공적합성    ③ 인성    ④ 발전가능성    ⑤ 창의성    ⑥기타(구체적으로 명시)

8. 다음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 유형은 학생의 실제 평가 시 **지원자 간 변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가.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나.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다.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라.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마.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바.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사.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9. 다음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5점 척도)

내용	1	2	3	4	5
	미동의	→			매우 동의
가. 세특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교과별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범위의 추가적인 탐구 활동의 기재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세특 평가 시 객관적 활동 내용과 주관적인 평가 내용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					
라. 세특 평가 시 최종 성취 결과(성취물)보다 수업 참여도와 참여 내용 등 활동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마. 세특 평가 시 최종 성취 결과(성취물)보다 적극성, 자발성, 자기주도성 등 활동 수행 태도를 더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바. 세특은 학생의 석차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사. 교육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세특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					
자.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10. 다음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을 평가에 **활용**하십니까?(5점 척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가.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응용 탐구 활동					
나.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의 내용					
다.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					
라.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학생 진로 관련 탐구 기술					
마. 교과서 외 외부 자료의 활용					
바.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2020년부터 담임교사 기재 가능)					
사.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					

### Ⅲ.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

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다음의 지침 변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가.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나.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					
다.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					
라.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금지					
마.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바.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1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다음의 제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가.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우수사례) 제공					
나.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수행평가/수업태도/탐구활동 등)					
다.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13.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세특과 관련하여 고교 및 정책 당국에 바라는 점, 제언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 ■ 응답자 기본 사항

### 1. 응답자 구분

① 전임입학사정관    ② 위촉입학사정관

### 2. 재직 중인 대학 소재지

서울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세종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 3. 재직 중인 대학 설립 유형

① 국·공립    ② 사립

### 4. 재직 중인 대학 규모(신입생 정원내 선발인원 기준)

- ① 1,000명 미만  
 ②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③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④ 3,000명 이상

### 5.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전체)

-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8년 미만  
 ④ 8년 이상

### 6. 본인의 전공 계열

① 인문    ② 자연    ③ 예체능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기프티콘 발송을 위한 응답자 연락처

■ 설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본 설문은 1인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기프티콘 발송이 가능합니다. 비동의시 및 기프티콘 수량이 불가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기프티콘 발송을 위한 휴대폰 번호를 아래의 칸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번호 기재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선착순 설문 마감 시 해당 설문은 종료됩니다.

빈칸 없이 기재	예) 01012345678
----------	----------------

- 긴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3. 교사 대상 전문가 심층면접(FGI) 면담지

## 전문가 심층 면담지

###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 중앙대학교 · 한양대학교에서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고교 교사 200명과 대학 입학사정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내용은 세특 기재 현황, 세특 기재 시 어려움 및 기재 격차,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심층 면담지는 전문가(교사, 입학사정관, 장학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설문 내용은 1차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현황, 평가 활용방안, 정책 제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오니 설문 완료 후, 보내드린 메일주소로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건국대학교 · 중앙대학교 · 한양대학교 연구진 드림

※문의: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센터

(전화: 02-2049-6282, 02-450-4011 / 이메일: konkukao@konkuk.ac.kr)

## I.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현황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 기재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특 기재 시 선호하는 기술 유형은 무엇이며,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 나.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 다.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 라.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 마.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 바.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2. 교사들은 대부분 세특을 기재하기에 적합한 수업 및 평가방식으로 '토론/발표'와 '강의 후 활동'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이 있다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3. 1차 설문조사에서 교사 및 입학사정관 모두 세특 기재 시 학교 및 교사간 격차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와 해결방안	
가. 고교 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이유	
	해결 방안	
나. 학교 관리자, 학교 분위기에 따른 차이	이유	
	해결 방안	
다. 교과 특성 및 교사 전공에 따른 차이	이유	
	해결 방안	
라. 수능 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이유	
	해결 방안	
마.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정도에 따른 차이	이유	
	해결 방안	
바. 과목 세특이 아닌 ‘개인별 세특’ 기재의 차이	이유	
	해결 방안	
사. 교사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차이	이유	
	해결 방안	

4. 1차 교사 설문조사에서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세특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와 이를 위해 고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II. 정책 제언

1. 교사가 세특 기재 시 겪는 어려움으로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 ‘학생별 개별화된 기록’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학교와 교사의 차이로 인해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교와 대학의 입장에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대학]

3.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에 대한 생각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세특은 학생의 석차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생각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부 기재요령 상 세특의 지침 변화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의견
가.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나.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	
다.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	
라.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금지	
마.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내용	의견
바.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6. 세특에 대한 다음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의견
가.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제공	
나.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 (수행평가/ 수업태도/ 탐구활동 등)	
다.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7. 이외에 세특 기재 및 평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응답자 기본 사항

### 1. 재직 중인 고교 소재지

서울 (     )	인천 (     )	부산 (     )	대구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			

### 2. 재직 중인 고교 유형

일반고 (     )	외국어고/국제고 (     )	영재학교/과학고 (     )	예술·체육고 (     )
마이스터고 (     )	특성화고 (     )	자율형공립고 (     )	자율형사립고 (     )

3. 귀하의 총 교직 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4. 대학입학 관련 업무 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5. 담당 교과목 : \_\_\_\_\_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입학사정관 대상 전문가 심층면접(FGI) 면담지

## 전문가 심층 면담지

###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 중앙대학교 · 한양대학교에서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고교 교사 200명과 대학 입학사정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내용은 세특 기재 현황, 세특 기재 시 어려움 및 기재 격차, 세특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반영,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심층 면담지는 전문가(교사, 입학사정관, 장학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설문 의 내용은 1차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현황, 평가 활용방 안, 정책 제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오니 설문 완료 후, 보내드린 메일주소로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 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건국대학교 · 중앙대학교 · 한양대학교 연구진 드림

※문의: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센터

(전화: 02-2049-6282, 02-450-4011 / 이메일: konkukao@konkuk.ac.kr)

## I.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와 활용방안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 기재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설문조사에서 아래 항목이 학생 평가 시 지원자 간 변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학생 변별에 도움이 되십니까?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해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교과 성취수준의 이해 및 성취도에 대한 기술
- 나.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
- 다.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에 대한 기술
- 라.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실습 역량에 대한 기술
- 마. 학습 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
- 바. 수업 내 협력, 리더십 등 인성에 대한 기술

2. 다음의 세특 기재 내용이 학생의 역량 평가 시 어떤 점에서 변별이 가능한지 기술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의견
가.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응용 탐구 활동	
나.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의 내용	
다. 교과수업 외 개인별 심화 학습 활동	
라. 해당 교과목 성격과 직접 관련 없는 학생 진로 관련 탐구 기술	
마. 교과서 외 외부 자료의 활용	
바. 교과목 외 학교/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 (2020년부터 담임교사 기재 가능)	
사.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과 개념	

3. 세특 평가 시, 학교 및 교사 간 격차를 크게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 평가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 가. 학교별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 나. 고교유형, 설립유형(공립, 사립) 등에 따른 차이
- 다. 수능반영 교과 여부, 석차등급 부여 여부에 따른 차이
- 라. 과목별 세특 기재량
- 마.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 바. 수업 내용 및 학생 특성 기록의 구체성
- 사. 학생별 관심 분야(학과)를 고려한 기재
- 아. 수업 내용 및 산출물의 수준에 따른 기재
- 자. '개인별 세특' 기재

4. 1차 입학사정관 설문조사에서 “학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세특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동의한다면 어떤 이유로 세특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술해주시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II. 정책 제언

1. 교사가 세특 기재 시 겪는 어려움으로 ‘전체 학생에 대한 기재 의무’, ‘학생별 개별화된 기록’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학교와 교사의 차이로 인해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교와 대학의 입장에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대학]

3. “대학은 세특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에 대한 생각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세특은 학생의 석차등급이나 성취도 평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에 대한 생각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부 기재요령 상 세특의 지침 변화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의견
가.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소논문 관련 사항 일체 기재 금지 및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나. K-mooc에 대한 내용 입력 금지	
다.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	
라.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금지	

내용	의견
마. 수학과제탐구 등 5개 과목 외 전 과목에 대해 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입력 금지	
바.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6. 세특에 대한 다음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의견
가. 교육부 차원의 세특 기재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제공	
나. 세특 기재 항목의 영역별 구분 (수행평가/ 수업태도/ 탐구활동 등)	
다. 세특 입력 내용 및 방법의 표준화	

7. 이외에 세특 기재 및 평가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응답자 기본 사항

### 1. 재직 중인 대학 소재지

서울 (    )	인천 (    )	부산 (    )	대구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			

### 2. 재직 중인 대학 설립 유형

① 국·공립 (    )    ② 사립 (    )

### 3. 재직 중인 대학 규모(신입생 정원내 선발인원 기준)

- ① 1,000명 미만 (    )  
 ②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    )  
 ③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    )  
 ④ 3,000명 이상 (    )

4. 입학사정관 근무 경력(전체): \_\_\_\_\_ 년 \_\_\_\_\_ 개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

2021년 2월 28일 인쇄

2021년 2월 28일 발행

발 행 처 건국대학교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입학처 입학전형센터 02-450-4275

---

※ 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